

표지와 동일



#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 I )

-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유입과정-

● 연구책임자  
정혜원 (본원 연구원)



# Contents

## 제1장 서론 \_ 01

제1절 문제제기 .....	3
제2절 이론적 논의 .....	6
1.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개념 정의 .....	6
2.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관점과 연구 흐름 .....	8
3. 가출 청소년과 청소년 성매매의 관계 .....	11
제3절 연구 방법 .....	13
1. 자료수집 .....	14
2. 연구 분석 방법 .....	17
3. 연구의 타당화 검증과 윤리성 .....	18

## 제2장 집으로부터의 탈출 \_ 21

제1절 최초 가출의 이유 .....	23
1. 이중적 타격(double whammy) : 심리적 부모의 부재 .....	23
2. 가출의 유형 : 탈출형 가출 .....	31
제2절 가족에 대한 양가적 감정 : 사랑과 원망의 대상, 가족 .....	33

## 제3장 익숙해지는 거리 \_ 39

제1절 답답한 집에서 거리로 : 무서운 밤 .....	41
제2절 거리와 또래 .....	44

1. 거리의 안전장치, 또래 .....	45
2. 아는 또래 : 임시적 관계 .....	53
3. 집과 멀어지기, 그리고 또래 .....	56
제3절 자유와 물리적 공간의 확장 .....	58
1. 근거지와 자유 .....	58
2. 물리적 공간의 확장 .....	62

## 제4장 한 걸음 다가선 성매매 \_ 67

제1절 가출 청소년의 하위문화 .....	70
1. '성'에 익숙해지기 .....	70
2. '강한 자' 되기 .....	77
3. 위험한 위기 대처(coping) .....	84
제2절 쉬운 기회 .....	85
1. 성 산업의 유혹 .....	85
2. 쉽고 편리한 기회, 인터넷 .....	87
제3절 생존과 내몰린 자립 .....	95
1. 경제적 욕구와 사회적 고립 .....	95
2. 생존과 성매매 .....	96

## 제5장 성매매, 갈등과 변화 \_ 103

제1절 성매매 유인 요인 .....	105
1. 버린 몸, 거리 생활의 풍요 .....	105
2. 성매수자에 대한 인식 .....	110
제2절 성매매로 인한 변화 .....	112
1. 행동의 변화 .....	112

2. 신체적 변화 .....	114
3. 정신적 변화 .....	117
4. 성적 지향과 성적 욕망에 대한 고민 .....	118
제3절 탈성매매로 가는 전환점(turning point): 인식 전환의 계기 .....	121

## 제6장 정책적 제언 \_ 127

제1절 1단계(가출 이전 단계) : 예방 .....	130
1. 가족영역에서의 예방 .....	130
2. 학교영역에서의 예방 .....	131
3. 지역사회영역에서의 예방 .....	133
제2절 2단계(가출 이후 성매매 진입 직전까지) : 초기개입과 보호 .....	135
1. 거리 및 사이버 아웃리치 확대를 통한 사례 발굴 .....	136
2. 가출 청소년을 위한 인프라 확대 .....	136
제3절 3단계 : 탈성매매를 위한 사후지원 .....	137
1.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	137
2.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	141

## 참고문헌\_ 144

## 부 록\_ 151

부록1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 도식도 .....	153
부록2 면접지 .....	154
부록3 델파이조사지 .....	159

## Table Contents

# 표 목차

■ 표 1-1 ■ 면접대상자 특성 .....	15
■ 표 2-1 ■ 최초 가출 이유 .....	24
■ 표 4-1 ■ 성적 의도에 따른 채팅방 제목 분류 .....	93



# 그림목차

■ 그림 1-1 ■ 연구 과정 .....	17
■ 그림 4-1 ■ 채팅 입장창 메인 화면 .....	89
■ 그림 4-2 ■ 스마트폰에서의 채팅방 .....	90
■ 그림 4-3 ■ 요일별/시간별 채팅방 개설 수 .....	91
■ 그림 6-1 ■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정책적 제언 .....	129
■ 그림 6-2 ■ 가출이전 단계에서의 예방 .....	130
■ 그림 6-3 ■ 초기개입과 보호 .....	135
■ 그림 6-4 ■ 사후지원 .....	137

## ■ 연구요약

### □ 연구목적

- 2009년 경찰청에 신고된 가출청소년은 2만2,287명으로 2005년부터 소폭(3.5%) 줄어든 2008년을 제외하면 줄곧 증가세임. 지난해에는 초·중·고생 열 명 중 한 명꼴(11.6%)로 집을 나갔음(경찰청, 2010).

■ 표 1 ■ 가출청소년 신고건수

단위: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13,294	14,164	18,636	23,097	22,287
남	6,195	3,406	7,995	8,851	8,825
여	7,099	5,984	10,641	14,246	13,462
기타		4,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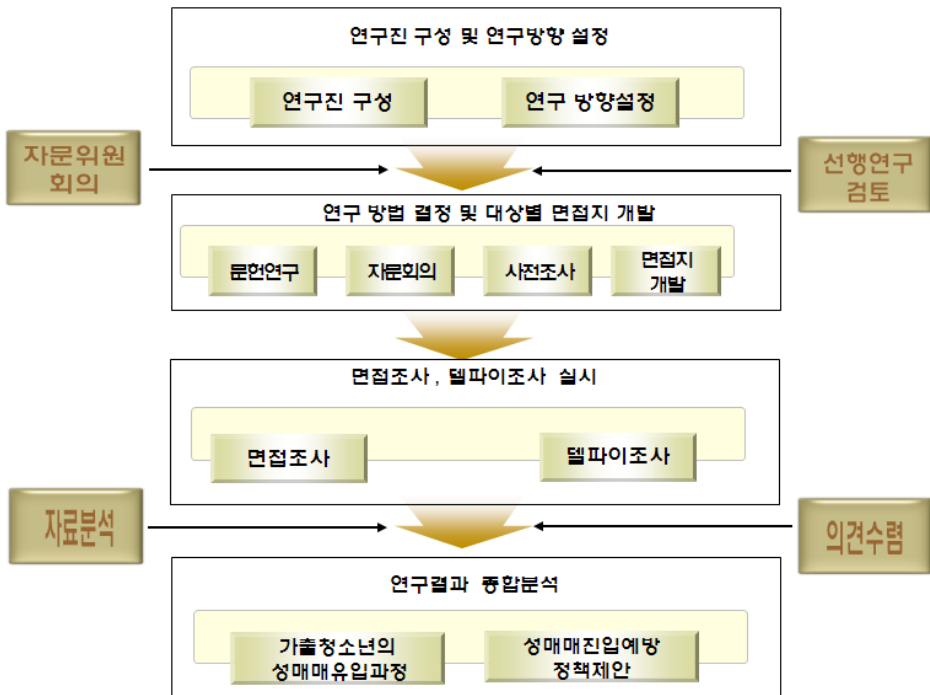
※ 출처: 경찰청.

- 2006년 ECPAT(아동성착취반대협회)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들 중 가출청소년 절반가량이 성매매를 경험했거나 현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나라의 가출청소년들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가출한 여자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성매매를 경험했거나 현재 성매매를 하고 있음.
- 여자청소년들이 가출이후 왜 성매매를 하는지 혹은 여자청소년들이 가출이후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성매매현장에 유입되는 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출에서부터 성매매 유입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경험하는 지 탐색하고, 청소년들이 그녀들을 둘러싼 구조적 환경에서 어떤 선택과 협상을 하고 구조적 환경에 포섭되어 가는지 살펴보고자 함.

##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면접조사
  - 면접기간 2011년 4월 ~ 10월
  - 15세에서 18세까지 가출 혹은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 26명, 상담원 2명 (총 28명)
- 델파이조사
  - 조사기간 : 2011년 10월
  -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시설장(총 14명)

## □ 연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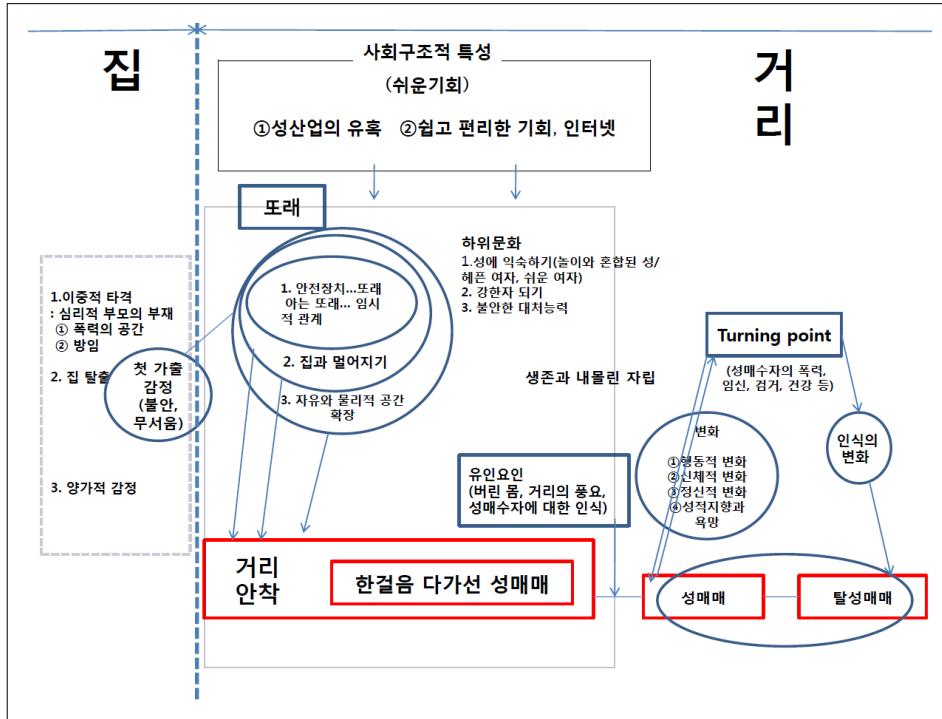


## □ 연구결과

- 청소년의 성장에 따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듯이, 청소년이 가출을 한다면 그 가출이 최초의 가출이나 상습화된 가출이냐에 따라 각각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임.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최초로 집을 벗어나게 되는 과정을 ‘가족’을 중심으로 탐색해 보았음.
  -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가정은 청소년들에게 ‘폭력 및 무관심의 공간’으로 그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으며, 더 이상 그녀들에게 가정은 개개인의 안전, 건강한 성장, 행복의 진원지는 아니었음.
  - 대부분 Homer의 분류 중 탈출형에 속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물론 가출이 반복되어 가면서 쾌락과 모험을 추구하기 위해 가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최초 가출의 경우 ‘가정 내의 폭력(violence in the family)’에 대한 대처로 시작되었음.
  - 가출 청소년들은 가족에 대해 ‘사랑과 원망’이라는 양가적 감정을 지니고 있었음. 이러한 양가적 감정은 청소년들이 거리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제이자, 작동원리로 작용하고 있었음.
  
- 집으로부터 탈출한 청소년들의 거리 생활을 탐색하고, 이러한 거리 생활이 이후 그녀들이 성매매를 자의 혹은 타의로 선택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맥락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살펴보았음.
  - 가출한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첫 번째로 느끼는 감정은 생존체계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 남성폭력에 대한 공포임. 그 가운데 가장 커다란 두려움은 남성폭력에 대한 공포임.
  - 가출한 청소년들은 거리의 공포를 벗어나는 기제로서 또래관계를 확장함. 또래에 대한 이중적 평가가 나타남. 친밀하지만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중적 간격이 존재함.
  - 거리에 익숙해지면서 또래에 대한 의존도가 강화되고, 근거지를 중심으로 한 물리적 공간을 확장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향유함.

- 가출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가 그녀들로 하여금 성매매에 한 걸음 다가서게 하는지, 그리고 청소년 성매매가 한국사회에 가출 청소년들에게 기회로서 어떻게 제공되는지를 살펴보았음.
  - 가출 청소년들은 성적욕망이 혼합된 놀이를 통해 왜곡된 ‘성’을 접하게 됨. 그리고 성적인 이중 규범 안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낙인화됨.
  - 가출 청소년들은 거리생활의 적응에 일환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이러한 집단안에서 지위 불평등을 경험하게 됨. 이러한 지위 불평등은 집단내의 상호관계속에서 권력으로 이양되고 약육강식의 윤리를 만들어 냄. 집단 내에 가장 하층에 위치한 가출 청소년들은 성적으로 신체적으로 착취당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사회의 성산업은 가출 청소년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 특히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성매매에 유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뿐만 아니라 편리함까지 제공함.
  - 가출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생존을 위한 경제적 수단을 사회로부터 배제당하고 있음.
  
- 가출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성매매를 선택하거나 선택 당하게 되는 기제와 이러한 과정에서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갈등하는 지점을 탐색하였음.
  - 성적 욕망과 혼합된 놀이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하거나, 생존을 위해 성관계, 성매매를 하게 됨. 또한 순결이데올로기적 자포자기로 성매매로의 유입을 용이하게 함.
  - 거리생활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소비욕구를 극대화시킴. 이러한 소비욕구와 생존욕구가 혼합되면서 가출청소년들은 성매매를 반복하게 됨.
  -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경험하게 되면서 행동 및 외모, 옷차림, 신체적, 정신적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성적 지향과 욕망에 대해 고민하게 됨.
  - 성매수자의 폭력, 임신 등과 같은 건강문제, 경찰 체포 등 기타 이유로 쉼터 및 성장캠프 입소, 긍정적인 지지자의 발견은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식의 계기를 마련함.

## □ 연구결과 도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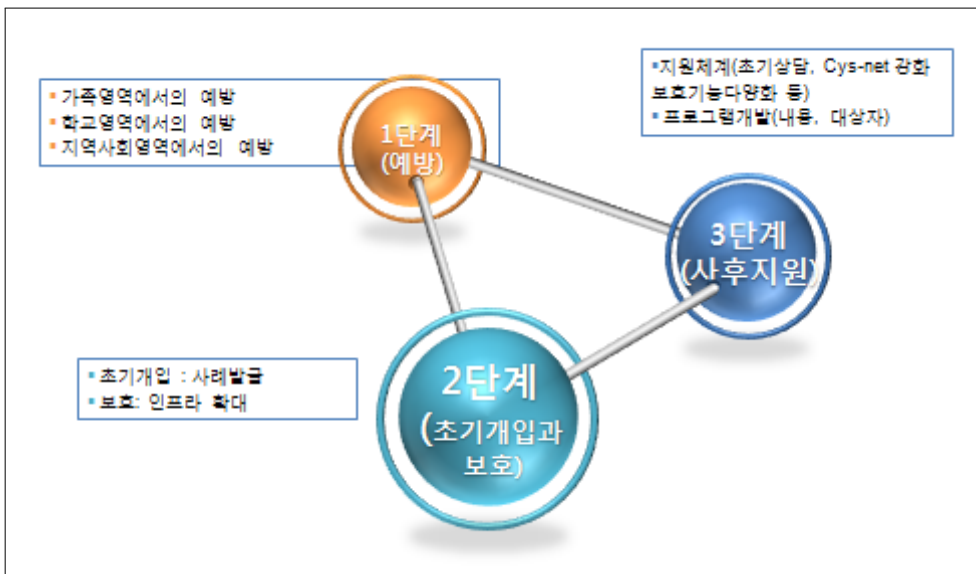


## □ 정책적 제언

-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은 그들의 삶의 맥락과 구조적 환경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함.
- 1단계(가출 이전 단계) : 예방
  - 가족으로부터 학대와 빈곤으로 인해 방치되거나 지지기반이 없는 청소년이 가출과 성매매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가족 기능 보완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매우 중요한 예방책임. 이를 위해 저소득층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실시, 폭력 및 방임 가정을 발굴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시스템 구축, 멘토링 사업, 부모를 위한 지원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한국사회의 학령기 아동·청소년들의 일과는 학교에서 시작되어 학교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함. 학교 내부에서의 성인지 인권 통합교육의 내실화,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발굴 및 상담지원, 알코올 관련 교육프로그램, 성매매 예방교육의 대상 확대, 방과후 프로그램 활용 등이 요구됨.

- 이 연구뿐만 아니라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 성매매의 주된 유입경로가 인터넷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제재 및 PC방과 같은 장소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Youth Keeper의 PC방 설치 의무화).
- 청소년을 성매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임을 국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함. 그리고 위기청소년들 대상으로 청소년·여성에 대한 보호체계 및 보호기관에 대한 홍보가 확대 강화되어야 함.



○ 2단계(가출 이후 성매매 진입 직전까지) : 초기개입과 보호

- 가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성학대의 피해를 받았더라도 자신이 성학대의 피해자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므로 거리 및 사이버 아웃리치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사례 발굴을 해야 함.

- 가출 청소년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해야 함.

○ 3단계 : 탈성매매를 위한 사후 지원

- 성매매피해청소년의 욕구과 필요한 서비스를 상담, 자립, 의료 등 3영역으로 나누어 제안함. 상담영역에서는 초기상담체계가 필요함. 자립영역에서는 대안학교의 특성화와 다양화, 지역사회 교육기관과의 연계 활성화(위탁교육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인턴십의 내실화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의료영역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방과 치과를 비롯한 의료 서비스 지원조항의 변화와 전문적인 개인 상담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필요함.
-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은 내용적 부분과 대상자 부분으로 나누어 제안함. 내용적 부분으로는 외상과 관련된 치유프로그램 개발, 성매수자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확대, 성적 자기결정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대상자 부분으로는 지적장애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남자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제 1 장

##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이론적 논의

제3절 연구방법

Women's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문제제기

2009년 경찰청에 신고된 가출 청소년은 2만 2,287명으로 2005년부터 소폭(3.5%) 줄어들었던 2008년을 제외하면 줄곧 증가세이다. 지난해에는 초·중·고생 열 명 중 한 명꼴(11.6%)로 집을 나갔다(경찰청, 2010). 여성가족부가 2008년 전국 중·고교 재학생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유해환경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두 번 이상 가출한 청소년은 가출 경험자의 절반 이상(54.4%)이었다. 최초 가출시기도 빨라져 초등학교 때 첫 가출을 한 청소년이 38.5%였다(여성가족부, 2009). 또한 2006년 ECPAT(아동성착취반대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 중 가출 청소년 절반가량이 성매매를 경험했거나 현재 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성운숙, 2009).

여자 가출 청소년의 경우 성매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지난해 말 서울 지역 가출 여중고생 1779명 가운데 175명이 성매매로 검거돼 10명 중 1명꼴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가출 신고된 뒤 단속에 걸린 경우만 따진 것이고 실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서울신문, 2010. 02. 24).

이처럼 한국의 가출 청소년들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최초 가출시기가 빨라지고 가출한 여자청소년의 많은 수가 성매매를 경험했거나 현재 성매매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집을 떠나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 가출 자체를 예방하거나 신속한 귀가에 목표를 둔 것으로서,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비행경로에 관한 연구’,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 쉼터 실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백혜정·방은령, 2009). 또한 정경은·문성호(2008)가 1991년부터 2007까지 국내학술지 28종에 수

록되어 있는 청소년 가출 관련 논문 54편의 주제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출 원인을 규명한 연구가 전체 54편 가운데 16편(29.6%), 가출로 인한 문제가 18편(33.3%), 임상실천 및 쉼터와 같은 대책에 관한 연구가 19편(24.1%), 기타 1편(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출 청소년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가출의 원인이나 비행경로’, ‘가출 이후 대책’에 초점을 둔 것으로, 청소년들이 가출 이후 거리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또한 ECPAT(아동성착취반대협회) 보고서뿐만 아니라 김은실(1999) 등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별다른 자원 없이 집을 떠난 여자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성매매를 선택하고 있다. 그런데 여자 청소년들이 가출 이후 거리에서 성매매를 어떻게 왜 선택하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청소년 성매매는 2000년에 ‘청소년 성보호법’이 제정되고, 2001년에는 원조교제에서 청소년 성매매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김시업, 2000; 조성연 외, 2000; 김종휘, 2001; 남미애, 2001; 박동균, 2001; 정규석 외, 2003; 이해경 외, 2004; 박성수, 2004; 유문무, 2005; 이경재, 2001; 심희기, 2002; 손희권, 2003; 허경미, 2003; 도미향, 윤지영, 2004; 김성천, 2005; 허영희, 2007; 이종간, 2008; 이효희, 1998; 김은실, 2001; 김연주, 2004; 김주희, 2006). 최근에는 ‘조두순, 김수철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아동성범죄의 연속선상에서 청소년 성매매가 주목을 받았고, 이에 대한 연구들이나 기획기사 등이 쏟아지기 시작했다(이나영, 2011).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가출 과정에서 여자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성매매라는 결과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많았다. 또한 십대여성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의 삶의 다양한 역동 속에서 성매매가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이들의 삶에서 지니는 다층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이효희, 1998; 김은실, 2001; 김연주, 2004) 혹은 신빈곤 십대여성이라는 맥락 안에서 성매매 혹은 탈성매매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민가영, 2008; 김연주, 2010).

그러므로 ‘가출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가출 이후의 경험에만 집중하여 연구하다 보면 가출의 맥락이 잘 드러나지 않고, 청소년 성매매가 이들의 삶의 과정에서 단절된 경험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출 경험과 성매매 경험을 이들의 삶의 연

속성에 놓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출에서부터 성매매에 유입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경험하는지 탐색하고, 청소년들이 그녀들을 둘러싼 구조적 환경에서 어떤 선택과 협상을 하고 구조적 환경에 포섭되어 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세부적으로 청소년들이 어떤 맥락에서 가출을 시도하며, 가출 이후 거리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거리생활 경험이 성매매 유입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가출한 청소년들을 성매매로 유입하게 만드는 기제는 무엇인지, 가출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과정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가출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에 따른 결과는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출한 청소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 청소년들이 최초로 집을 벗어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서는 가출의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 최초의 가출과 상습적 가출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최초의 가출과 상습적 가출을 구분하고, 연구 참여자들이 최초로 집을 벗어나게 되는 이유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둘째, 가출 청소년들은 거리에서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떻게 거리에 익숙해지는가?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 이후 거리에서 그녀들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가출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느끼게 되는 감정이나 경험’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거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또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며, 이러한 연속적인 과정이 장기 가출 혹은 반복적 가출로 이행되는지 탐색할 것이다.

셋째, 가출 청소년들이 경험한 거리생활 중 어떠한 요인들이 그녀들을 성매매에 유입되게 하는가?

이를 위해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기제로 작용하는 거리의 윤리와 경제를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로 가출 청소년들의 하위문화를 통해 거리에서 그녀들이 습득하게 되는 거리의 윤리를 살펴보고, 이러한 거리윤리가 어떻게 성매매를 선택하는 기제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가출 청소년들이 쉽게 성매매를 선택하게 하는 기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리에서의 생존과정에서 가출청소년들이 어떻게 성매매를 선택당하게 혹은 선택하게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넷째,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된 이후 지니게 되는 갈등과 변화는 무엇인가?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유입 이후, 그녀들이 경험하게 되는 갈등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 2 절 이론적 논의

### 1.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개념 정의

1990년대 후반 ‘원조교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이래, 청소년 성매매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사회현상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현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청소년 성매매는 과거와는 다른 성격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청소년 성매매의 현주소와 성격을 정밀하게 알려 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 단계로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첫째로 가출 및 성매매의 개념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에 대해 정의하고자 한다.

청소년 성매매의 주된 원인으로 가출이 지적되면서, 청소년의 가출과 성매매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이주영, 2006; 김혜원, 2011). 이처럼 청소년의 가출은 성매매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가출에 대한 정의는 학자나 시대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견해상의 차이는 여전하다(백혜정·방은령, 2009). Welsh(1995)는 가출 청소년에 대해 “부모 허락 없이 집을 떠난 지 48시간 이상이 되어 가족에 의해 신고된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미국의 가출 및 노숙 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은 “친척 및 안전한 환경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하고 다른 안전한 대체 거주지도 마련되어 있지 못한 21세 미만의 청소년”을 노숙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준호·박정선(1993)은 가출을 “자신 및 자신을 둘러싼 주위환경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점에 대한 반발이나 해결을 위해 보호자의 승인 없이 최소한 하룻밤 이상 무단으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충동적 혹은 계획적 행위”로 정의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출을 “자신 및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으로 인해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가족 혹은 보호시설을 나와 24시간이상 귀가하지 않은 충동적 혹은 계획적 행위” 라고 정의하였다.

반면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유사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조성연과 그의 동료들은(2000)은 청소년 성매매를 미성년자가 성인과 교제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일종의 사적인 성매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민희와 그의 동료들은(2000) 청소년이 자의로 인터넷 채팅이나 휴대폰과 같은 통신수단을 통해 은밀히 접촉하여 선택한 성인에게 자신의 성을 숙박업소 등에서 일회성으로 제공하고, 성인은 이에 서로 합의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편의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의 성을 구입하여 성교 또는 유사성교를 하는 것을 일종의 성매매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청소년 성매매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관계 내지는 유사성행위를 위해 이에 대한 금전이나 기타의 대가로 유인하여 실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그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남녀)로서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를 제외한다”고(제2조 제1호)하여,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연령은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까지를 부모의 동의 없이는 근로가 불가능한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일반적인 중고등학생의 연령을 청소년기로 규정하기도 하며, 사춘기 시절을 청소년기로 보는 이들도 있다(조한혜정, 2000; 윤선미, 2011 재인용). 이러한 정의 방식은 청소년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인구층인가 하는 범주화와 사회문화적 혹은 정치적 맥락과의 관계를 보지 않고, 그들을 9~24세 혹은 13~18세라고 단순히 연령을 중심으로 기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적인 정

의 방식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조한혜정, 2002).

또한 영어에서 청소년기를 가리키는 용어는 adolescence와 youth로 나뉜다. 이는 사회적 자립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adolescence의 경우 의존적 수준의 현대적 의미의 ‘청소년’을 의미하며 youth의 경우 반의존적 수준의 ‘후기 청소년 혹은 청년’을 의미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라는 용어 대신에 개인적 행위자로서의 주체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회복력이 있고 자신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를 담아 새롭게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의 개념을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이란 “자신 및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으로 인해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가족 혹은 보호시설을 나와 24시간 이상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이다.

## 2.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관점과 연구 흐름

서구사회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범죄정의 시스템은 성매매를 큰 틀에서 청소년기 가출과 관련된 비행의 한 부분으로 성매매를 보고 있었다(Flowers, 2001; Gray, 2005; Kreston, 2005; Mitchell et al., 2010재인용). 그러나 최근 가출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시각이 변하기 시작했다.

성매매와 관련된 청소년 문제에서 점차 ‘상업적인 성착취’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성적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Mitchell et al., 2010). 미국 정부는 청소년 사법제도를 통해 한때 비행, 범법자 관점으로 청소년 문제 정책을 실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상업적 성적 의도에 의해 ‘피해 입은 청소년 관점’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다루고 있다(Ashley, 2008;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005; Friedman, 2007)

영국 또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경미하게 취급했던 데서 탈피하여, 청소년 성매매를 학대 및 성착취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2003년 성범죄법(The Sexual Offences Act 2003)을 통해 청소년을 성매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명백한 아동학대임을 명기하였다. 여자청소년뿐만 아니라 남자청소년들에게도 성매매와 관련된 위험과 안전 그리고 평등관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위험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상업적 성착취의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에 대한 수요와 공급, 기회의 차단이 동시에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토대



아래 정부의 통일된 지침 마련, 강력한 법집행, 성매매 남성과 여성에 대한 다각적·통합적·전문적 개입,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다기관 간 협력 등 다차원적인 접근을 강구하고 있다(홍봉선, 2007).

다른 한편 한국사회의 청소년 성매매는 2000년에 ‘청소년 성보호법’이 제정되었고, 2001년에는 원조교제에서 청소년 성매매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김시업, 2000; 조성연 외, 2000; 김종휘, 2001; 남미애, 2001; 박동균, 2001; 정규석 외, 2003; 이해경 외, 2004; 박성수, 2004; 유문무, 2005; 이경재, 2001; 심희기, 2002; 손희권, 2003; 허경미, 2003; 도미향, 윤지영, 2004; 김성천, 2005; 허영희, 2007; 이종간, 2008; 이효희, 1998; 김은실, 2001; 김연주, 2003; 유문무, 2005; 김주희, 2006; 윤선미, 2011), 최근에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한국사회안에서 존재하고 있다. 첫 번째 시각은 여성주의적 관점이다(김현미, 1997; 이효희, 1998; 조한혜정, 2000; 민가영, 2000; 김은실, 2001; 김연주, 2003; 변혜정, 2006; 이주영, 2006; 민가영, 2009).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청소년 성매매에 관련하여 이효희(1998)는 십대여성들이 성적 서비스를 매매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험을 통해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민가영(2000)은 가출로 유입되는 과정과 가출기간 중 겪는 ‘몸’의 경험이 어떻게 성별화되는지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여주었고, 김은실(2001)은 호이가드와 핀스타드의 이론틀을 빌려와서 한국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십대여성의 성매매가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적인 선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문화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김은실(2001)은 십대여성의 성매매 유입 계기가 ‘돈’과 같은 개인적인 동기에서 성매매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사회에 내재해 있는 집단적인 문화 경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성매매는 ‘성’ 특히 여성의 성이 상품적 가치와 교환적 가치를 지닌 사회체제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체제 내에서 여성은 여성의 성을 원하는 남성을 통해 사회의 이익/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십대여성과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돈을 위해 더 손쉽게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된다고 한다.

김연주(2003)는 사회적 맥락 분석을 통해 십대여성의 원조교제 경험을 ‘희생자’ 또는 ‘영리하고/까진 청소년’이라고 간주하는 이분법을 넘어, 원조교제를 유도하는 사회적 여건을 지적하였다. 김주희(2006)는 티켓 영업 다방에서 다방‘일’을 수행하고 있는 십대 여

성의 ‘일’ 경험에 주목하였다.

윤선미(2011)는 장기가출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가출경험을 분석하였다. 그는 청소년들의 장기 가출 경험은 폭력과 빈곤, 소통 부재 등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가정과 학교를 떠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가는 여정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 여정 속에서 가출 청소년들은 ‘어린 여성’이라는 위치로 인해 손쉬운 노동/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계급, 연령이 상호 교차하는 방식의 새로운 분석틀을 이용하여 신빈곤층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과정 및 자활과정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민가영, 2008; 김연주, 2010).

이러한 연구들은 ‘문제’ 혹은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던 청소년의 주체성에 대해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가출이나 성매매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파악해야 할 문제임을 제기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성별 위계구조와 계급의 문제 및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인 문화, 제도, 법체계를 우선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놓인 사회구조와 이들의 문화안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발달단계로서 청소년시기에 겪게 되는 성적 착취와 그 피해를 중심에 놓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담론’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성숙한’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청소년 성매매를 인식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보호와 구제, 선도와 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와 처벌 등 사후 처리 내용들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영향에 대한 연구(방은령 외, 2000), 성매매 청소년의 실제적인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삶의 태동에 미친 영향과 치료방안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연구(유은주, 2005; 홍현정, 2007), 청소년 성매매가 더 확장되거나 새로운 성매매 유형으로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모색을 하는 연구들(홍봉선·남미애, 2009)로 매우 다양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다.

특히 유은주(2005)는 성매매 청소년의 경험 과정의 중심현상이 ‘자존감 상실’ 과정임을 탐색하였고, 성매매 경험 이후 삶의 과정은 ‘성매매에서 벗어나 당당한 여성으로 살아가기’의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홍봉선(2007)은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시범사업과 기관 간 협력을 중심으로 영국 정부의 개입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살펴보려 시도하였다. 홍봉선·남미애(2009)는 성매수피해 청소년의 욕구 및 사회적 지

원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성매수피해 청소년들이 사법기관 발견 후부터 사회복지 단계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당면하는 문제점 및 욕구를 탐색하여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관점은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을 공식적으로 피해자라고 간주하는 것과 무관하게 청소년 성매매를 ‘비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각이다(박동균, 2001; 박성수, 2001; 성용은·조현빈, 2010). 이러한 연구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이경재(2001), 안경옥(2002)의 연구처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현황과 법제도를 고찰함으로써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타당성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들은 성구매자 남성의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인터넷 공개에 따른 공개방법의 타당성, 범죄자와 가족의 인권침해 가능성, 이중 처벌의 가능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다루고 있다(김연주, 2011)

둘째는 유문무(2005), 성용은·조현빈(2010)처럼 청소년 성매매를 비행으로 규정하고 성매매에 대한 원인, 실태분석, 방치대책에 대해 고찰하고 제시하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최근 증가하고 있다.

### 3. 가출 청소년과 청소년 성매매의 관계

성매매 청소년들과 가출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Greene & Ennett, 1999 ; Siegel & Senna, 2000 ; Nadon et al, 1998 ; 박정은 외, 1993; 김종휘; 2001; 윤선미, 2011).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가출한 청소년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성매매라는 것이다.

Boyer와 James(1982)는 가출 청소년이나 집 없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로부터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장기간의 갈등들이 발생되면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어 가정에서 탈출하게 되고 이들 중 일부 청소년들은 성매매에 유입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것은 성관계에 애착을 갖기보다는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Schissel & Fedec, 1999 재인용; Walls and Bell, 2010).

또한 장기간 길거리에서 살아 온 청소년들 중 약 75% 정도는 일정한 범죄에 관여하고 있으며, 그 중 50%는 성매매나 생존을 위한 섹스를 한다고 한다(Kipke, O'Conner,

Palmer & MacKenzie, 1995; Kipke, Plamer, LaFrance & O'Conner, 1997).

Estes and Weiner(2001)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사회적으로 무관심한 이유를 성매매를 하게 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대부분 '버려진' 아동들이거나 가난하거나 미성년자, 가출 청소년, 또는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Williams(2010)은 경로연구를 통해 미국 내에서 성매매 청소년들 중 성폭력을 경험했거나 비슷한 피해위험에 노출된 14-19세 사이 61명의 가출 경험 청소년들(남자 15명, 여자 44명, 트랜스젠더 2명)을 연구하였다. 그는 가출 청소년들에게는 견디기와 생존이 주요 테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가출 청소년들이 매우 어린 나이에 배고픔과 가난을 겪어가며 인생과 타협하고 거리에서 어떻게 생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의 보고에 의하면 많은 성매매 청소년에게는 폭력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해한 가족과 가족사가 있었다고 한다.

Greene과 Ennett(1999)은 가출을 했거나 집 없는(homeless) 청소년과 성매매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 전국 청소년 쉼터에 살고 있는 청소년과 길거리 청소년(street youth)을 면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길거리 청소년(약 28%)들이 쉼터 청소년(약 10%)보다 더 많이 생존형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그는 생존형 성매매가 집 없이 지내는 기간과 가출 청소년이 처해 있는 환경과 관련되는 경제적 생존 전략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Nadon 등(1998)은 여자청소년이 성매매에 개입하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 사회 거주 시설(residential treatment center, detention facilities)에 살고 있거나 기관에서 취업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중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45명)과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37명)을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성매매 청소년 집단의 경우 어린 시절 가정에서 성적, 신체적 학대 경험이 많으며 부모가 알코올중독인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대인 폭력 경험, 낮은 자존감, 알코올 및 약물 남용이 높았다. 그러나 비교 집단과의 비교에서는 가출이나 약물사용에서만 비교 집단보다 높았을 뿐 신체적 학대는 비교 집단이 더 높았으며 성적 학대에 있어서는 비교 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성매매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는 매우 상이한 결과였는데 그것은 비교 집단의 구성이 일반 청소년 집단이 아니라 비행이나 가출 등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시설에 거주하거나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가출이 성매매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며 특히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격 변수보

다는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불충분한 상황이 더 중요하므로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합법적 수단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매매 청소년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종휘(2001)의 연구에서는 성매매 경험 청소년의 51.3%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청소년 상담원의 조사에서도 성매매 경험 청소년의 48.6%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25.2%의 청소년이 청소년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윤선미(2011)는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 그들이 가진 관계망이 불안정하고 자원은 열악하여, 가출이 장기화될수록 청소년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고 한다. 이러한 어려운 가출생활 과정에서 여자청소년들은 ‘어린 여성’이라는 위치로 인해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

### 제 3 절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가출 이후 성매매를 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 집단을 연구하기 위해 사례 연구(case study)<sup>1)</sup>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심층면접과 직접 관찰, 문서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자문회의와 델파이조사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학계와 현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

1) 사례연구(case study)는 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또는 다른 단위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조사이며 배경, 현재 상태, 환경적 특성 및 상호작용 관련 심층적 자료를 자연적인 상태에서 조사 연구하는 것이다(Woods & Catanzaro, 1998; 신경림 외, 2004 재인용). 사례연구에서 사례(case)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Ragin and Becker(1992)는 사례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일 수도 있지만 일정기간일 수 있다. 때문에 사례연구의 본질은 어떤 것의 특별한 사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제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역사적으로 사회사업의 실천적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시에 1920년의 문화인류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사례연구를 체계적으로 사회과학에 적용한 최초의 학자는 프랑스의 Frederic Le Play이다. 그 이후 사례연구는 미국사회학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으며, 그 유용성도 인식되었다. 그 한 예로 Thomas의 “부적응 소녀”(1923) 연구가 있다(신경림 외, 2004).

## 1. 자료수집

### 1) 심층면접

질적 면접(qualitative interview)은 비공식 대화면접, 일반 면접지침 접근법, 표준화된 개방형 면접 등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Patton, 1990:280). 이 연구에서는 비공식 대화면접(informal conversational interview)과 표준화된 개방형 면접(standardized open-ended interview)을 혼합하여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에서는 면접자와 피면접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계획되지 않고 예상되지 않은 상호작용 때문에 현장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비공식 대화면접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과정을 탐색적으로 유추하였다. 본조사에서는 면접자의 영향과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개방형 면접(standardized open-ended interview)을 실시하였다(김기덕 편역, 2008). 사전조사를 통해 탐색했던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과정 중 연구자의 주요한 관심주제를 중심으로 비구조화된 면접목록을 구성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 (1)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특성

참여자에 대한 의도적인 선택은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이 연구에서는 Goetz와 LeCompte(이용숙·김영천, 1998 재인용)가 제시한 준거적 선택방법 중 모집단 특유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전형적 사례선택(typical case selec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거리, 공원 등에서의 무작위 접촉 방법과 또 다른 하나는 청소년 성매매 지원시설의 소개를 받는 방법이다.

그러나 아웃리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거리, 공원 등에서의 무작위 접촉으로 만난 경우는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접촉이 많아서, 성매매 여부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심층면접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면접은 진행하였으나 분석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이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자는 대부분 청소년 성매매 지원시설의 소개를 받거나 일반쉼터의 소개를 받아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연구 참여자 수는 28명으로 결정하였고, 면접횟수는 면접을 진행하면서 '포화(saturation)'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청소년 성매매 지원시설 거주자 20명, 일반쉼터에서 소개 받은 청소년 6명, 청소년 성매매

지원시설 상담원 및 일반 쉼터 상담원 2명 총 28명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은 연구 참여 당시의 상황이며 <표 1-1>과 같다.

■ 표 1-1 ■ 면접대상자 특성

	사례(가명)	나이	특징	비교사례
1	빨강	18	노래방도우미, ADHD	
2	분홍	17	조건만남으로 인한 임신	
3	회진	18	조건만남	
4	검정	18	조건만남, 성인남자와 동거 중	
5	보라	16	친언니의 강요로 인한 조건만남	
6	예진	17	조건만남, 노숙생활	
7	파랑	18	조건만남, 본드 흡입	
8	노랑	18	조건만남, 지적장애	
9	초롱	17	강요에 의한 조건만남, 지적장애	
10	연두	17	폭행에 의한 조건만남, ADHD, 지적 경계선 의심, 장기간 성폭행 경험	
11	남희	19	조건만남 및 노래방도우미, 성인남자와 동거중	
12	하늘	16	조건만남, 친오빠 성폭행경험	
13	바다	17	조건만남, 심각한 비행 경험, 친부에 의한 폭행	
14	햇살	17	조건만남, 친부성폭행, 동성 성추행(가해자)	
15	바람	18	조건만남 및 노래방도우미	
16	소라	15	장기간 감금성매매	
17	나무	18	조건만남, 친모의 알콜중독	
18	하양	17	조건만남	
19	구름	17	조건만남	
20	홍이	16	조건만남	
21	회진	18	조건만남	
22	윤희	16	조건만남을 하지 않음, 장기가출	비교
23	희민	17	조건만남을 하지 않음, 장기가출	비교
24	하운	19	조건만남을 하지 않음, 장기가출	비교
25	영민	18	남자, 조건만남 알선, 쉼터 거주	비교
26	영훈	17	남자, 쉼터 거주	비교
27	상담원	45	상담원	비교
28	상담원	41	상담원	비교

## (2) 심층면접 기간 및 방법

이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한 면접은 2011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이루어졌다. 면접원은 성매매에 유입된 가출 청소년을 연구한 경험이 있거나 질적 방법론에 관한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회학과 대학원생이거나 성매매 지원 청소년 시설 상담원<sup>2)</sup>을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은 면접자와 피면접자가 1:1로 인터뷰를 진행한 경우, 면접자와 상담원 그리고 피면접자가 2:1로 인터뷰를 진행한 경우, 면접자와 피면접자가 1:다수로 인터뷰를 진행한 경우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접 시간은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30분까지 소요되었으며, 대상자의 조건이나 연구 목적, 필요에 따라 적게는 1회 많게는 5회에 걸쳐 면접을 실시하였다.

## 2) 직접 관찰 및 문서 그리고 사이트분석 등

사례연구의 자료 수집은 대체로 광범위하다.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이외에도 현장 노트, 연구자의 분석메모와 반성적 일지, 씬터 상담일지 등을 수집하였다. 상담일지와 심리검사 자료는 심층면접하기 전 연구 참여자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사례의 구체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Q사이트의 대화방 방 제목과 대화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 3) 전문가 및 현장 자문

청소년 성매매에 관련된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를 중심으로 연구방향 및 연구 진행과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후 연구결과를 검토 받았다.

## 4) 델파이조사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 예방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적 의견을 탐색하기 위해 청소년 지원시설에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과 진행 흐름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 피면접자가 거주하고 있는 성매매 지원 청소년 시설에 종사하시면서, 피면접자들과 라포가 형성된 상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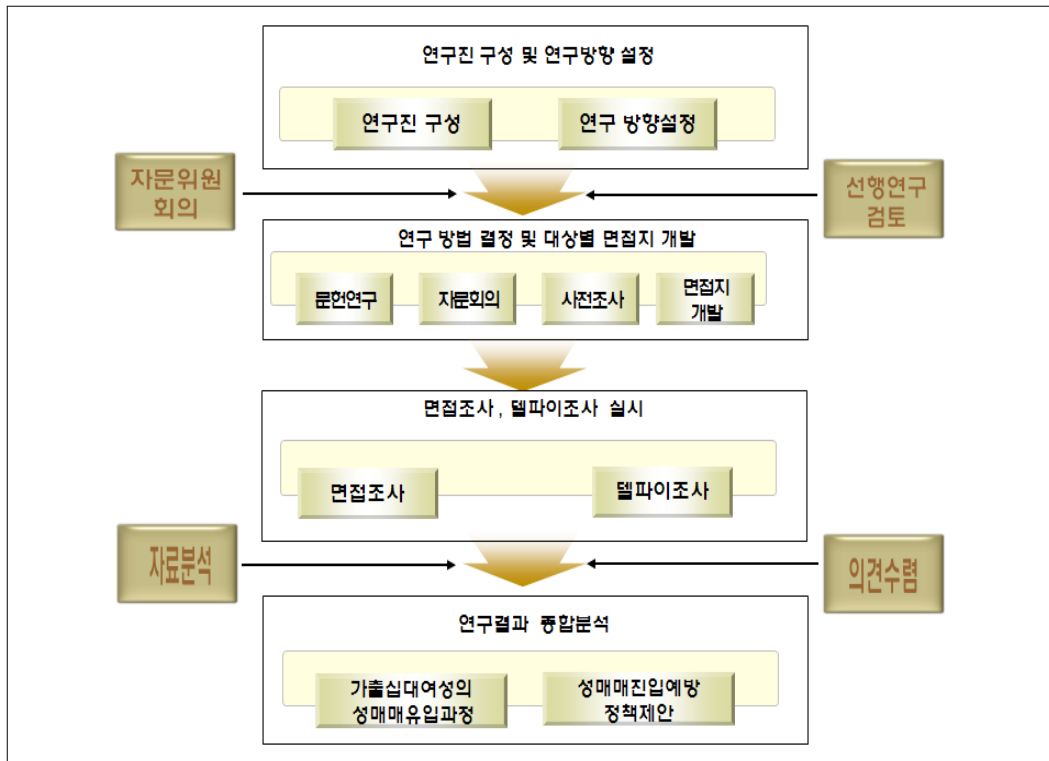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 과정

## 2. 연구 분석 방법

양적 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는 변수를 통제하고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를 파악하고 구축해 나간다는 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아니라 소수의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기술을 통해 독자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박종원, 2011).

질적 연구에서는 전이성(transferability)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자료나 연구 방법의 사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수작업에 의존할 경우 인터뷰나 어떤 특정한 자료의 분석에 너무 치중하게 되고, 연구자가 수집한 다양한 자료 간의 빈도나 관계를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질적 연구 결과물의 보고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자료에서 나오는 공통된 주제나 서로 상반된 주제를 효과적으로 보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질적 자료 분석 도구인 Nvivo 9을 사용하였다.

Nvivo 9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방대하고 무질서한 인터뷰와 기

타 자료를 관리, 분석하고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편리함 이외에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을 경우, 연구자의 연구 진행 과정을 처음부터 연구 종료 시까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다. 둘째로 연구 내용을 자동으로 체크함으로써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줄 수 있다. 셋째로 연구자가 녹취한 전 자료를 근거로 프로그램 내에서 반복되는 하위영역(sub-domain)에서 영역(domain)으로 이어지는 분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연구 질문이 현장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구축되었는지의 여부를 금방 알 수 있다. 넷째로 산만하고 방대하게 들어온 자료를 코딩하면 코딩한 항목 간에 코딩의 빈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어떤 항목이 참여자에게 의미가 큰 것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다. 다섯 번째 인터뷰 진행 과정 동안에 인터뷰 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해석함으로써 계속되는 관찰이나 인터뷰에서 무엇을 중점으로 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다(박종원, 2004).

분석은 구체적으로 전사된 자료와 현장노트, 연구자의 분석메모와 반성적 일지 등 수집된 전체 자료를 조직화하였다.

Nvivo 9을 이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전사 자료를 읽으면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연구자가 코딩하였다. 이렇게 의미코딩이 된 것을 하나로 묶어 범주화시킴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술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과정, 범주, 의미단위 등을 분류하여 이름(코딩)을 부여하였고, 그 결과는 이 보고서안에 결과표들로 제시하거나 인터뷰내용으로 제시하였다.

### 3. 연구의 타당화 검증과 윤리성

#### (1) 타당도와 신뢰도

이 연구에서는 구성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심층면접 이외 직접관찰, 각종 문서정보 등을 참고하였으며, 다중사례연구<sup>3)</sup>를 통한 외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례연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보고서 초안을 검토할 중요 정보 제공자를 확보하였다. 또한 자문회의와 관련된 현장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

3) Yin(2003)은 사례연구를 설명하는 데 있어, 2×2 매트릭스에 기반을 둔 네 가지의 연구 설계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설계 유형은 단일사례이면서 단일분석단위의 설계, 두 번째 연구설계 유형은 단일사례이면서 복합분석단위의 설계, 세 번째 연구설계 유형은 다중사례이면서 단일분석단위 설계, 네 번째 연구설계 유형은 다중사례이면서 복합분석단위의 설계 유형이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세 번째 다중사례이면서 단일분석단위 설계유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동일한 연구 내에 서 두 개 이상의 사례가 포함되는 다중사례연구로 반복연구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 (2) 연구의 윤리성

질적 연구는 그 특성상 윤리적 문제를 유발할 여지를 안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첫째,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설명하고, 최소한 2번 이상 확인했다. 둘째, 심층면접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말하기 싫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되며, 연구 참여 중에라도 연구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힐 수 있음을 사전에 구두로 설명해 주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가 곤란해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았으며, 연구 목적상 궁금하더라도 더 이상 질문을 전개하지 않았다. 넷째, 참여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연구의 목적, 절차, 비밀보장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동의를 받았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되었고, 연구 참여자들이 면접 중 거론한 이름 또한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의 비밀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인터뷰한 녹음은 전사한 후 보고서 작성 후 1개월 내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 제 2 장

## 집으로부터의 탈출

제1절 최초 가출의 이유

제2절 가족에 대한 양가적 감정 : 사랑과 원망의 대상, 가족

Women's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제 2 장 집으로부터의 탈출

### 제 1 절 최초 가출의 이유

청소년들이 집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년 가출의 원인은 개인, 가족, 학교, 또래요인 등 복합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거나(박명숙, 2006), 가정 또는 부모 측면과 친구 집단의 측면으로 단순화하여 설명하기도 한다(김준호·박정선, 1993; 전신현·김원경·황성현, 2010 재인용). 하지만 청소년 가출의 어떠한 측면을 조명하든 그들의 가출에서 가족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없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결과, 가출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집이 싫어서 가출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인터뷰 결과들도 역시 청소년들이 집을 벗어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 또는 부모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많은 양적·질적 연구들에서는 가출의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 최초의 가출과 상습화된 가출을 구별하지 않고, 가출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장 정도에 따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듯이, 청소년이 가출을 한다면 그 가출이 최초의 가출이냐 상습화된 가출이냐에 따라 각각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상이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최초로 집을 벗어나게 되는 과정을 ‘가족’을 중심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 1. 이중적 타격(double whammy): 심리적 부모의 부재

가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탐색할 수 있었다. 하나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정서적인 안정과 보호를 주는 공간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일상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부모의 무관심과 잦은 불

화’ 때문에 ‘그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최소한의 보호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출 청소년들이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과 무관심’을 경험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폭력의 공간, 집

(처음 가출한 것이 언제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요. 그때는 멋모르고 나와 가지고 갈 데도 없고……. 그때는 조금 집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아빠가 폭력이 점점 심해져서요. 귀찮기도 하고……. (햇살)

그때도 많이 혼났지요. 코피가 장난 아니게 많이 났어요. 코뼈 부러지고, 멍이 안 든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노랑)

연구 참여자 중 14명에게 최초의 가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표 2-1>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인터뷰에서 참여자 한 명이 여러 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한 가지 요인을 반복해서 지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사 내용을 Nvivo 9을 사용하여 분석한 것을 <표 2-1>에 반영하였다.

■ 표 2-1 ■ 최초 가출 이유

주요 요인	코딩 수	빈도(%)
학대	11	78.6
놀고 싶어서	2	14.3
집에서 쫓겨나서	1	7.1
합계	14	100

최초 가출 이유로 연구 참여자들 중 78.6%가 부모에 의한 학대를 말하고 있었다. 또한 14.3%가 최초 가출 이유를 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친구들과 놀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가기 싫게 되었고 그래서 집을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최초 가출 이유를 이야기 한 연구 참여자들 중 7.1%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과반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부모에 의한 학대를 가출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부모에 의한 학대에는 ‘신체 학대(physical abuse), 정서 학대(emotional abuse), 성 학대(sexual abuse), 방임 및 유기(neglect and abandon)’ 등



이 있는데, 조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특히 신체적 학대, 즉 아버지에 의한 폭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자영(2011)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의 연구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이 겪는 학대 중 신체적 학대가 41.2%로 다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가출의 이유를 학대라고 응답한 참여자들 중 일부는 신체적 폭력 중에서도 ‘아버지에 의한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네. 아빠가 싫고 집이 싫어서 나왔어요. (아빠가 왜 싫었는데요?) 폭력을 썼어요. (어떤 폭력이요?) 언어폭력도 썼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 보면 겁먹고 말이 안 나와요. (바다)

바다는 점점 심각해지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처음으로 가출해서 3년째 아버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의 반복적인 폭력은 바다와 아버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바다는 집을 나왔고, 이러한 가출은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가출로 이어졌고 이제는 연락을 두절한 채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폭력은 바다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는데, 바다가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닌 일에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집에 통금 시간이 7시 반까지였는데 그 시간보다 늦게 들어가서 집에 아빠가 있었는데…… 문 열어 달라고 그랬는데 못 들었는지 일부러 안 열어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룻밤을 샌 적이 있어요. 밖에서. (바다)

바다는 친구들과 놀다가 통금 시간보다 조금 어겼다는 이유로 부모가 집에서 내쫓았다고 한다. 통금을 어겼을 때 일상적인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하는 제재에 비해 바다의 부모님은 극단적인 방식의 제재를 선택하고 있었다.

말 어길 때마다 몇 대씩 맞았어요. (…중략) 그냥 몽둥이 갖고, 좀 많이……. (소라)

그냥 제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안 듣고 그래서요. (어떤 말 안 들었는지 기억나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부모님이 뭔가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싸웠거든요. (소라)

소라는 자신이 아버지의 말을 어길 때마다 몽둥이로 폭력을 당했다고 했다. 소라 아버

지의 상습적인 폭력은 소라가 최초의 가출을 선택하게 했다. 물론 부모에게는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폭력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이유도 모르는 채 폭력을 경험해야 했다. 그들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알코올이 너무 심해서 그냥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때리고 그냥 이유를 모르겠는데 때리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외출도 못 하게 하고, 그런 생활이 싫었어요. 그래서 가출했구요. 때리는 게 그냥 뺨 때리는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때리고, 애들 앞에서 때리고, 친구 놀러오면 친구 앞에서도 때린 적도 있으니까, 그때는 아빠가 많이 미웠죠. (햇살)

가출 청소년들은 부모, 특히 아버지로부터 사소한 일 때문에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경험했다. 상습적인 폭력은 그녀들의 일상에서 이루어졌고, 그녀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햇살은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의 부모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감정적 폭발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를 구타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정 내의 폭력은 이처럼 자녀의 잘못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제가 사촌언니랑 같이 살거든요. 저랑 아홉 살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언니가 어렸을 때 많이 때려가지고 그런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어~~~ 좀 초등학교 때부터 맞고 살아서요. (중략) 저녁때는 긴장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니가 들어올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조금씩 봐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구나, 뭐 하나 잘못하면 나 때리는구나, 하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좀……. (노랑)

가정 폭력의 주범은 대상에 따라 주로 부모였지만, 부모 이외에 함께 거주하는 친척도 있었다. 그리고 폭력의 형태는 신체적인 폭력에서부터 성폭력까지 유형도 다양했다. 노랑은 함께 거주하는 친척에 의해 신체적 폭력과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노랑은 사촌언니가 집에 오는 시간만 되면 무서웠다고 말하고 있었다.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공간인 집이 노랑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공간이었다.

아빠 때문에 힘들어서. 차라리 집에서 살기보다는 나올 것 같아서 (바다)

솔직히 때리기도 많이 때렸는데 잠도 못 자게 하고 외출도 못 하게 하고, 학교도 중학교도 잘 못 다녔죠. 아빠가 안 잔다고 자지 말래요. 세탁기에 연결된 하얀 호스… 아니면 진짜 안 부러지는 나무나… 아니면 의자나 소주병으로 때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였어요. (햇살)

음, 아, 집으로 들어와 그거… (잠깐 씬) 허리띠로 엄청 맞았어요. 그런 다음에 집에서 편하게 있었죠. 하하하 [웃음] (하양이).

저희 아빠가 좀… 술만 먹으면 변해요. 그게 좀 힘들어요. (어떻게 변하는지 물어봐도 돼요?) 가족한테 폭력 같은 거 많이 써요. (하늘)

노랑이 사촌언니 때문에 집이 무섭고 살기 싫었다면, 햇살은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의자 혹은 소주병, 세탁기 호스까지 집안의 다양한 물건을 이용하여 아버지는 햇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린 것은 햇살뿐만이 아니었다. 바다, 연두, 보라 등 너무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폭력의 대상이었다.

더 나아가 성폭력의 대상이 된 청소년의 사례도 접할 수 있었다. Lerner(1997)는 정보, 미래에 대한 기대, 자원이 거의 제공되지 않는 계급의 가족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엄마의 부재를 메워 주는 ‘성적 대상’ 혹은 ‘구타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인터뷰 했던 청소년들에게도 나타났다.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어디에서 그랬어요?) 집에서요 (그때는 자주 그랬어요?) 아니요. 그게 끝이었어요. 한 번이었고, 그때는 취하신 상태였어요. (햇살)

햇살은 아버지로부터 성폭행까지 당했다. 햇살뿐만 아니라 연두 역시 아버지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였다. 햇살은 단 한 번뿐이었다면, 연두는 아버지에 의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이처럼 하늘이도, 보라에게도 그들이 속한 가정은 정서적 만족을 주는 공간이 아닌 ‘폭력의 장’이었다. 인간 성장 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할 가정은 ‘폭력의 장’으로, ‘불안과 공포의 공간’으로 변질되어 있었고, 이들은 이러한 공간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했다.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가정은 청소년들에게 ‘폭력의 공간’으로 그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더 이상 그녀들에게 가정은 개개인의 안전, 건강한 성장, 행복의 진원지가 아니었다.

## 2) 잦은 불화와 무관심의 공간, 집

새엄마랑 별로 안 친해요. 이번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흠흠 (크게 한숨을 쉬며) 늘  
은 사람이 능력도 좋아... 그냥 새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음 너무 차별하는  
면이 있어서. 아들... (빨강)

빨강은 벌써 새엄마가 두 번째라고 한다. 빨강의 경우,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잦은  
결혼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할머니에게 양육되었다가, 초등학교 시절부터는 아버지와  
새어머니에게 양육되었다. 양육 과정에서 새어머니와의 불화를 경험하였고, 새어머니와  
의 불화는 잦은 가출로 이어졌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는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양육자의 양육 행동이 매우 중  
요하다. 물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부모로부터 독립하  
여 가정에서 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양육자의 양육과 보살핌이 필  
요한 시기이다. 때문에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양  
육자의 양육 행동은 대상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빨강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 양육을 책임지는 주 양육자가 계속해서 변화  
하고 있었으며, 주 양육자들에게 적절한 보살핌이나 양육을 제공받지 못했다.

지금 아빠가 잠수를 탔거든요. 아버지가 흠~~~ 그것 때문에 할머니랑 저랑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왜 잠수 탔는지 몰라요. 진짜 짜증 나 죽겠어. 쌍놈의  
새끼... (빨강)

빨강은 집에 있으면 짜증이 난다고 했다. 아버지의 잦은 결혼도 짜증의 원인이지만,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더 짜증이 난다고 했다. '결혼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새엄  
마한테 중국집을 맡기고 잠수 타고 왕짜증'이라고 빨강은 이야기한다. 거기에 술만 마시  
면, 전화해서 신세 한탄을 하는 할머니까지 빨강은 정신적으로 편안할 날이 없다고 했  
다. 집에서나 거리에서나 심지어조차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술 먹은 것도 엄마 아빠 이혼한다 그래 갖고 먹은 거예요. (침) 한 두 번 들었으면 안  
그러겠지 그래 갖고 넘어갈 텐데 계속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은 그래요.  
(누가?) 엄마 아빠가. 항상 전화를 해요, 술 먹고. 아니 엄마가, 아빠가 엄마가 아침부터  
술 먹고 있으면은 갔다 와가지고 팔라 돼 있으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예요, 솔직히. 그러  
면 대화를 하면 되는데 자기도 술 먹고 싸워버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래놓고 나한  
테 전화해 가지고, 그 꼴 보기 싫어 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예요. (분홍)

빨강이가 아버지, 새엄마, 할머니 때문에 집이 짜증 났다면, 분홍이는 부모 간의 불화 때문에 짜증이 난다고 말한다. 빨강이가 주 양육자의 잦은 변화로 양육과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라면, 분홍이의 경우는 주 양육자가 양육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연령 증가에 따라 생활 기반이 가정에서 사회로 확대되지만, 심리사회적 적응 및 발달은 여전히 가족이라는 틀, 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박성연·김미경·도현심, 1999). 그 중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부모의 양육 행동은 자녀의 특정한 애착패턴을 형성시킴으로써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 자녀의 성격 발달, 대인 관계, 적응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김효은, 2006; 백현정, 1999).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 행동은 자녀에게 매우 중요하다. 부모의 양육 행동과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에 관한 국내 여러 연구들에서 부모의 양육 행동이 청소년의 자아개념 혹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과 같은 자기-정의적 영역에서의 발달이나 비행행동 및 일탈행동, 우울, 불안 등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과의 관련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이사라, 2001; 김혜영, 2000; 김희선, 2009 재인용).

그런데 분홍이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분홍이의 부모는 분홍이에게 적절한 양육 행동을 보이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부모들의 잘못된 양육 행동은 분홍이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유형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분홍이뿐만 아니라 가출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부적절한 주 양육자들의 양육 행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분홍이는 침터에 있는 지금도 술 먹고 전화하는 부모 때문에 기분이 엉망이고, 침터 생활조차도 부모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분홍이와 면접을 한 날 분홍이는 침터에서 외출 금지 3일을 받았다. 그 전날 통금시간을 어기고, 과음한 상태에서 새벽에 귀가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전날 과음을 한 이유는 또 이혼하겠다고 전화한 엄마 때문이었다.

빨강과 분홍이가 부모들 간의 불화 혹은 부모 때문에 짜증이 났다면, 연두는 부모와의 불화 때문에 집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했다. 이처럼 가출 청소년들은 가족들과의 불화 혹은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짜증이 나거나 답답하다고 했다.

가출 청소년들의 주 양육책임자들은 양육을 유기하거나 부적절한 양육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양육에 대한 유기와 부적절한 양육 행동은 청소년들에게는 ‘짜증’이라는 복합적 감정으로 드러난다. 청소년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정기적으로 그녀들의 신체적·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심리적 부모’가 필요하다. 그런데 가출 청소년들에게는 ‘부모’는 있지만, 심리적·신체적·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심리적 부모’가 없었다.

거리에서 만났던 청소년들 중 한 명은 연구자에게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그 때도 용서를 해 주는 것이 부모가 아니냐고 물었다. 그녀의 경우, 비행을 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녀일지라도 힘들 때 받아 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라고 믿었지만, 자신의 부모는 자신이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다고 전화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가출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주 작은 보살핌이었다. 그녀들은 부모에게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을 원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주 사소한 행동이나 말로서 밥 먹었는지 확인해 주는 것, 힘들면 왜 힘든지 물어봐 주는 것과 같이 그녀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었다.

중학교 삼학년 때, 겨울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때는 아니, 제가, 진짜 이틀을 가출을 했어요. 이제 막 처음으로 나왔는데, 집에서도 제가 가출 한 줄을 몰랐어요. 이모네 집 가서 잔 줄 알았어요. 다 모르는 상태였는데, 같이 가출한 동생 엄마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경찰에 인계를 해 준 거예요. (검정)

한국 사람이 아니었는데 중국 사람이었는데 집에 있어도 별로 말도 안 하고 있는 등 없는 등하고 같이 살았는데……. (바다)

엄마는 완벽주의자예요. 자기가 완벽해야 돼요. 자기가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걸 꼭 이루어야 하는 그런 사람, 아니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어요. 거기에 정신이 몰두가 돼 있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빠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산을 좋아하시고요. 저도 아빠가 더 좋은 데 막 이렇게 산도 돌아다니고, 친구들 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도자기 만드는 거, 진짜 자연적인 거 좋아하세요.(바람)

가출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관심했으며,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지닐 수 없었다. 또한 그들은 일관된 양육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폭력적이고 상황에 따라 애정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바다의 경우처럼 감정적 교류조차도 없는 무관심한 양육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때 가출했을, 맨 처음 가출했을 때, 할머니나 아빠도… 말리는 사람 없었어요. 그 맨 그냥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침묵) 그때 바로잡아 줬으면 아마 안 나갔을 걸요. (분홍)

분홍이의 경우에는 분홍이가 가출하려고 하는 것을 어떤 가족도 말리지 않았다. 분홍

이는 만약 그때 부모가 자신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었다더라면 자신의 삶이 조금은 변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처럼 가출 청소년의 집이라는 공간은 부모의 무관심과 잦은 불화가 있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무관심과 잦은 불화는 그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최소한의 보호도 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모에 대한 그녀들의 기대와 현실은 그 간극이 너무나 컸다. 다시 말하면, 가출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정기적으로 그녀들의 신체적·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양육자들이 그녀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

## 2. 가출의 유형 : 탈출형 가출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가출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가출 유형들이 있을 수 있다. 청소년들의 가출 유형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분류는 Homer(1973)의 유형화를 꼽을 수 있다. 그는 가출 소녀를 두 유형 ‘탈출형(running from)’과 ‘추구형(running to)’로 분류하였다. 탈출형 가출 소녀는 가족 문제로부터 달아난 가출 소녀이며, 추구형 가출 소녀는 가출을 즐기고 즐거움과 향락을 찾아 나선 가출소녀라고 설명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표 4>과 인터뷰들에 근거할 때, Homer의 분류 중 탈출형에 속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가출이 반복되어 가면서 쾌락과 모험을 추구하기 위해 가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최초 가출의 경우 ‘가정 내의 폭력(violence in the family)<sup>4)</sup>’에 대한 대처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출이 청소년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일탈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채택하는 대처행위였다.

청소년들의 가출 원인에 관심을 가졌던 국내외의 연구자들은, 많은 가출이 가정폭력,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각한 갈등, 빈곤 등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관련되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혔다(서울 YMCA 청소년 쉼터, 1997;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2; Kaufman & Widom, 1999; Yoder et al., 2001; 김지혜, 2005 재인용).

이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삶의 몸짓으로 가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었다. 이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 청소년의 가출이 어떤 경험이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명해 주고 있는 여성학이나 문화연구의 관점이 도움을

4) ‘가정 내의 폭력’은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먼저 ‘가정 내의 폭력’이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 내의 폭력’은 물리적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무시, 방임 등과 같은 정신적인 폭력까지도 의미한다.

준다. 특히 이들 연구는 비행이나 여자 위기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아닌 십대 여성이라는 보다 탈윤리적이고 중립적인 개념을 통해 가출을 단순히 비행이나 위기의 경험이 아닌 십대 여성의 주체성 형성과정으로 이해한다(이효희, 1998; 김은실, 2001; 민가영, 2006). 이들 연구는 가부장적 가족구조, 전통적인 성역할의 부과, 가족 내의 친족 성폭력 등이 여자 청소년들의 가출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십대여성 연구들은 이들의 경험이 단순히 가부장적 가족구조의 영향에 통제되거나 유발되는 수동적이고 타자화된 경험이 아니라 현실과 협상하고 타협하고, 선택하는, 주체적인 과정임을 드러내고 있다(정혜숙 외, 2010 재인용).

위의 연구들에 기초하여 가출 청소년들을 사고해 본다면, 그녀들 또한 새로운 삶을 살기위한 주체적 결정의 하나로 가출을 결정한 것이다.

(때리시면 어떻게 때리시는 건데?) 어... 머리고댕이 잡고 벽에다가 친다거나 국자 갖다가 머리 막 때린다거나 아니면 지팡이 갖다가 몸 전체 때리고 밟고 주먹 날리고... 그랬어요. (보라)

가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보라처럼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었고, 신체적 폭력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경험하고 있었다.

(제일 처음 한 건 언제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제일 처음 가출했을 때 이유 뭔지 기억나요?) 그냥 집 들어가기 싫고....., 그때 부모님이랑 싸웠을 때였어요. (그때 싸우고 나서, 계획적으로 계획을 착착 세워서 나갔는지, 아니면 열 받아서 갑자기 나갔는지.) 열 받아서 갑자기 나갔어요. (소라)

그러나 상습적인 일상적인 폭력은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하나의 기폭제가 생기면 갑자기 우발적으로 첫 가출을 결심하는 경우가 가출 청소년들에게 많았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가출은 계획적인 가출보다는 우발적인 가출이 많았다.

김유숙(2008)은 가정 내에서의 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욕구불만이나 공격적인 감정이 생겨 정신적, 심리적 불균형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가출 청소년들도 사소한 일에 공격적인 감정이나 분노를 쉽게 느끼곤 하였다. 빨강과 검정도 폭발하는 공격성이나 우울감 때문에 생활하기가 무척이나 힘들다고 했다. 이러한 불균형적 감정들은 그녀들이 하나의 기폭제만 생기면 폭발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녀들이 경험했던 폭력 때문인지, 그녀들은 쉽게 불균형적 감정을 형성하고, 이러한 불균형한 감정은 우발적 가출 또는 우발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아니에요. 그래두 진짜 짜증 나서 죽을 뻔했네. (너 혼자 때린 거야 여러 명이 같이 때린 거야?) 여러 명이 같이 때린 거예요. 감금, 폭행. (빨강)

가정 내에서 폭력을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그녀들은 ‘자신의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결여’되어 있었다. 가출 청소년들은 갈등상황에서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가 적었다. 아동기에서부터 ‘가출 청소년들이 경험했던 갈등해결 방식은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 등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들뿐이었다. 즉, 부모와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가출 청소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오로지 ‘공격적 감정’만으로 대응할 뿐이다.

중층적인 문제 상황에서 가출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참거나 집을 나서는 길뿐이다. 이처럼 가출 청소년들은 극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그녀들은 좀 더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의 틀이나 규범은 그녀들의 삶에서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 제 2 절 가족에 대한 양가적 감정 : 사랑과 원망의 대상, 가족

상습적이고 일상적인 폭력과 무관심, 그리고 가족 간의 잦은 불화를 경험하고 있는 가출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다. 즉, 폭력을 당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연구자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면접 중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지 질문을 하면서 면접을 마무리하곤 했다. 그런데 가출 청소년들 몇 명은 성매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어려워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어렵고 민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연구자의 생각과는 매우 달랐다.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도 좋은데... 가출 이야기를 하면 눈물부터 쏟아내요. 울먹울먹 하잖아요. 성관계는 그래도 과정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노랑)

노랑처럼 성매매는 과정을 이야기하면 되지만,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는 눈물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보라의 경우에는 동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만 부모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기 싫어하거나 질문을 무시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가출 청소년들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가족 역동 내에서 발생하는 양가적 감정’ 때문이다. 즉, 가출 청소년들의 내면에는 가족에 대한 연민과 분노가 실타래처럼 모순된 감정으로 얽혀 있었다.

어느 날 면접을 하기 위해 만난 빨강은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면접 시 왜 깁스를 하게 되었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술 먹고 놀다가 넘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후, 다시 빨강을 만났을 때 빨강은 깁스를 한 이유를 말해주었다. 술 먹고 놀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청소년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말싸움 도중 부모님 욕을 해서 선빵<sup>5)</sup>을 날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선빵이 잘못되어서 손뼉에 금이 갔다고 했다. 그런데 빨강은 연구자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부모를 ‘~놈’ ‘~년’이라는 욕으로 설명했다. 즉, 빨강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면서도 누군가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비난을 하면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였던 것이다.

빨강처럼 가출 청소년들의 일부는 가족에 대해 다양한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거리에서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엄마이고 가족이었다. 하지만 다른 마음 한편에서는 원망과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빨강이 말썽을 부리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아빠는 폭력을 휘두르거나 큰소리를 쳐서 위협했다고 한다. 이러한 아버지 때문에 빨강은 집이 더욱 싫어졌다고 한다. 반대로 할머니는 문제가 일어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통을 견디는 생활을 했다. 때문에 빨강에게 할머니는 불쌍하고 불쌍한 존재이다. 이처럼 가족의 역동 속에서 빨강은 가족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양가적 감정은 가출 청소년이 속한 가족 역동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초롱이는 쉼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을 너무도 그리워하고 있었다.

막 엄마랑 뭐였지. 엄마랑 거의 방 같이 안 썼어요. 거의. 저랑 제 동생이랑 쓰고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방 쓰구. 방이 두 개였어요. 따로따로 써가지고. 그래 제가 막 아침에 딱 일어나보면 내가 거의 저랑 동생이 잠버릇이 심해요. 이불 걷어차고

5) 싸움의 기술 중 하나로써, 싸움에서 먼저 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는데 새벽마다 아빠가 와서 덮어주는 경향도 있었어요. 근데 딱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일어나서 엄마가 깨울 때요. 거의 여기 불에다 막 뽀뽀해주면서 깨운 적도 많았는데. [살짝 웃음] 쉽터 들어오고 나서 그런 게 없으니까. (...중략) 막 엄마 그랬었는데. 막 눈 떴을 때 엄마가 딱..... [울음] (초롱)

하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아빠에 대한 원망과 배신이 담겨져 있기도 했다.

(지금은 그래도 아빠가 술 완전히 끊으셨으면 지금은 술 드시고 막 때리거나 막 그럴 일은 없겠네?) 저~ D쉽터 처음으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때리는 거랑 술 먹는 거 줄었어요. 지금은 아예 술을 안 드신대요. (그때 초롱이가 D쉽터로 올 때 그때쯤에 아빠가 아, 그동안 내가 초롱이한테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거야?) [4초간 침묵] 저번에 아빠한테 처음으로 그, 아빠 친구한테 뭐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빠한테 적발된 거예요. 그때 새벽이었는데 자꾸 그 아저씨가 들어와서 막 몸을 더듬길래 너무 싫어서 [상당실 문을 가리키며] 이런 문 있잖아요. 엄마랑, 엄마 아빠 방에 가는 길에 이런 문이 있었어요. 그걸 뭐였지. 힘껏 잡아 땡기고 누르면서 잠그고 그리고 양 옆에 창문을 저런 거 이거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였지. 다 꼼꼼히 확인하고 잤거든요. 아, 그런데 분명히 다 잠그고 잤는데 또 들어와서 몸을 더듬는 거예요. 근데 딱 그때 뭐였지. 저희 아빠가 일하러 갈 시간이어서 잠깐 제 방에 오셨는데 그때 더듬는 걸 딱 본 거예요. 그때 부엌에 불이 켜져 있어서 그 불빛으로 보였나 봐요. 그때 아빠는 모른 척했거든요. 아, 그때 자는 앤데 뭐 어떻게 일어나겠냐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그래서 속으로 그때 깨어있었는데 아, 속으로 아빠가 못 봤나? 그런, 그런 뭐였지. 서운함?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근데 그 다음날 학교 갔다와보니까 동네 큰엄마가 오셔서 그 아저씨가 몸 더듬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말했구나. 아빠가 봤네? 그래가지고 그 큰엄마랑 어~ 아빠랑 큰엄마랑 그 도움을 받아서 몇 번 법원 갔다가 그러고 여기 광주로 오게 되고, 광주에서 또 여기.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였지. 좋았었어요. 어~ 그 일이 있고 난 그때,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아빠가 저번에 술 먹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힘들었냐고, 그때 웬지 울컥거렸어요. 아빠가 그렇게까지 따뜻하게 그런 말을 해준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아빠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아빠가 막 안아주고 그랬어요. (초롱)

빨강이나 초롱이처럼 가족은 양가적 감정의 대상이며, 그녀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깊은 상처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녀들이 집을 나왔지만, 그녀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양가적 감정들이 가정에서 경험했던 위협이나 가해자였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제대로 가출했을 때 집 상황을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빠가요. 알코올이 너무 심해서 그냥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때리고, 그냥 이유를 모르겠는데 때리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외출도 못 하게 하고 그런 생활이 싫었어요. 그래서 가출했고요. 때리는 게 그냥 뺨 때리는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때리고, 애들 앞에서 때리고, 친구 놀러오면 친구 앞에서도 때린 적도 있으니까. 그때는 아빠가 많이 미웠죠. (엄마랑은 어떤 관계였어요. 그때는) 그때는 엄마 아빠 이혼 상태라 아무 연락도 안 됐어요.(그럼 거의 가족관계가 아빠랑 밖에 없네요.) 아빠랑, 할머니랑, 동생들이랑, 저요.(할머니랑 관계는 어떤 편이었어요.) 아빠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불쌍하게 여겼죠.(인생에 할머니도 많은 영향을 미쳤나요?) 네. 조금 미친 것 같아요.(구체적으로 할머니랑 관계가 어떻게 가까웠어요.) 할머니가 막아 줄 때가 있는데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그걸 다 막아 줄 수도 없는 거고 아빠가 할머니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많았지만 할머니가 없었으면 못 버텨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햇살)

햇살처럼 부모에 대한 양가적 감정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다양한 감정으로도 드러난다. 즉, 누구는 밉고, 누구는 특히 보고 싶고 그리운 존재가 된다. 햇살처럼 아빠는 너무 밉지만 할머니는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였다. 물론 할머니 역시 아빠의 폭력으로부터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었던 존재는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할머니는 그 과정에서 나를 지켜 주려고 했던 사람이기에 더욱 소중한 것이다.

집에 대한 양가적 감정은 가출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가족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양가적 감정은 청소년들이 거리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제이자, 작동원리로 작용한다.

맨날 할머니하고 싸우고 하니까 인제 처음에는 그냥, 한 것 같지도 않게 하다가 인제 나중에는 진짜 이제 전문적으로 배워서 하게 되죠. 처음에 진짜 제가 가출했을 때 말해 줄까요? 빈 몸만 들고 가니까 사흘 내내 쫓딱 굶은 거예요. 그래서 올 때는 ‘아, 너무 춥다. 그래서 옷을 갖고 가야겠다. 그래 옷이 최고다. 옷은 갈아입어야지. 속옷 다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요만한 [팔 넓이 정도의 크기를 재현 하며] 쇼핑백, 이 수학여행 갈 때 그 쇼핑백에다가 수건 넣고, 드라이기 넣고, [웃음] 매직기 넣고, 어, 속옷 넣고, 옷 넣고, 진짜 사계절 옷을 다 넣어 가지고 왔어요. 인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너무 무겁다. 돌아다니기 너무 무겁다. 갖고 다니기.’ ㅎㅎㅎ [웃음] (그거를 다 지고 돌아다니겠다고 생각을 해 봐.) 그렇다니깐요. 그 친구랑. 그러다가 ‘아, 그런 거 싹 필요 없구나. 인제 배고프다.’ 이제 다음에 또 나갈 때는 가방에 라면이랑 먹을 거를 다 싸 가지고 갔어요. 옷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느껴 봤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거, 어차피 빨리 먹을 건데 먹었으니까 들어가야겠구나. ㅎㅎㅎ [웃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검정]

물론 가출 청소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에 대한 양가적 감정은 거리에서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작동원리이다. 하지만 원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들이 집으로 돌아올 경우 검정이처럼 반복되는 가출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반복적 가출은 구름이의 이야기처럼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제 3 장

## 익숙해지는 거리

제1절 답답한 집에서 거리로 : 무서운 밤

제2절 거리와 또래

제3절 자유와 물리적 공간의 확장

Women's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제3장 익숙해지는 거리

제2장에서는 가출 청소년들이 최초로 집을 벗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가출 청소년들의 집은 ‘폭력과 무관심’이 공존하는 이중적 타격의 공간이었으며, 그녀들은 아무런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집으로부터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들이 집으로부터 탈출하여 거리로 나왔을 때 그녀들에게 거리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녀들이 거리에 대해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며, 그녀들은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 그리고 어떤 경험들이 그녀들로 하여금 거리에 익숙해지게 만든 것일까? 거리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녀들이 집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3장에서는 집으로부터 탈출한 그녀들의 거리 생활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거리 생활이 이후 그녀들이 성매매를 자의 혹은 타의로 선택하게 되는 상황과 어떤 맥락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제 1 절 답답한 집에서 거리로 : 무서운 밤<sup>6)</sup>

청소년들은 처음 가출과 반복된 가출에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즉, 청소년들은 첫 번째 가출과 반복된 가출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가출 결심 시점’이라고 이야기한다.

6) 이 연구에서 ‘거리’란 주 양육자(보호자)와 함께 거주했던 집 이외의 모든 공간을 거리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처음 했을 때는 내가 가출을 할까 말까……. 원래 처음 하는 게 무섭잖아요. ‘부모님이 화내시면 어쩌지. 알아서 들켜서 맞으면 어쩌지.’ 오만 생각을 다 해요. ‘내가 진짜 가출을 해야 되나.’ 처음 가출할 때는 몇십 번 몇백 번 고민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계속 하게 되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게 돼요.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집에 빨리 안 오냐고 전화 한 통 안 오면 그게 가출이에요.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만큼 달라요. 처음 가출할 때는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생각도 안 하고 바로 가출이에요.(홍이)

홍이의 경우 처음 가출을 결심했을 때는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다’고 한다. 홍이와 마찬가지로 가출 청소년들이 첫 가출에서 가출을 결심하기까지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부모님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심리적 갈등이 가출 전후로 계속된다고 했다. 그러나 심리적 갈등이 있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첫 번째 가출을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가출의 경우에는 우발적이고 단기간으로 끝나는 가출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발적 상황에서도 ‘부모’는 가출의 중요한 원인이자 가출을 할 때 가장 고려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이 가출을 결심할 때, 부모 때문에 심리적 동요를 하는 것에 대해 허쉬의 ‘애착(attachment)’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허쉬에 따르면 애착은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시키는 데 필수적인 기본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애정적 결속 정도를 의미한다. 애착은 부모에 대한 애착, 학교(선생님)에 대한 애착, 친구에 대한 애착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그중에서도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가장 중요하다.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강한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탈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다(Hirschi, 1969; 정혜원, 2009 재인용).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가출 시기에는 청소년들이 ‘부모와 자신들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애착은 그녀들이 가출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청소년들에게 ‘양가적 감정’ 안에서 부모는 애착적 존재인 것이다.

처음에는 무서운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두세 번째는 무서운 생각도 덜 들고 그냥 밖에서 있는 게 즐거웠어요. (소라)

일단 홍이처럼 오만 가지 생각 속에서 우발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가출을 하든지, 또는 혼자서 혹은 여러 명이 가출을 하든지에 관계없이 청소년들은 첫 번째 가출에서 느낀 감정이 ‘무서움’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가출이 상습화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가

출이 무섭다’라는 감정보다는 ‘재미있고 즐겁다’라고 느껴진다.

하이데거는 공포란 안전장치가 풀린 상태에서 자신에게 아직 위험이 닥치지 않았지만, 언제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이해한다. 첫 번째 가출에 대한 무서움은 예측할 수 없는 거리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안전장치의 결여에서 오는 두려움이다. 이러한 무서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먹고 살 수 있는’ 생존 보장 체계의 붕괴, 남성폭력에 대한 무서움 등 다양하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밖에 나가게 되면요. 어떻게 생활하냐면요. 그냥 잘 수 있는 데를 구해요. 그냥 잠은 그런 데서 자고요. 밥 같은 건 몰아서 한번에... 돈이 없으니까. 다 저희가 밥 완전 많이 먹었는데... 여기 와서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 저희가 밖에 있었을 때는 배고프니까 라면 몇 개 먹고 그래요. 그래야 배가 차어요.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요 밥 양이 되게 많이 줄어요. (제때 제때 먹으니까) 다 그때 많이 먹은 이유가 나중에 배고플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더 먹게 돼요. 그래도 집 들어가는 거 진짜 싫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네. (검정)

배고픈 거....., 일단 처음은 배고픈 거고요. (남희)

(가출해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가 있어요.) 돈을 처음에 가지고 나왔는데 가장 힘든 건 돈을 다 써 갈 때쯤에는 불안해요. 어디서 자야 될까, 밥은 어디서 먹고, 나는 먹는 것 빼고, 씻고, 자는 거. 이런 건 딱히 어디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바람)

검정은 거리에서는 돈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밥 같은 것을 몰아서 먹는 폭식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남희는 가출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배고픈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처럼 집으로부터 나와 거리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전까지 그녀들이 지니고 있었던 생존 보장 체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먹고 살 수 있는’ 생존 보장 체계의 붕괴는 거리 생활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이며 불안이고 공포인 것이다.

혼자 할 때는 솔직히 좀 무서워요. 밤이 되면 친구들은 들어가야 하고 나는 나와 있어야 하는데 마땅히 잘 때가 없으면 밤이고 여자니까 무섭고, 놀이터에 혼자 앉아 있기도 그렇고, 친구들하고 여럿이 있을 때는 무섭지는 않아요. 재미있고 가출해서 살만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바람)

그러나 가출 청소년들은 먹는 것보다 ‘밤에 자는 것’이 더 무섭다고 했다. 햇살과 바람

그리고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밤이 무섭다’고 했다. 바람은 ‘밤이 되면 여자니까 무섭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여자니까 왜 밤이 무서운가? 여성범죄학자들에 의하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종속적 위치로 인해 여성은 남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쉬우며, 여성은 남성의 폭력, 특히 강간에 대해 두려움을 갖도록 길러진다고 한다(Madriz, 1997). 마드리즈(1997)는 남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이 남성보다 무력하고 약하며 쉬운 공격 대상이 된다는 이미지를 영속화할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다는 관념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여성범죄학자들의 논의에 근거하여 가정해 보면, 여자니까 밤이 무서운 이유는 낯선 남성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단 가출을 처음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애들이 노상 까고 그러잖아요. 저는 안정적인 자리에서 잠을 자야 잠이 오는 편이어서 밖에서 노상하지는 않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친구 집이나 아니면 낮에 다른 데 가서 자고, 밤엔 어디가 있는 편이었어요.(햇살)

햇살은 안정적인 자리에서 잠을 자야 잠이 오는 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밤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햇살이 이야기하는 ‘안정적인 자리’란 낯선 남성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친구 집과 같은 공간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처럼 첫 번째 가출의 경우,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느끼는 감정 중 가장 큰 감정은 ‘공포’, ‘무서움’이며, 그 근처에는 낯선 남성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두려움은 이후 거리에서 누구와 함께해야 한다는 특히 여성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남성과 같이 다니는 것이 좋다는 의식을 구성하기도 한다.

## 제 2 절 거리와 또래

거리에 첫발을 디딘 가출 청소년들에게 거리는 ‘무서움’이다. 여기에 밤이 되면 ‘낯선 남성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구름이와 하늘이는 이야기한다. 이러한 ‘무서움’은 그녀들에게 새로운 위기이며, 위기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양가적 감정’이 작동되고, 일부 가출 청소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거리의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청소년들은 누구이며, 이

들은 어떻게 거리의 무서움을 극복하고 거리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 1. 거리의 안전장치, 또래

가출 청소년들은 집으로부터 탈출하여(running from) 거리의 공포를 견디며 거리에 익숙해진다. 가출 청소년들은 첫 번째 가출을 통해, 거리의 공포를 인식하게 된다. 거리에 첫 발을 디딘 청소년들에게 거리에서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는 ‘밤에 자는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라면 밖에서 자는 것도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전장치라고 가출 청소년들은 생각한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들은 ‘밤에 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가출을 시도하기도 하고, 혹은 거리에서 다른 또래를 만나기도 한다.

물론 거리의 공포는 가출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기제가 될 수 있지만, 거리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람’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만든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출을 기획할 때, 또래 친구들과 함께 집을 나오도록 하거나 혼자 나올 경우에도 다른 또래 친구들을 찾아나서게 하는 기제가 된다.

처음 했을 때는 저 혼자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친구가 따라 붙게 돼 있어요. 또 혼자 할 때가 있고, (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원래 친구였어요? 가출해서 만난 친구인가요?) 원래 친구도 있고, 가출해서 만난 친구도 있죠. (가출해서 만난 친구하고 원래 친구하고 달라요? 약간 다른가요?) (구름)

그러나 혼자 가출했을 경우에만 다른 또래 친구들을 찾아나서는 것은 아니다. 무리지어 나온 경우에도 다른 또래 친구들과 만난다. 구름이 말처럼 거리로 나가면 친구가 따라 붙게 돼 있다.

이렇게 무리를 형성하게 되면, 하늘이나 바람의 이야기처럼 밤에 자는 것이 무섭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가출해서도 살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가출에 익숙해 졌다는 거. (혼자 가출했을 때랑 여러 명 가출했을 때랑 차이가 있어요?) 혼자 가출 했을 때는 외롭고요. 여러 명이 가출 했을 때는 밖에서 자는 것도 괜찮고요. (하늘)

혼자 할 때는 솔직히 좀 무서워요. 밤이 되면 친구들은 들어가야 하고, 나는 나와 있어야 하는데 마땅히 잘 데가 없으면 밤이고 여자이니까 무섭고, 놀이터에 혼자 앉아서 있기도 그랬고. 친구들과하고 여럿이 있을 때는 무섭지는 않아요. 재미있고 가출해서 살 만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바람)

하지만 밤에 자는 것이 무섭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서움의 근원까지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라지지 않은 무서움의 근원은 만성적으로 유지되어 가출 청소년의 심연에 내재된다. 이러한 상태가 불안이다.

‘밤에 대한 무서움’ 이외에도 가출 청소년들에게는 거리의 또 다른 무서움이 있다. 그것은 바로 ‘또래들로부터의 폭력’, ‘싸움’이다.

술 먹고 나가는데 툭 건드리는 거예요. 참으려고 했는데…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빵 날리고 싸웠어요. (빨강)

거리에서는 싸울 수 있는 소재들이 다양하다. 특히 술에 취했을 때는 더욱 빈도가 높아진다. 또한 사소한 시비도 많다. 이럴 때 함께 다니는 또래가 없다면, 그녀들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거리에서 혼자 다닌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단지 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또래 무리의 갈취 대상이나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무서움은 또 다른 또래에 대한 결속으로 드러난다. 추주희(2009)에 의하면 가출한 청소년 무리끼리의 싸움은 같은 집단에 속한 가출 청소년들을 더욱 결속시키거나 서로를 도와주는 형태로 움직이게 하며,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기에 서로가 더욱 친밀해지게 한다. 싸움의 과정에서 일정한 교류와 무리의 재편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싸움’을 통해 가출 청소년들은 서로 친해지기도 하지만, 또래가 없을 경우 일방적인 피해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거리에서는 ‘또래’가 중요하다.

한편 가출 청소년들은 언제든지 함께 다니던 또래와 헤어져 혼자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이처럼 거리에서 혼자가 된다면 ‘밤의 무서움’도, ‘또래에 의한 폭력’도 극복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래’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출 청소년들은 ‘또래’와 함께하면서도 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 자신을 위한 안전장치가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이 그녀들의 심연에 존재한다. 이러한 불안은 가출 청소년들의 일상에 집요하게 점착되어 그녀들의 거리 생활과 함께한다.

래저리스에 의하면 “공포(무서움)는 예리하고 강렬하지만 지속시간이 짧은 감정이다. 그리고 위협이 지나가면 사라진다. 반면 불안은 공황(panic)으로 상승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 강도가 낮거나 보통이다. 대신 괴로운 상태가 만성적으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계속 되풀이된다. 불안은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실존적인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집요하게 물러나지 않는 근심에 더 가깝다(Lazarus & Lazarus, 1997: 78~9)고 한다.

거리에서 느끼는 ‘공포와 무서움’과 ‘불안’의 근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래이다. 때문에 가출 청소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또래를 만나고, 이러한 만남을 통해 거리의 또래 관계를 확장한다.

### 1) 또래 관계의 확장 : 유사 집단의 형성

회진이는 거리에서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 그녀들은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또래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귈다. 그녀들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방법은 청소년들의 ‘적극성’에 따라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회진이처럼 놀다가 자연스럽게 또래를 만나게 되는 경우와 노랑처럼 본인이 적극적으로 또래를 찾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놀다가 친구의 친구 소개로 만나요. (회진)

(새롭게 만난 애들은 없어?) 있어요. (누군데?) 일하면서 만난 애, 네 명... 다섯 명.  
(빨강)

(가출한 다음에 새롭게 사귄 친구들 있었어요?) 있어요. (주로 어떤 애들이었어요?) 주로 한 지역에서 잘나간다? 뭐 그런 애들. 아니면 대부분 일시보호소에서 친해지는 것 같아요. 친구 통해서. (소개받고?) 네. [ ... 중략 ] 제가 가출해서 수원에 있는 일시보호소를 갔거든요. 우연히 어떤 언니랑 같이 나오게 됐어요. 그 언니를 통해 그 친구들을 알게 됐어요. 가출해서는 거의 매일 같이 다녔어요. (바다)

연두, 회진처럼 친구 혹은 선·후배의 소개로 만나기도 하고, 거리 혹은 놀이 공간에서 오다가다 만나기도 한다. 또는 빨강처럼 보도방에서 일하다가 만나기도 한다. 혹은 바다처럼 쉼터, 일시보호소와 같은 보호시설에서 만나기도 한다.

이러한 만남들의 확장은 그녀들에게 또 하나의 자산일 수 있다. 누구를 얼마나 알고 있는냐가 그녀들에게 중요한 자산이다. 거리에는 다양한 위험들이 존재한다. 그중에서

도 싸움은 거리에서 일상과도 같다. 하지만 누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싸움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큰 싸움을 사소하게 바꿀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여섯 명? 어떻게 아는 친구예요?) 세 명은 아는 사이인데 세 명은 몰랐어요. (세 명은 어떻게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학교 아는 선배의 아는 사람들이요. (그 친구들하고 처음에 어떻게 같이 다니게 됐어요?)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언니 이름 말하니까 안다고 (연두)

연두처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경우, 통성명을 하고 서로가 아는 사람들을 비교함으로써 서로가 유사한 그룹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이러한 확인과정은 또 다른 친분으로 형성되고 새로운 무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일단 가출하면 개고생이고, 가출하면 안 좋은 일 계속 일어나요. (어떤 안 좋은 일이에요?) 길거리에서 시비 붙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가는데 폭력이나 집 앞 골목 앵벌이로. (연두)

이러한 새로운 무리는 거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준다. 연두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리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앵벌이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들이 또래와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래관계의 확장을 통해 가출 청소년들은 한정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망은 연두가 이야기한 것처럼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익이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실질적 이익 중의 하나가 밤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게 하며, 거리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가출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그녀들은 또래들을 만나고 그녀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생활을 한다. 그리고 가출이 반복될수록 새롭게 만나는 사람은 늘어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방법도 다양해진다.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 중 하나는 부모와의 의존관계에서 또래와의 의존관계로 변화하는 분화 과정이다. 이러한 분화 과정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적 세계가 확장된다. 그런데 이 연구에 참여했던 가출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신과 다른 다양한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유사한 존재들을 찾으면서 분화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또래와의 관계가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그녀들이 만날 수 있는 또래는 한정적이며 유사한 존재들이다.



이러한 과정은 노랑처럼 적극적으로 또래를 찾을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노랑은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통해 또래를 찾았다. ‘가출한 사람들 모여라’라는 인터넷 채팅방을 개설한 후 또래를 적극적으로 찾았다. 이처럼 가출이라는 확실한 키워드를 통해 자신과 유사한 조건의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는 매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출 일행을 구성하기도 하고 가출팸<sup>7)</sup>을 구성하기도 한다.

외롭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쪽에서 채팅해 알게 된 언니가 있는데요. (그 언니랑 같이 다녔구나. 언니는 몇 살이에요? 노랑보다 몇 살 많아?) 그때는 두 살 많았어요. (...중략) (그 언니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제가 채팅방에서 “가출한 사람들 모여라.” 하고 방을 만들었어요. 여자하고 남자가 다 온 거예요. 여자가 한 명이 온 거예요. 언니가. (노랑)

가출 청소년들은 적극적으로 또래들을 만나든, 아니면 자연스럽게 또래를 만나든 관계없이 또래와의 유사성을 통해 만남을 시작한다. 이러한 유사성은 가출이라는 조건일 수도 있고, 그들의 행동, 태도일 수도 있다.

## 2) 이해에 기반한 공감과 친밀감

가출 청소년들은 왜 유사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는가? 그녀들은 유사한 또래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해받기를 원했다. 그녀들은 집에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보호받거나 이해받은 적이 없다. 그녀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녀들을 이해해 준 성인은 없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가출 청소년들에게 집은 무관심의 공간이었고 가족 누구도 그녀들을 이해하거나 보호해 주고 있지 않았다.

물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은 그녀들을 이해했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의 방법에 간극이 큰 것인지, 혹은 실제로 그들을 이해했다고 인식했을 뿐 그것이 표현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으나 정작 가출 청소년들은 그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 주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였다.

동생인데도 때리는 거 좀 심했어요. 그냥 툭툭 치는 게 아니고, “뭐 좀 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 잘못하면 머리 잡아당기고 하니까 저는 뭐……. 처음에는 내가 잘못

---

7) 가출팸이란 가출패밀리의 약자로 청소년이 가출한 이후 가출 관련 카페나 실시간 채팅을 통해 3~5명의 일행(은어로는 이랑)을 구해 함께 원룸이나 고시원, 모텔 등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서 그러는구나, 생각했는데 갈수록 갈수록 심해지니까 중학교까지 계속 그랬어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해도 엄마는 아빠랑 같이 장사 나가고…….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노랑)

노랑처럼 사촌언니의 폭력을 부모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부모는 그녀를 이해해 주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출 청소년들은 더욱 더 유사한 조건의 또래들에 의존하게 되고, 그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그녀들의 상처는 거리 생활에서 그대로 구현되고 투영되어 나타난다.

불쌍하죠… 불쌍해요. 뭐 때문에 집을 나왔냐 이런 거보다는, 부모님이 뭘 짓을 했길래, 너한테 뭘 짓을 했길래 네가 집을 뛰쳐나오겠냐. 위로해줘요. 솔직히 그게 답이에요. 뭐 때문에 나왔냐 그러면… 그런 거 말하는 거 꺼려하는 애들도 있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해지기도 하고. (솜)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애들한테 의지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도, 이거 그만 짤라요. (분홍)

분홍이의 말처럼 가출 또래들은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가출을 했을까?”라는 근본적인 위로를 건네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구가 된다고 한다. 그녀들만이 자신들의 가출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가출한 또래에 대한 연민은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연민이며 감정이입이다. 이러한 감정이입은 가출한 또래들끼리 밀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서로를 공감하게 한다.

다시 말해 가출 청소년들에게는 거리에서 만난 또래들이 서로의 삶과 고민을 공감할 수 있는 존재이다.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경험과 감정들은 그녀들에게 친밀한 감정적 교감을 느끼게 해 준다.

공감되고, 도움이 되고, 가출 안 해 본 애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가출해 본 애들은 어쨌든 집이 싫어서 나온 애들이니까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통하는 게. (노랑)

노랑은 가출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서 또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출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또래로부터 이해받기를 원하고, 서로를 이해해 주고 있었다. 서로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둔 친밀감과 공감은 그녀들이 또래에 몰입하게 하는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가출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몰입을 통해 거리에서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거리에서 만난 새로운 또래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족/학교 등의 전통적인 청소년 보호 체계가 아닌, 자신들 나이 또래, 그리고 비슷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망을 통해 그녀들은 청소년들이 느끼는 단순한 정서적 안정 이외에도 자신들에 대한 이해를 넘어선 감정적인 의지(依支), 현실적 의지(依支)까지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감정적 의지와 현실적 의지는 또래에게 의존하거나 집착하게 만드는 기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펍에서 수원을 가서, 수원에서 그 언니를 번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땐 아무 것도 모르죠. 그냥 집 근처에서 노가리 까고 그랬는데, 친구 집에서 자고, 그때 처음으로 번개<sup>8)</sup>라는 걸 해봤어요. (분홍)

분홍이는 거리에서 만난 언니와 함께 거리 생활을 시작했고, 그 언니에게 감정적 의지와 현실적 의지를 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현실적 의지는 거리 생활의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분홍이는 언니를 통해 처음으로 술을 배우고, 번개를 했으며, 조건을 함께 했다. 이러한 현실적 의지를 통해 분홍이는 거리 생활에 익숙해져 갔으며, 감정적으로 그 언니와 밀착되어 갔다.

가출 청소년들은 새로운 관계망을 통해 감정적 의지와 현실적 의지를 함께 하고 있었다. 이러한 감정적 의지는 가용성(availability; 내가 원할 때 옆에 존재하는가)이라는 현실적 의지로 외현된다. 이러한 가용성은 친밀함 혹은 감정적 의지의 또 다른 지표이기도 하다.

잘 도와주구, 같이 많이 놀구, 고민도 많이 털어주구 도와주는... (회진)

회진에게 친구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했을 때 홍이는 잘 도와주고, 같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친구라고 했다.

그녀들에게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녀들에게 가용성은 가

---

8) 서로 모르는 남성과 여성이 인터넷을 통해 놀기 위해 만나는 만남을 지칭한다. 번개의 목적은 데이트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서로의 외모가 중요하다. 번개를 하면 남성들이 밥값, 술값, 노래방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잠 잘곳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김연주, 2010).

족들과의 단절 속에서 느꼈던 감정,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을 이해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전이시킨다. 부모조차도 그녀들이 필요할 때 그녀들 곁에 없었다. 그런데 또래들은 언제나 그녀들의 주변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적 투영은 또래들에게 서로를 의존하게 하는 기제가 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감정적 밀착 관계를 순간적으로 형성하기도 한다.

웃도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아요. 딱 하나면 충분해요. 왜냐면 그 날 입고 갈 옷만 있으면 돼요. 근데 애들한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고마운 것도 있었고, 왜냐면 내 옆에 있어준 자체만으로도 나는 고마운 거예요. 같이 밥 먹고, 뭐라도 하나 더 사주고 싶고, 음~~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하양이)

하양의 경우 조건만남과 노래방에서 일을 해서 얻은 돈을 거의 대부분 또래 친구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한다. 그냥 곁에 있어 준 친구들이 고맙고, 뭐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녀들에게 또래에 대한 감정은 이처럼 단순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가출 청소년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감정적 의지와 현실적 의지는 다양한 맥락 안에서 판단되는 감정이 아니었다. 단지 순간적인 판단으로 시작되고 지속되었다.

(친구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뭐 해요?) 돈 뜯거나, 그냥 돌아다니는데....., (뜯으면 뜯겨요?) 네. (어떻게?) 그냥 불러 가지고, 얼마 있냐고 물어보면, 구라치거든요. 그럼 일단 다 뒤져요. 뒤지면 돈 많이 나올 때 있고, 그 정도로 그냥 가는 거죠. (같이 돌아다니는 친구들은 다 여자예요? 아니면 여자 남자 섞였어요?) 여자 남자 섞일 때도 있고, 여자끼리만 했을 때도 있고, (그럼 여자애를 뒤질 때도 있고, 남자애를 뒤질 때도 있네요?) 네. (그럼 반응이 좀 달라요? 여자애랑 남자애랑?) 여자애는 울면서 뭐 구라치는 게 똑같아요. 학원비 내야 한다고 그러고, 남자애들은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던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취 봐.” 그러고 주면 갖고 가는 거예요. (때리지는 않고?) 뭐하러 때려요. 돈만 받으면 되지. (구름)

집 나가면 일단 친구 집에 얹혀산단 말이에요. 그 친구 집에서 사는 것도 한두 번인데, 친구들이랑 가끔씩 노상 깐단 말이에요 (... 중략) 일단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감는 거죠. (뭘 감아?) 아리랑 치고, 옷가게 들어가 옷 감고... (옷을 훔친다는 뜻인가요?) 네. (운희)

가출 청소년들이 또래와 감정적으로 밀착되고, 현실적으로 함께 거리 생활을 하게 되

면서 그녀들 내부에서 그들 나름의 거리의 윤리가 형성된다. 바다처럼 나쁜 일인 줄 알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시비를 걸면서 자신들의 강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공격적 행위가 그녀들을 무리 안에서는 존중받게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출 청소년들은 과격한 행동을 배우기도 하고, 폭력을 생활 속의 한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처럼 가출 청소년들에게 또래 무리는 거리 생활의 가치를 학습시켜 주는 멘토인 것이다.

요컨대 거리 생활은 ‘시비 걸기’, ‘싸움’ 등을 그들의 또래 안에서는 자연스런 행동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웃기고 재미있기까지 하다고 가출 청소년들은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가출 청소년들은 위법에 대한 긍정적 가치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시비 걸기’, ‘앵벌이’ 등은 그녀들의 무리 안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이다.

## 2. 아는 또래 : 임시적 관계

거리에서 만난 또래와 함께하면서, 가출 청소년들은 거리의 또래들을 자연스럽게 친구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가출 전의 친구들과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가출 전에는 착한 아이들이 많은데 가출 후에는 안 좋은 질 나쁜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요.(친구가 생각하는 질 나쁜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술 마시고, 폭행하고... (연두)

(개네들하고 원래 알았던 아이들하고 달라?) 싸가지가 없어요. (빨강)

성격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가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두운 것 같아요. (많이 어둡다?) 네. (또 다른 점은?) 더 논다는 점... 날라리. (...중략) 질이 나빠져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신다던가, 아니면 담배를 많이 핀다던가, 뽕뜯기를 많이 한다던가, 성매매를 많이 한다던가. (하늘)

그러나 가출 청소년들은 만난 또래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대체로 거리에서 만난 또래들을 위의 면접 내용처럼 ‘질이 나쁘다’, ‘어둡다’, ‘싸가지가 없다’라고 평가한다.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가출 청소년들은 거리에서 만난 또래들이 그녀들보다 거리 생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이 나쁘고, 억세고,

날라리라고 말한다.

가출하고 나서 만~난 친구들은 더 까졌다고 해야 하나... 저보다 나쁜 걸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어! 나는 이 정도까지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나보다 한 단계 업이구나.' (바람)

또한 거리의 또래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도덕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거리의 또래가 제공하는 정보를 습득하고 그와 똑같이 행동한다면 자신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출 청소년들은 거리의 또래를 '아는 친구'와 '친한 친구'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애들도 제가 원래 만났던 애들보다 바깥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억세고 텃세도 많이 부리고, 그 때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정보를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 때 기억에서는 솔직히 쉼터에 들어오면서 쉼터에 대한 그런 좋은 생각은 안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는 단기쉼터라, 그냥 들어오고 나가도 안 잡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애들이 많으니까 막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 (하양이)

가출 청소년들은 또래가 거리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 또래가 나쁜 사람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가출 청소년들이 그 또래와 현재는 함께 생활을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들과 결별할 수 있다는 전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즉, 가출 청소년들은 언제든지 그 무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가출 청소년들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또래들을 '아는 친구'라고 소개했다.

그러므로 가출 청소년들에게 거리에서 만난 또래는 언제든지 사이가 틀어지거나 상황이 바뀌어서 헤어질지 모르는 '임시적 관계이며, 아는 친구'이다.

처음 했을 때는 저 혼자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친구가 따라붙게 돼 있어요. 또 혼자 할 때가 있고. (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원래 친구였어요? 가출해서 만난 친구인가요?) 원래 친구도 있고, 가출해서 만난 친구도 있죠. (가출해서 만난 친구하고 원래 친구하고 달라요? 약간 다른가요?) 원래 친구는... 원래 친구가 편하죠. 가출해서 만난 친구는 솔직히 좀 덜 믿죠. 같이 뺑을 뜯었는데 돈이 오만 원이 생겼어요. 원래 친구는 그 오만 원 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출해서 만난 친구는 믿음이 덜 가잖아요. 애가 돈을 들고

될 수도 있고, 또 하여튼 그런 게 예민한 것 같아요. (구름)

가출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새롭게 만난 또래가 모두 친한 친구는 아니다. 즉, 가출 청소년들은 또래와 함께 다닐 때는 서로 감정도 이해하고, 공감도 가고 재미있는 일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또래에게 친밀감도 생기지만 구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함께 의논을 하거나 속내를 이야기할 만큼 믿음이 있지는 않았다.

가출 청소년들은 ‘친한 친구’의 조건으로 ‘믿음’을 꼽았다. 일단 ‘믿음’이 형성된다면, 아는 친구도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형성할 수 있는 ‘지속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리에서 일시적으로 만난 또래들과 긴 시간을 함께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출 청소년이 거리에서 친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쉽지 않다.

거리에서 만난 또래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가출 청소년의 문제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바로 그것은 ‘갈등의 문제’인데, 가출 청소년들은 또래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체득하지 못하였다. 즉, 가출 청소년의 가정에서는 갈등을 자연스럽게 해결한 적이 없다. 갈등 상황에서 언제나 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경험이 있고, 이러한 극단적인 폭력의 경험은 그녀들을 분노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때문에 가출 청소년들은 집단에서 갈등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기보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조건 참거나 폭력적으로 분출하는 것이다.

그 언니하고 대판 싸우고 나와 가지고, 제가 그 언니한테 대드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언니면 아 그냥 언니구나 말 들어야겠구나. 이런 성격인데,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성질을 냈어요. 그래 갖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분홍)

분홍이는 쉼터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해 주는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다. 하지만 이러한 온순함은 갈등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무조건 참고 마는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다른 한편 분홍이는 매우 폭력적이기도 하다. 빨강을 걸레라고 욕하던 후배를 빨강과 함께 때리기도 했고, 아는 언니와 싸워서 함께 지내던 달방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갈등의 해결 방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지 못하였고, 일상적인 폭력에서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그녀에게 집단에서 지속적인 인간관계는 힘들었다.

클래스(Claes, 1992)는 12~18세 청소년 349명을 대상으로 친구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나이 든 청소년들의 반 정도가 최소한 3년 이상 가장 친한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은정(2009)의 연구에서도 한국 청소년들은 친한 친구들과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또래에 대해 매우 의존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존성은 가용성에 근거한 의존성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청소년들과 달리 가출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가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 3. 집과 멀어지기, 그리고 또래

청소년의 첫 번째 가출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는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부모를 고려하면서 가출을 한다는 것이다.

(가출해서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부모님. (보고 싶었던 이유 있어요?) 그냥 힘들고 하니까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흥이)

부모를 고려하여 가출을 기획한다는 것은 집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청소년의 첫 번째 가출은 반복적인 가출에 비해 단기간으로 끝났고, 거리 생활이 힘들면 자발적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혹은 집에서 찾았을 때 순순히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다. 흥이의 경우도 첫 번째 가출에서 생활이 힘들어지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택하였다. 그러나 가출이 반복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경우들이 생겨난다.

엄청 놀랐어요? 저희 엄마가. (어떤 부분들이 놀란 것 같아요?) 그냥 나가니까 엄마가 굉장히. [...중략] (놀라셨구나. 첫 번째 가출했을 때랑 두 번째 세 번째 가출했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건데 어떤 차이가 있던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나갔어요. (첫 번째는 우발적으로 나갔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계획적으로?) 네. (어디서 잘 건지, 돈은 얼마나 가지고 나갈 건지, 며칠이나 나갈 건지 계획을 하고 나갔구나. 그게 큰 차이가 있구나.) 네. (바람)

처음에는 걱정하다가 두세 번째는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화냈다. 그랬을 거예요. (나무)

집에 빨리 오라고 연락도 오고 [...중략] (맨 처음 가출했을 때랑 두 번 세 번 가출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가출에 익숙해졌다는 거. (하늘)



가출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가장 커다란 변화는 청소년들이 바람처럼 계획적으로 가출한다는 것과 주변의 반응이 변해간다는 것이다. 나무의 경우처럼 부모가 처음에는 걱정을 하다가 가출이 길어지면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첫 가출부터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시적인 반응일 뿐이고, 결국은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그녀들에게 더욱 무관심해져 간다. 이제는 거리 생활이 힘들어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들이 생겨난다.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 번호를 모르니까, 전화번호 모르니까, 경찰서에 전화를 했죠. 아, 내가 가출을 했는데 갈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인천하모니 쉼터? 거길 갔거든요. 거기에서 위기 교육을 갔어요. (분홍)

분홍이가 함께 사는 언니와 싸우고 거리로 다시 나왔을 때 그녀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경찰서였다. 가출이 반복되면서 청소년들은 거리에 익숙해진다. 청소년들이 거리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부모도 ‘거리에 익숙해진’ 자녀의 상황에 익숙해져 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집과 가출 청소년들은 멀어져 간다.

(그러면 가출했을 때 얼마 동안 지냈어요? 처음 가출했을 때.) 일주일 정도. (처음 가출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걱정하셨죠. 걱정하고 찾으러 다니셨대요. (처음 가출했을 때랑 두세 번 가출했을 때랑 차이가 있어요?) 네. 처음 가출했을 때는 다 연락해서 찾다가 반복해서 가출하니까 이제는 안 찾아요. (연두)

분홍이만 집과 멀어져가는 것은 아니었다. 가출의 장기화는 부모 혹은 가족으로부터 청소년들이 단절당하는 계기가 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이 물리적으로 집을 나오거나 정서적으로 부모 혹은 가족과 단절했다면, 이제는 부모 혹은 가족으로부터 단절당하기 시작한다. 연두처럼 가족이 이제는 그녀들을 찾지도 않는 상태가 된다. 혹은 가출 청소년이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또한 빨강의 경우처럼 할머니가 빨강을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가출 청소년들이 거리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한편으로 또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출 청소년들은 또래와 함께라면 거리도 살 만한 공간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그리고 거리에서 살기 위해서는 또래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경험을 통해 알게 되고 이러한 인식은 또래에 대한 결속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또래에 대한 결속은 서서히 ‘집과 정서적으로도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

가출 청소년들이 집을 나온 행위가 ‘집과의 물리적 단절’을 이룬 것이라면, ‘집과의 정서적 단절’은 거리 또래와의 감정적 결합에서 이루어진다. ‘집과 정서적으로 멀어지는 과정’은 ‘가출 청소년들이 또래들과 감정적으로 결합’하는 것과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또래와의 감정적 결합이 집과의 정서적 단절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제 집과의 정서적 단절이 크면 클수록 또래와의 감정적 결합이나 의존도 커간다.

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출 청소년들의 또래에 대한 의존은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현실적인 의존으로 진행된다. 거리에서 그녀들과 함께 해 주는 사람은 오직 또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래는 그녀들을 이해해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들이 힘든 시기에 함께 있어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녀들을 위해서라면 혹은 그녀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 제 3 절 자유와 물리적 공간의 확장

### 1. 근거지와 자유

가출 청소년들에게 또래는 매우 중요하다. 또래는 거리 생활의 안내자이자 거리 생활의 폭력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는 안전장치이다. 거리에서 가출 청소년들이 또래들과 함께 무엇을 하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가출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노랑이 이야기한 것처럼 ‘싸돌아다니기’와 ‘서성거리기’이다.

그냥 싸돌아다녀요. (노랑)

청소년들이 가출 이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방법에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와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 전철 등을 이용했고, ‘뺑차’라고 하는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첫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간만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분홍이처럼 가출 청소년들은 한 지역에서 걷다가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다시 서성거리는 것을 계속 반복했다.

하도 다닐 데가 없으니까, 계속 왔다갔다 그랬죠. 수도권에 있는, 아니, 그 지하철 노선표 있잖아요. 거기를 다 돌아다녔어요. 건대입구도 가고 홍대도 가고... 다 돌아다녔어요. (분홍)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동에는 늘 근거지가 있고, 근거지를 중심으로 이동했다가 돌아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강으로 돌아오듯이 가출 청소년들도 돌아다니다가 항상 일정한 지역으로 돌아왔다. 거리에서도 그녀들만의 구역이 존재하고 있었다.

애들 학교 갔을 때는 막 돌아다니다가 친구들 학교 끝날 시간이다 그러면 먼 데 갔다 오죠. 다시 동네로. (바람)

(왜..... 노랑진을 선택한 이유는 있는 거야?) 아니요. 그냥 끌리는 곳이 노랑진이었어요. (어렸을 때 거기서 잘 놀았나?) 아니요. 엄마랑 장사한 곳이 떠올랐어요. 대방도 있었는데..... 처음에 버스에서 내렸는데 노랑진인 거예요. 버스에서 내리는 족족 노랑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주 목적지가 된 거예요. (가출 이후에 노랑의 집과 같은 공간이네.) (노랑)

그리고 분홍이처럼 자신들이 주로 생활했던 공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주로 어느 동네에서 놀았었던 거야?) 저요? 그때 나갔을 때요? (가출한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을 때?) 신림. 낙성대. (신림 어디?) 시장 쪽. 6동인가, 4동인가? 아무튼 거기. 그 근처에 애들 몰려 있으니까. (분홍)

그녀들의 근거지는 자신을 재워 줄 수 있는 공간이다. 자신을 재워 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모텔이나 놀이터 혹은 연립주택의 지하 등과 같이 진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다. 혹은 노랑처럼 조건만남 상대방을 만나는 장소이며 조건만남을 구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 바람처럼 자신이 익숙한 동네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출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재워 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진짜 의미는 자신들의 생활을 조직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거기 편의점 보이죠? 저기는 민중 맨날 달라고 해요. (빨강)

즉, 가출 청소년들의 근거지는 어느 가게에서 담배와 술을 살 수 있고, 돈이 없을 때

잘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인지 등등, 거리의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공간이다.

전철 타면 멀리도 갈 수 있잖아요. 인천도 갈 수 있고, 인천 내려서 구경하다가 다시  
가자 그러면 가거나 아니면 여기 놀이터 좋다 그러면 거기 앉아서 얘기하고. (바람)

가출 청소년들은 이렇게 서성거리거나 돌아다니기를 하다 근거지로 돌아왔다. 이러한  
근거지는 PC방, 놀이터 혹은 모텔일 수도 있다. 이 중에서도 중간 거점으로는 놀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가출 청소년들은 서성거리거나 돌아다니기를 하다가 심심하면  
놀이터를 중심으로 쉬어가곤 하였다.

둘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길거리에서 가출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행  
위는 걷거나 서성거리기였다. 그녀들은 이렇게 서성거리다가 힘들면 놀이터, 공원 등  
에서 쉬는다고 한다.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멀리 이동하지 않더라도, 놀이터 혹은 공원은 그  
녀들에게 거점일 수도 있고 근거지일 수도 있었다.

(길거리에 앉아 있기도 해요?) 네. (앉아서 주로 뭐 하지?) 담배 피워요. (보통 앉아서  
오래 있고 그래요?) 네. 오래 있어요. (얼마 정도까지 있어 봤어요?) 4시간요. (하늘)

잘 데 없으면 그냥 돌아다니고 있다가 벤치 앉아서 조금씩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중략) (벤치에 그냥 앉아 있으면 지루하잖아?) 그럼 막 주변을 둘러봐요. (초롱)

중간 거점이자 근거지인 놀이터에서 가출 청소년들은 담배를 피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가출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놀이터 (그럼 그 놀이터에서 뭐  
하고 놀아요?) 앉아서 계속 이야기하고 담배 피우고, 그런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람)

(놀이터에서?) 네 (그때 술 먹었어?) 조금……. (파랑)

요컨대 가출 청소년에게는 거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보들이 존재하는 근거지가 매  
우 중요했다. 그녀들은 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자신들  
의 생활 방식을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그녀들은 서성거리기도 하고 돌  
아다니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일탈을 하기도 했다.

네. 가출하면 남자애들 섞여서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저희는 같이 다녔거든요. 여자들이 “아~ 제가 치고 갔어. 제가 때렸어.” 그러면 남자들이 잡아가지고 때리고 싸우고 그러면 웃기고 재미있어요. (바다)

그리고 바다의 이야기처럼 시비 걸고, 싸우고, 앵벌이하고 뺨뺨는 일들이 재미있는 일들이었다. 거리에서의 일탈은 그녀들에게 더 이상 일탈이 아니라 그녀들의 또래 문화일 뿐이었다.

(아까 그러면 보도는 연수동 쪽이었고, 대행<sup>9)</sup>은 어떻게 구했던 거야?) 말했잖아요. 채팅이라고. (그럼 대행하면 사람들 어디서 봤어?) 말했잖아요. 집 근처. (집 근처. 그럼 술집은 어디 있는 술집이었는데?) 집 근처. (아 다 집 근처. 집 근처에서 다 해결을 했구나?) 집 근처에서 만나서 개들이 무조건 차가 있단 말이에요. 차가 있으니까 그거 타고 모텔 쪽으로 가요. (분홍)

이러한 가출 청소년들의 또래 문화는 근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앵벌이, 싸움, 뺨뺨기뿐만 아니라 성매매 등도 전부 근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홍이는 애인 대행 사이트를 통해 조건만남을 했고, 조건만남 성매수자들을 그녀가 생활하는 근거지에서 만나, 근거지 근처의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했다. 근거지를 중심으로 조건만남을 해야만, 조건만남 이후 성매수자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또래들을 모텔로 부르거나 또래에게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근거지는 가출 청소년들의 모든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거지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거리 생활의 핵심적인 공간이며 의미 있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근거지를 중심으로 가출 청소년들은 왜 서성거리거나 싸돌아다닐까? 이 문제에 대해 초롱이와 분홍이는 ‘시간의 소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초롱이는 ‘무서운 밤 시간’을 소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홍이는 ‘무료한 시간에 대한 소비’로 서성거리거나 싸돌아다녔다.

거리 생활 이전에는 가출 청소년들이 시간 기획<sup>10)</sup> 안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녀들

9) 대행은 애인대행의 약어이다. 애인대행은 개인형 성매매의 일종으로 여성이 성관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애인 역할을 해 주는 서비스이다(김연주, 2010).

10) 현대 사회를 24시간 사회로 규정하면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의 문제인 것 같다. 경쟁적 속도 사회는 인간에게 더 세밀하게 시간을 기획하고 구획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풍요라는 청사진을 내놓고, 구획된 시간 속에서 생활하게 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시간 기획의 예는 8시 30분 아침 조회, 9시 1교시 등과 같은 일과표에서 볼 수 있다.

스스로 자신들의 순환리듬에 맞추어 시간을 구성하고 일상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녀들은 시간의 구조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즉, 거리 생활은 청소년들에게 자유롭게 시간을 소비하고 구획할 수 있게 한다. 이제는 아무런 구속이나 통제 없이 자신들의 리듬에 맞추어 시간을 소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성거리기’는 그녀들의 생활 패턴을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서성거리기와 싸돌아다니기’는 가출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유이다. 가출 청소년들이 집에서 거주할 때는 ‘서성거리기와 싸돌아다니기’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부모 혹은 가족이 통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제는 외적인 통제일 수도 혹은 내적인 통제일 수도 있다. 즉,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강제로 제재를 당했을 수도 있고, 혹은 심적으로 ‘내가 돌아다니는 것을 부모님이 안 좋아하시겠지, 돌아다니면 또 혼나겠지’ 하는 내적인 제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출을 하면, ‘서성거리기와 싸돌아다니기’에 대해 가출 청소년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거리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먼 곳도 가보고... (하늘)

하늘처럼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먼 곳도 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거리는 가출 청소년에게 자유를 준다. 이러한 자유는 거리를 살 만한 공간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이며 집에서 거리로 나오게 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 2. 물리적 공간의 확장

처음에는 무서운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두세 번째는 무서운 생각도 덜 들고 그냥 밖에서 있는 게 즐거웠어요. (소라)

첫 번째는 우발적으로 나갔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계획적으로. (바람)

엄마한테 혼날 것 같으면, 그냥 집을 나갔어요.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 지 아니라 컴퓨터에 가든지 아니면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다가 그냥 걸어요. 전철 시작할 때까지 그리고 전철타고 잠을 자요. (나무)

소라는 처음에 가출했을 때는 무서운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두세 번째 가출을 반복할수록 무서운 생각이 덜 들고, 가출 생활이 즐거웠다고 말한다. 소라의 경우처럼 가출 횟

수가 늘어날수록 가출 청소년들에게 거리는 이제 공포와 불안만이 존재하는 곳은 아니다.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집을 나가기도 했지만 늘어나는 가출 횟수는 가출을 계획하게 만들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은 일이 생기거나 집에서 갈등이 생길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도구로 정착하게 된다.

가출이 반복되면서 이제 거리는 청소년들에게 공포와 불안만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또래까지 함께하고 있다면 이제 거리는 많이 재미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가출한 애들끼리만 있으면 재미있다?) 네. 더 재미있고 뭔가 새로운 것 경험도 하면서 나쁜 거. 막상하면 즐겁잖아요. (혹시 같이 새롭게 경험한 것 중에서 예를 들어 줄 수 있어요?) 좀 나쁜 경험이기도 한데, 일단 가출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자주 차 털어. 그런 거…….(차 털어?) 네. (할 때는 재미있어요?) 저는 안 하는데 구경하는 게……. 남자들이 거의 하니까 “와 재 용감하다.” 구경하는 게 재미있어요. 또 누가 지나가다가 툭 치잖아요. 그럼 남자애들이 그 사람 잡아가지고 때리잖아요. 나쁜 거 알긴 하면서도 즐거워요. (뭔가 재미있는 것 같고?) 네. 가출하면 남자애들 섞여서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저희는 같이 다녔거든요. 여자들이 “아~ 재가 치고 갔어. 재가 때렸어.” 그러면 남자들이 잡아 가지고 때리고 싸우고 그러면 웃고 재미있어요. (바다)

바다는 차 털어도 재미있고, 거리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고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말한다. 가출 청소년들은 길거리를 서성거릴 때도, 거리를 돌아다닐 때도, 놀이터에 있을 때도 무섭지 않고, 가출해서도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비록 그것이 사회적으로 금지된 행위일지라도 재미있고 흥미롭다. 혼자 있을 때는 유약하고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또래들과 함께라면 사소한 비행에서부터 심각한 비행까지 모든 것이 즐겁다. 앵벌이까지도 즐겁다.

이처럼 그녀들이 또래를 만나 집단을 구성하게 되면, 비행도 사소한 비행에서 심각한 비행으로 확장되고, 그녀들의 놀이 공간도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확장되어 간다. 놀이 공간이 원거리로 확장되어 갈수록, 그녀들이 구성하는 활동의 영역도 확장되었다. 일부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동네 아이들 뺑뺑기<sup>11)</sup>에서 뺑차<sup>12)</sup> 그리고 절도 등 범죄 행위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특히 남자 청소년들과 함께 무리를 구성하면, 심각한 비행이나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았다.

---

11) 돈이나 물건 뺑기

12) 무임승차

(되게 많이 돌아다녔다며?) 그때도 옛날이예요... 그 멤버들이랑, 그 뺑끼치고 특수절도 멤버들이랑 같이 간 거니까.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땅 끝까지 갔다 왔었어요. 하도 다닐 데가 없으니까, 계속 왔다갔다 그랬죠. 수도권에 있는, 아니, 그 지하철 노선표 있잖아요. 거기를 다 돌아다녔어요. 건대입구도 가고 홍대도 가고... 다 돌아다녔어요. (... 중략) 근데 여기 온 거죠. (웃음). 다 돈 거예요. 아, 산은 안 갔구나, 내가. 산은 안 갔어요. 그렇게 다녔어요. (그럼 대구나 대전 간 거는 지난번에 부산 간 거랑 비슷하게 간 거야?) 그땐 그냥 놀러. 그 언니랑 다 뺑차 타고 다녔었어요. 지하철도 뺑차, 열차도 뺑차. (그러면 특수절도로 잡혀?) 그게 아니고 오토바이를 계속 탄 사람들 거를 갖고 다니니까 특수절도로 걸린 거죠. 그거 때문에 걸린 거예요. 딴게 아니라. 한 번도 지하철이나 열차에서 걸린 적이 없어요. 화장실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그것도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사람 좀 나갔다 싶으면은 그때 거기 앉아 있어요... 그렇게 지냈어요. (분홍)

더 이상 집 밖, 거리는 그녀들에게 미지의 세계가 아니다. 그녀들은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녀들이 거리에서 하는 행위가 범죄적일수록 거리에 대한 공포나 불안은 심상 깊이 숨겨진다. 이제 거리는 자유롭고 재미있는 공간일 뿐이며, 거리의 위험은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가출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심각한 비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청소년의 경우는 심각한 비행은 하지 않고, 단순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거리 생활에 익숙해져 간 경우도 있었다. 노랑이나 초롱이 등 일부 청소년들은 물리적으로 공간은 확장했지만, 심각한 비행을 하지는 않았다.

또한 물리적 공간의 확장 정도는 가출 청소년 집단 안에서 그녀들 간의 위계를 반영하기도 했다. 가출 청소년들은 가해와 피해가 중첩되는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이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관계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당하는 가출 청소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행을 하든지 안 하든지, 혹은 물리적 확장을 하든지 안 하든지에 관계없이 청소년들의 거리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가출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가출 청소년들에게 거리는 여전히 불안한 곳이지만 자유롭고 공포가 없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제 집 밖은 통제와 억압이 없는 자유로운 공간이 되면서 그녀들의 가출은 장기화되어 간다.

거리 생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출 청소년들의 몸 리듬에 맞춰 시간을 구획하고, 이러한 시간의 구획은 그들의 생활을 기획한다. 거리 생활 이전에는 집이라는 공간 안에



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다양한 규제와 통제를 받았다. 이러한 규제와 통제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집이라는 공간 혹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제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다는 욕망 사이에서 지속적인 통제를 받았던 가출 청소년들에게 거리는 스스로를 주체로 만드는 공간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현재 자신의 신체 리듬에 맞추어 시간을 정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자고,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뭘 먹고?) 밥. (어떤 밥?) 먹는 밥.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줘 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이런 거.) 새벽 6시에 자서 오후 3~4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밥은 뭐 먹었어? 네가 좋아하는 한식?) 한식 아니면, 라면 아니면... (라면을 많이 먹었어? 한식을 많이 먹었어?) 밥을 많이 먹었죠. 밥 먹고 준비하고 일 나가고 4~5시쯤 들어와서 밥 먹고 또 자고... (계속 일만 한 거네?) 일도 했고 놀기도 했고... (놀 땐 뭐 하고 놀았어?) 그냥 방에서 놀았는데... 집에서. (같이 지내던 친구들과하고, 새벽 4시에 들어와서 밥 먹었으면 하루에 두 끼 먹은 거네?) 두세끼... 일하면서도 안주가 엄청 많으니까... [...중략] 술 먹으면 얼마나 허기지는 줄 알아요. (빨강)

빨강이 이야기하듯이 먹고 자고 하는 일상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성인의 눈에는 게을러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들이 스스로 시간을 결정하고 생활을 기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 잔소리나 통제 없이. 그녀들에게는 이것 또한 자유이다.



# 제4장

## 한 걸음 다가선 성매매

제1절 가출 청소년의 하위문화

제2절 쉬운 기회

제3절 생존과 내몰린 자립

Women's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제 4 장 한 걸음 다가선 성매매

점점 익숙해진 거리는 그녀들로 하여금, 장기가출과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가출을 만들어낸다. 이제 그녀들에게 거리는 집보다 더 익숙하고 자유로운 공간이다. 단, 믿을 수 있는 또래, 친한 또래만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또래들과 함께 느끼는 ‘거리의 자유와 재미’는, 어느 순간 그녀들로 하여금 성매매에 한 걸음 다가서게 만든다. 가출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가 그녀들로 하여금 ‘성매매’에 다가서게 하는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출 청소년들의 하위문화가 그녀들로 하여금 성매매에 한 걸음 다가서게 하는 기제라면, 청소년이 집을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다니는 것이 ‘청소년 성매매 기회’이다. 기회로서 성매매는 가출 청소년들이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그녀들의 삶의 언저리에 언제나 존재한다. 기회로서의 성매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매매가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위치하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청소년 성매매가 한국 사회에서, 가출 청소년들에게 기회로서 어떻게 위치하게 되는지에 대해 이 연구에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매매의 기회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성매매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가출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선택하게 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혹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원리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 절 가출 청소년의 하위문화

## 1. ‘성’에 익숙해지기

가출 청소년들끼리 공유하는 문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녀들은 ‘가출 청소년들만의 문화는 없는 것 같다’, ‘그냥 싸돌아다니는 것’, ‘담배 피우고 수다 떠는 것’ 등 다양한 형태로 대답을 했다.

가출 안 해 본 애들은 그때 어땠고,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좀 그런 거 몰라요. 가출한 애들은 ‘나 그때 그랬는데 아~ 나도 그랬는데...’ 아니면 ‘나 거기 가 봤는데...’, ‘어~ 나도 가 봤는데’ 그러고. 애들은 돈 없을 때 앵벌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가끔 웃을 수도 있고, 그때 힘들었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 같아요. (햇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햇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녀들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비슷한 생활양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녀들이 공감하고 느끼는 생활양식 중 어떤 요소들이 그녀들로 하여금 성매매에 다가서게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놀이와 혼합된 ‘성’: 성관계, 성폭행, 성매매

가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놀이는 ‘술 마시기’, ‘수다 떨기’, ‘싸돌아다니기’ 등이다. 특히 ‘술 마시기’는 장소에 따라 놀이의 유형에 차이가 있다. 개방된 공간인 놀이터 혹은 술집에서의 술 마시기와 모텔 등과 같은 폐쇄 공간에서의 술 마시기는 다르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게임이다. 특히 모텔 등과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하는 술 게임은 성적 수위가 높다.

가출 청소년들은 높은 수위의 성적 게임을 왜 하는 것일까? 노랑은 아직도 왕게임의 후유증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또래와 했던 왕게임에서 옷을 벗었던 수치심 때문에 가끔 밤에 잠을 잘 수 없다고 했다.

왕 게임을 하거나, 진실게임을 하거나 그런 게임들 해요. (구름)

(왕게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쪽지 같은 거 있잖아요. 숫자를 적고 왕이 있잖아요. 왕이 몇 번 몇 번 뭐 해, 이런 식으로 시키면 하는 거예요. (바람)

(술 게임 주로 어떤 거 예요?) 왕게임할 때도 있고, 술잔 돌리기 여러 가지 하지 않을까요. (왕게임이면 뭐 시키는 거죠? 그때 어떤 거 시켜요?) 1번이랑 2번이랑 일어나서 키스해라. 뭐... 키스 30초. 이런 거 스킨십. (햇살)

왕게임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벌칙들이 존재한다. 햇살처럼 키스를 시키기도 하고, 바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옷을 벗기기도 하고, 밖에 나가 소리를 지르게 하기도 한다.

그날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게임 같은 거 돌리고, 저희 애들은 그냥 마시고, 빼는 사람 갈구고 (무슨 게임 해요?) 게임 이름이 뭐더라... 병 따는 거 있잖아요. (병뚜껑 따서 돌리고 쳐서 튀기는 사람 먹기?) 네, 그리고 왕게임. (왕게임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남자 여자 섞여 있을 때는 수위를 낮게 해요. 딱 입술까지만 더 안 넘어가게. 여자들끼리만 있을 때는 옷도 벗겨요. 위, 아래 다 걸릴 때 마다 하나씩 벗겨요. 만약 모텔에서 먹잖아요. 그러면 모텔 밖으로 나가요. 주위에 호프집 많잖아요. 그 앞에 가서 ‘사랑합니다,’ 소리 지르라고, 그런 거 하기도 하고……. (바다)

바다의 이야기처럼 이러한 게임은 술과 함께 공존하고, 술자리의 분위기를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가출 청소년들은 재미있게 놀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성적 욕망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놀이의 방식은 남성 중심의 유흥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sup>13)</sup>이기도 하다. 왕게임 등과 같은 술 게임을 통해 가출 청소년들은 ‘성적 욕망’을 알게 되며, ‘성적 욕망’을 놀이와 결부시켜 활용한다. 가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성적 욕망’은 자연스러운 놀이의 일부인 것이다.

이러한 ‘성적 욕망’과 결부된 놀이의 결과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폭력’을 동반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놀이의 결과로 동반된 성폭력을 가출 청소년들은 ‘성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술 먹다 술 취했는데 그냥 일어났는데 그랬더니... 그 남자랑 같이 성관계 했다더라. 얘기만 들은 거예요.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나무)

13)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출 청소년들이 했던 왕게임에는 한국 사회의 남성 중심 유흥 문화에서 보이는 마초적이고 집단적인 특성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술과 성(性)이 존재한다. 여기서 성(性)이란 애정과 연애와는 상대적으로 구별되는 남성적인 성적 욕망이다.

번개<sup>14</sup>)해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 세 명을 만났는데 술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술김에, 얼떨결에... 원해서 했던 것은 아닌데 약간 술김에 몰랐는데... 누가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바다)

나무와 바다처럼 술을 먹고 놀다가 성폭행을 당했지만, 놀이에 참가했던 자신이 짝 짝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놀이와 결부된 성적 욕망이나 왜곡된 성관계는 가출 청소년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일상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다.

주로 노래방 가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사람 구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 쓰게 하고 밥 먹을 때도 컴퓨터로 메신저로 해 가지고 사람 같이 불러서 같이 놀고 밥 먹고... 거의 저희들은 돈 안 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구한 거야? 너한테 밥 사줄 사람?) 그러니까 버디버디 뭐 이런 걸로 메신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어?) 나랑 놀 사람, 우리랑 놀 사람 쳐 놓고 기다리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일 돈 많아 보이는 사람을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랑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하는 거야?) 네. (...중략) 노래방 가거나 호프집 가거나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차 타고 바다 놀러가고 펜션 잡고. (회진)

이제 낯선 남자들과 노는 것도 ‘거리의 재미’ 중 하나이다. 회진의 이야기처럼 그녀들이 원한다면 낯선 남자와 놀 수 있다. 이렇게 낯선 남자와 놀 경우, 마지막 수순은 성관계이다.

놀이와 결부된 ‘성적 욕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곡된 성관계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사회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성매매’와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회진의 경우처럼 남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함께 놀고 성관계를 갖는 방식은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과 다른 인식을 갖게 한다. 가출 청소년들은 ‘돈’이나 기타 ‘물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그녀들이 자주 하는 ‘번개’ 혹은 ‘놀이’들과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관계’, ‘성폭행’, ‘성매매’의 간극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지 않고, 언제나 거리의 청소년들은 이 경계를 넘나들면서 생활을 한다.

---

14) 서로 모르는 남성과 여성이 인터넷을 통해 놀기 위해 만나는 만남을 지칭한다. 번개의 목적은 데이트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서로의 외모가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있는 남성을 선호하기도 한다. 번개를 하면 남성들이 밥값, 술값, 노래방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잠잘 곳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김연주, 2010).



## 2)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가출 청소년들은 직접적 폭력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집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녀들이 비난받는 가장 중요한 기제였다.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나 그냥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제가 잘못됐다고 하고 가출 이유에 대해서 부모님 잘못 아니라고, 니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다)

바다는 일반 성인들이 가출의 책임을 부모가 아닌 청소년들에게만 돌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거리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며,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가출 청소년들을 비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나쁜 쪽으로 쳐다보고, 비행으로 보고……. 좀 나쁘게 보는 것 같아요. (소라)

소라도 일반 성인들이 자신들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좀 더 나쁜 쪽으로 쳐다보고 대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나쁜 쪽이란 비행을 하거나 범죄를 하는, 예의 없고 질 나쁜 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가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재 양아치” (햇살)

(가출 청소년이라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안 좋게 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좀 비판하기도 하고, 재는 질이 안 좋은 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담배 가지고 어른들이 욱하고 그러는 거 저희도 신고하고 싶어요. 일단 저희도 담배를 피웠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는 것뿐이지… 너희도 걸리게 되니까 신고를 못 하는 것뿐이지… 언어… 뭐지. (언어폭력?) 언어폭력 같은 거 저희 많이 당해요. 먹살 잡히는 것도 되게 많고……. (홍이)

성인들의 생각은 단순히 가출 청소년들을 나쁘게 보는 시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욕’이나 ‘먹살 잡기’처럼 행동적인 측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홍이는 거리에서 일반

성인 남성으로부터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먹살을 잡히는 경험까지 했다고 한다.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가출했기 때문에 받는 비난뿐만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받는 비난도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여자가 가출했기 때문에 일반 성인들은 그녀들을 이중적인 편견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여자 가출 청소년하고 남자 가출 청소년하고 딱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남자애들 경우에는 “야! 저것들 보라” 그러겠지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재네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반응 아닐까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반응?) 그럴 거 같아요. 여자애들이니까. (헷살)

(특별히 여자 가출 청소년이 있고, 남자 가출 청소년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여자 가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과 남자 청소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가출을 하면은 ‘재는 얼마나 밖에 나가고 싶으면 저럴까 무슨 저런 애가 있나’ 이렇게 하는데 ‘남자가 집에서 나가면 화나서 나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자 가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제가 문제가 있어서 밖으로 나왔을 것이다. 일단 안 좋게 보는 시선으로 시작하는 거?)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바람)

네. 근데 여자애들은 진짜 골빈년으로 보고, 집에서 밥해 주고 빨래해 주고 그럼 되지 뭘 나가 갖고 츠그들끼리 뭘 하는데 몸 팔고 다니니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남자애들은 진짜. 그런 식으로 봤었어요. 사회 경험 먼저 하는 거니까 상관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때 느꼈죠. 좀 좇같았어요. 같은, 같은 또래의 같은 저걸 했는데 남자애들은 좋게 보고 여자애들은 좇같이 보고, 좀 그랬어요, 진짜. (쉽) 아직도 어른들은 고지식한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냥 체념하고 살아요(헷웃음). (분홍)

일반 성인들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가출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이해해 주는 반면,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아’로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헷살, 바람의 이야기처럼 가출 청소년들은 “재네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재는 얼마나 밖에 나가고 싶으면 저럴까 무슨 저런 애가 있나.”라는 부정적 시선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것이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평판은 일반인 혹은 또래 남성들이 그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지금 학생들 중 남자애들 경우 못된 게 있어요. 그런 남자애들은 성관계 맺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여자애들 많아요.(아~~ 그렇구나, 어떻게...) 그런 남자애들은 그런 거예요. 아는 애들이랑 술 먹고, 서로 눈 맞아서 하고, 여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여자들은 술 먹으면 저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원해서 술 먹는 것도 있는데 원해서 술 먹고 그다음에 남자들이 하는 행동이 더럽다는 거죠. (남희)

남희의 인터뷰에도 나타나듯이 또래 남성들은 거리의 여자 청소년들을 ‘한 번 노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대학 다니는 여자랑 사귀고 싶다. 생각이 있는 여자랑 사귀고 싶어요. (영훈)

비교 대상으로 인터뷰했던 영훈이는 지금 현재는 여자 친구가 없지만 이후에는 대학생들과 사귀고 싶다고 했다. 왜 대학생과 사귀고 싶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영훈이는 이제 는 생각이 있는 여자랑 사귀고 싶다고 했다. 영훈이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과거에 놀던 여자 애들은 생각 없는 애들이었고, 이제는 다른 여자들과 사귀고 싶다는 것이다. 영훈이처럼 대다수의 또래 남성들이 여러 경계를 들어 가출 십대 여성들을 일반 십대 여성들과 구분하고 있다.

요컨대 성인들 또한 가출 여자 청소년에 대해 여러 가지 경계를 가지고 그녀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낙인 찍고 있었다. 간접적 폭력은 구조적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가출 여자 청소년들은 거리에서 어른들에게 그리고 또래 남성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시선으로 간접적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sup>15)</sup> 가출한 여자이기 때문에 거리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는 편견, 특히 성에 자유로울 것이라는 생각은 성인이나 또래 남성들이 그녀들을 쉽게 성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성적인 대상으로 대하게 한다.

남자 또래와 어울리면서 가장 빈번하게 생기는 일이 ‘성폭행’이다. 가끔은 ‘돌림방’이

---

15) 이 연구에서는 폭력을 법률적으로 제한된 개념이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무형적·유형적 행위’라고 폭넓게 규정한다. 폭력을 이와 같이 폭넓게 정의하는 이유는 법률적으로만 죄가 되는 혐의의 폭력을 사용할 경우, 법률로 규제하지 않거나 법으로 규정하기에는 미약한 폭력 또는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된 폭력, 나아가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폭력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접적 폭력은 물리적이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만, 간접적 폭력은 구조적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직접적 폭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니지만, 간접적 폭력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한다. 지금까지 가출 청소년들의 직접적 폭력에 대한 언급이나 연구는 종종 있었지만,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간접적 폭력에 대해 관심은 드물었다. 이에 다수의 직접적인 폭력 이외 ‘언어와 이미지에 의한 구조적 폭력’ 즉, 간접적 폭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가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자 하였다.

라는 윤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근데 그 언니가 저 생각해 갖고 지가 혼자 한다고 그런 식으로 애길하길래, 어차피 같이 나온 거 그래갖고, 번개 같이 해갖고 거기서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아마 그 언니 친구네를 갔을 거예요. 그 언니 친구네 가서, 아, (쉽). 번개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그때 저 맞았어요. 좆나 맞았어요, 진짜. 그 언니한테 말고, 그 남자들한테, 좆나 맞고, 그 언니는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지 친구네로 간 거예요. 그때 아마 막 팔 멍들고 그랬었어요. 남자가 한 명 있다 그랬었는데 두 명인 거예요. 근데 자는데 계속 만지길래, 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부터, 내가 언제 널 만졌냐고 이러면서 오리발 내밀고 막 때리는 거예요. (분홍)

분홍이처럼 번개를 한 남자들에게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고, 구름이가 말한 것처럼 놀다가 강간을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성폭행의 피해자들은 그 사실을 또래들이나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걸레’라는 소문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쁜 소문이 퍼진다고 했잖아요. 여자들 사이에서 제일 나쁜 소문은 뭐예요?) 전 걸레 소문인 것 같아요. 네. 수치스럽잖아요. (구름)

구름이는 또래에서 가장 나쁜 소문이 ‘걸레’라는 소문이라고 했다. ‘걸레’라는 소문은 그녀들에게 가장 부정적인 낙인이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성관계를 했든 아니면 성폭행을 당했든 관계없이 성관계라는 것 자체가 그녀들을 또래 안에서 ‘걸레’라고 지칭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은 또래 남성들에 의해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빈번하게 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래 남성들은 거리에서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너무도 쉽게 성관계를 제안했고 성폭행과 윤간을 했다. 즉, 그들은 영훈이처럼 거리에서 만난 여자 청소년들은 성적으로 쉬운 대상이라는 생각이 뇌리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또래 남성들과의 성관계 경험은 그녀들이 이후 성매매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제가 된다.

결국 쉬운 여자라는 인식 속에서 행해진 왜곡된 성관계, 성폭행은 청소년들에게 ‘남자는 믿을 수 없다’, ‘남자들에게 이용당했다’라는 인식을 갖게 만든다. 이러한 인식은 청소년들도 ‘남자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 2. '강한 자' 되기

### 1) 강해져야 한다: 권력

일반적으로 집단 내에서 사람들의 지위는 불평등하다. 물론 처음에는 그 시작이 평등하게 출발했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단 안에 있는 한 명이나 소수의 사람이 집단 활동을 조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제시하며, 커뮤니케이션을 중재하는 역할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집단 성원들을 권한을 획득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권력과 권력관계라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러한 권력과 권력관계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사람들의 상호관계에 어떤 질서가 생기게 되면, 권력도 배분된다.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권력관계라는 집단 역동을 가출 청소년들은 경험하게 된다.

(그때 한번은 어쩌다가 들어가게 된 건데?) 음... 가출, 가출 청소년 카페가 있었어요. 사이에 쳐 보면, 사이에 쳐도 많이 있었어요. 가출 청소년. 가출만 써도, 가출 청소년 여기 모여라, 막 이런 걸로 써놔 가지고, 가출한 애들 모여 가지고 여기 서울 어디어던데 그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만나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같이 돌아다니거나. (그럼 거기서 우리 팸 들어올 사람 오라고 하기도 하는 거야?)

음. 나 지금 여기 어디어디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 아니면 나 대구에 있는데 올 사람 막 이렇게. (그거 보고...)네. 중략(...) (그러면 대체로 누가 너한테 막 새로운 사람들한테 막 조건을 하라고 하는 거야? 팸 중에서? 음 그걸 맨 처음으로 연 애? 맨 처음으로 한 애?) 그니까... 가운데 오야봉같은? 그런 애가, 힘 있는 애가, 가서 “너 해. 오늘, 오늘은 내가 했으니까 너는 내일 하고 아님 넌 오늘 해.” 막 이래요. (그 친구도 하는 거고? 오야봉 친구도?) 근데 걔는 그렇게 많이 안 하죠. (시키면 해야 돼?) 안 하면 맞으니까.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왜 니만 안 하냐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럼 네가 그때 봤을 때 그 오야봉은 나이가 좀 더 많았어,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그걸 제일 처음에 열어서 그렇게.) 나이도 많았구요. 덩치도 컸고. 그래서 애들 볼 때도 막 마른,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하고 예쁜지 안 예쁜지 확인하고 그래요. 거의 마담 같은 역할을 하죠. 애들 받는. 그래서 그거 보기 싫어서 바로 나왔어요, 새벽에. 그때 저랑 같이 도망친 애가 있어요. 그때 거기서 제일 착한 애가 있었는데 나 밤에 나갈 건데 같이 갈 거냐고 해가지고 같이 갔죠. (그러면 그때 그 오야봉은 몇 살 정도데?) 걔가 그때 열아홉 살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스무 살? (왜 거기에까지 거기에 친구들이 모여 있어? 가출한 친구들이 거기 모여 있는 지역인 거야?) (회진)

회진은 인터넷 가출 청소년 카페를 통해 가출팸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회진이 찾아간 가출팸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는 매우 차이가 났다. 거리의 외로움과 거리의 불안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녀의 생각은 현실을 모르는 그녀만의 상상이었다.

가출팸에는 마담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오야붕’이 있어서, 가출팸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생활을 조율하고 있었다. 팸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비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등과 같은 기타 업무를 분담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업무 분담이 가능한 것은 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이 거리 생활에서 얻은 정보와 팸에서 생활하는 대장 이외의 청소년들 간의 이해와 욕구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팸 구성원 중에서 성매매 등과 같은 업무를 하기 싫다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왜 너만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압력이 존재했다. 이러한 무언의 압력은 첫째, 함께 공동체를 운영하고 팸 안에서 생활하려면 생활비 등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우리도 성매매를 하는데 너는 우리와 무엇이 차이가 있어서 성매매를 하지 않느냐는 또 다른 압력이기도 하며,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는 동류의식이기도 하다.

무언의 압력이 팸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내는 시선이었다면, 실제적인 폭력은 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들 무리에 의해 행사되었다. 팸은 이러한 무언의 압력과 실제적인 폭력 안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물론 모든 팸들에서 폭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팸 안에는 팸 나름의 규칙과 운영 원리들이 내재되어 있었다.

아니요. 그냥 돌아다니다가 돈이... 있고 잘 곳도 필요하니까 모텔 가서 잔 거죠. 근데 그... 그... 대장인 애는 혼자 자고. 아니다. 힘 있는 애들이랑 자고요. 좀 약한 애들은 따로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약한 애들끼리 모이다가 몇 명은 자고 개랑 저랑 또 한 명 더 있었는데. 개 셋, 저랑 개랑 그 또 한 명 여자애랑 같이 나왔어요. 돈 애들 다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개가 개 한 명이 거기서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나와야 할 거 같아 가지고. 개 지금 애 낳았을 걸요. 애 낳고 집에 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한 명은 쉼터에서 살고 있고요. 검정고시 준비.  
(회진)

집단에서 권력의 차이는 그녀들의 생활 차이를 만들었다. 권력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자고 입는 것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하는 횟수까지 차이가 있었다.

회진에 의하면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올 때마다 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이 새로운 구성원이 말랐는지 혹은 예쁜지를 확인했다고 한다. 새로운 구성원이 예쁜지 혹은 말랐는

지에 따라 뺨에서의 대우 또한 달라진다고 한다.

(그러면은 친구들 다른 친구들이 받는 금액도 다 비슷해?) 예쁘면 비싸게 받고요. (비싸게?) 돈을. 중간이면 보통 선에서 받고 못생기면 좀 덜 받고. (차이가 얼마나 돼?)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보통 사람들은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받고 예쁜 사람은 보통 50만원, 60만원... (회진)

남자애들도 예쁜 여자랑 사귀고 싶고, 본인이 더 많이 혜택도 좋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힘을 가질 수도 있고. (본인도 예쁘잖아요.) 운동할 때는 날씬했는데..... 지금 운동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요요현상이 와서 살이 갑자기 확 찢 거예요. 똥똥하다는 점에서 남자애들이 무시하고 애는 성관계하고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 밖에 없어요. 개네는... 그런 걸로 많이..... (남희)

회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굴이 예쁘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서 중요한 자원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은 뺨 안에서의 그녀들의 위치를 결정할 때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외모에 대한 자원은 얼굴뿐만이 아니라 몸매 또한 중요하다. 몸매 또한 이들의 서열에 주요한 요소이다. 현대사회는 젊은 여성들에게 날씬한 체형을 묵시적으로 강요하며, 그 기준에서 벗어난 체형은 수용될 수 없다는 강력한 압력을 주고 있다. 날씬한 체형에 대한 묵시적 강요는 거리 청소년들에게도 내면화되고 있었다.

몸매와 얼굴로 대변되는 외모는 또래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드러난다. 남희는 여자에게 날씬한 몸매는 여성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성적 매력과 연합하여 여성 외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그녀의 체험에서 습득된 것이다. 남희는 자신이 똥똥해서 남자애들이 자신을 성관계하고 버리는 정도로 취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외모뿐만 아니라 거리 청소년들의 집단에서 권력관계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나이, 덩치, 정보 등이다. 또래 집단에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연령이 높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녀가 다른 또래에 비해 거리 생활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그녀가 거리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거리의 정보가 많은 오야붕이 있다면 그와 함께 하면서 거리 생활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다.

가출 청소년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싸가지 없는 또래가 바로 '뺨의 오야붕'일 수도 있다.

(그럼 주로 밖에 가출해서 있을 때 막 서로 많이 때리고 그래?) 때리는 애들은 그다지 그렇게 없는데요. (극소수 중에?) 근데 때리는 애들이 없다고는... 없다고는 못 하죠. 많이...는 없죠. 강해 보이지 않으면 자기가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회진)

거리에서는 힘의 자장들이 존재하고 강하지 않으면 그녀들의 또래에서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회진의 이야기처럼 거리에서는 강해야만 한다. 가출 청소년들도 ‘집단내의 힘의 자장 혹은 권력의 자장’을 감지하고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가출 청소년들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권력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자원을 감지한다. 그녀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강해 보이지 않는다면, 혹은 강하지 않다면 거리에 사는 누군가에 의해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회진의 말처럼 강해 보이지 않으면, 집단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앵벌이일수도 혹은 조건만남일 수도 있다.

예컨대 문신은 그녀들이 강해 보이기 위한 하나의 기제일 수 있다. 즉, 다른 또래들에게 강하고 센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문신은 왜 하는 거예요?)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예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뻐서 했는데 이제는 후회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공짜로 해 준다고 하면 하고 싶어요. (예쁜 문신 안 하고, 진짜 타투 하는 사람들 문신 말고...) 야매....., (야매로 하는 거, 야매로 하면 예쁘지 않잖아요, 야매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아니요. 그냥 세 보이려고 (아~~~ 세 보이려고.) 이런 거 야매로 하면 세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에....., 이런 생각하는 애들 많아요. (남희)

그러나 남희뿐만 아니라 검정이는 문신을 했던 경험 때문에 우울해했다. 검정이의 또래들이 그녀의 몸에 낙서처럼 문신을 했던 것이다.

## 2) 거리의 윤리 체득하기

권력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사용되고 행사되기 때문에 행동지향적이고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력이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원, 수단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거기 위기교육이 끝나고 \*\*쉼터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거기 저보다 두 살 많은 언니가 있는 거예요. 한 살인가? 한 살인가 두 살 많은 언니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언니가 들어왔나 봐요. 들어 와 가지고는 같이 나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초기에는 그냥 저랑 그 언니랑 번개를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애를 가졌다고 했는데 안 믿으니까, 그 언니가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임신 초기가 되게 즐리잖아요. 잠을 안 재우고 계속 나는 컴퓨터를 시켜 갖고 저보다 한 살 어린 애 있거든요. 거기 같이 있었던 애. 개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셋이서, 그 언니가 돈을 다 관리하고요. 그래 놓고 지는 지 친구들 만나갖고 호빠 다니고, 나랑 개는 나는 컴퓨터로 구하라 그러고, 개는 막 일 시키고 그랬죠. 그것 땀에 또 걸려 갖고, 그러다가 개가 짖어요. 그 여자애가, 그 일하던 애가. 힘드니까. 하루에, 솔직히 하루에 두세 번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거 땀에 개가 짖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우리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거죠. 위기교육 선생님한테. 솔직히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 그게 힘들어요. 개한테 도망가라고 한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신림에 갔다가 저는 여기 오게 되고 그 언니는 집에 가고, 그렇게 육 개월 동안 반복을 했어요. (분홍)

분홍이는 중간 포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쉼터에서 만난 언니, 동생과 함께 쉼터를 나와서 성매매를 다시 시작했다. 함께 나온 언니가 돈을 관리하고 분홍이는 컴퓨터로 구매자를 찾고 함께 나온 동생은 성매매를 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함께 나온 동생이 너무 힘들어하다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생활을 종결하게 되었다고 했다.

당시에 분홍이는 집단의 가해자였으며, 권한을 획득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분홍이가 언제나 권력을 획득하거나 가해자였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거 필요 없는 조건만 하죠. 그게 제일 편하니까. 돈 쉽게 벌잖아요. 그거에 맛이 들린 거지……. 돈맛 들어 봤자 뭐해 내가 쓰는 건 얼마 없었는데, 주안에서 같이 살던 언니도 부모님이 둘 다 이혼하시고 따로따로 다니는데… 아빠가 되게 저거세요, 힘드세요. 그 언니네 아빠가. 거기 막 돈 보태준다고, 돈 좀 같이 모아달라고. 솔직히 말해 갖고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땐 제가 진짜 병신이었나 봐요. 그걸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땀에… 그 언니가 알바하고 있는 줄 안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줄. 그 언니가 소년원 갔다 왔거든요. 소년원 갔다 왔는데, 미용 배우고 그냥 네일아트를 해요. 네일아트를 하면서 솔직히 돈 안 벌어지잖아요, 솔직히. 벌어 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그 언니 친구 때문에 그 언니도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 언니 친구가 가르쳐줘 갖고. 맨날 번개하면서 살 순 없지 않겠냐고. (침묵) 그래서 알바도 그냥 아예 안 하고, 맨 처음엔 알바 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런 거 하면은 솔직히 생활비도 안 되고, 쓰는 만큼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모으는 것도 사실상 힘들어요. 생활비로 다 나가는데, 모으는 거 한 푼도 없이, 그 때는 진짜 병신같이 생활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급급했다고 해야 하나? 그

래서… 막…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몸 팔면 돈 많이 벌 거 같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꾸며야 돼요. 그만큼 꾸며야 되고 그만큼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잘 버는 거 만큼 막. 맨날 빛만 늘어나잖아요. 그게 그거 같아요. 거기서 먹고 자고. 맨 처음 들어갈 때 그리고 막 옷 사 주고 막 화장품 사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빛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 거 불러 가지고. 다방에서 일도 해 보고… 그런 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팔려 다니죠.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저거 되는 건데……. 그 3-4만 원 때문에 빛 더 생기고. 하루 자는 만큼 또 얼마씩 받잖아요. 티켓 끊고 그러면. 그러면은… 진짜 위기교육 가 갖고 정신을 조금 차렸었어요. 거기에서 막 팔려 다니는 사람들이랑 얘기도 해 보고… 형사가 또 구제해 주잖아요. 막… 또 들어가는 건 돈 맛 들어서 들어가는 거고. 여기 있던 사람도 한 명 그랬대요. 옛날에.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핸드폰 하나 때문에 또 들어가고. 가면 막 핸드폰 해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또 여기서 나오고 거기 들어가고… 처음엔 돈 맛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었어요. 진짜. 한두 번이야 즐기죠… 그 언니는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을 건데. (분홍)

분홍이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거리의 오랜 경험 속에서 다양한 무리 생활을 했다. 이번에는 중간 포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전 무리에서는 함께 생활하는 무리의 또래를 위해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물론 이번 사건처럼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성매매를 할 때에도 보이지 않는 압력은 여전히 존재했었다.

이처럼 가출 청소년들은 속한 무리에 따라 그리고 축적한 경험에 따라 성매매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그녀들이 거리에서 어떤 위치를 점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녀들조차도 모른다. 오로지 무리 안의 또래 관계 안에서만 그들의 위계가 결정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그녀들은 거리에서 권력을 획득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녀들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가출 청소년에게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또래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때문에 가출 청소년들은 ‘거리의 경험과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또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출 청소년들은 거리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녀들은 거리의 위협을 통해 거리의 윤리를 습득하게 된 것이다.

(반복이라는 건 어떤 거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한 명을 갖고 육 개월 동안 계속 돌린 거죠. 맨 처음엔 지가 하는 척 하다가, 뭐 임신한 거 같다 이런 식으로 개한테 거짓말 치면서… 개만 계속 돌리고. (그 언니, 한 살 두 살 많았다는 그

언니가?) (꼬덕). 저 애 안 가졌다 그랬으면 저도 돌렸을걸요. (분홍)

분홍이도 만약 임신을 안 했다면 자신도 그 언니가 조건만남을 돌렸을 거라고 한다. ‘임신한 거 같다’, ‘몸이 아프다’라는 식의 동정과 의리를 이용하여, 그 언니는 분홍이에게는 중간 포주 역할을, 그리고 아는 동생에게는 조건만남을 시켰다고 한다. 분홍이는 집단의 언니처럼 집단 안에서의 권력을 자신의 거리 생활에서 얻은 전략과 정보를 이용하여 획득하기도 하였다.

(가끔 또래나 동생이나 언니들이 조건만남 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시키는 거 해 본 적 있어요? 조건만남 다른 사람한테 시켜 본 적 있어요?) 시켜 본 적은 없는데 (시키는 거 본 적은 있어요?) 네.(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 친했던 아는 언니가 가출 카페나 채팅에서 같이 일행하자고 잡아서 조건 돌리고 그랬던 거 봤어요. (조건 돌리고?) 네. 안 하면 때린다고 협박하고. (바다)

바다는 폭력에 의해 조건만남을 강요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고 한다. 가출 청소년들은 거리에서 다양한 또래들과의 만남 속에서 ‘권력’에 대해 감각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에 의해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은 거리에서는 당하지 않으려면 강해져야 하고, 나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일을 시킬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가치관들을 형성시키기도 한다.

(가끔 또래나, 언니나, 동생들이나, 다른 친구들한테 조건만남 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본 적 있어요?) 네. [...중략] (당한 적 있어요?) 권유받은 적어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권유받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시킨 적은 있는데. (시킨 적 있어요?) 네. (시킨 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냥 뭐 개가 저한테 빗을 졌는데 “너 그거 해라. 아니면 돈을 갚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시켰어요?) 아니요.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안 좋다는 거 깨달았죠. [...중략] (그거 시키려고 한 친구는 어느 쪽에 있는 친구예요?) 부천이요. (어떻게 알게 된 친구죠?) 같이 보육원에 있던 애요. (원래 친한 사이였어요?) 아니요. (원래는 어떤 관계였어요?) 주종관계. (친구가 주고, 부천에 사는 친구가 중?) 네. (그 관계를 몇 년 정도 지속하고 있어요?) 거의 1년이요. (그 친구 자주 만나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요구를 해요?) 전화로요. (전화하는 통화 내용 조금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개가 제 돈 12만 원 정도 빙땅해 갔는데 열 받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옷에 민감한 편이라서 개한테 “너 이 12만 원 아빠한테 말해서 갚든지, 니 옷 팔아서 차차 갚든지, 방법을 원하면 알려 줄 테니까. 아니면 네가 못 갚을 것 같으면 조건 세 번 뛰든가, 어때 좋지” 이런 식으로. (헛살)

서덜랜드는 법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 등을 학습함으로써 범죄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학습은 기본적으로 위법에 대해 긍정적인 정의(definitions)를 부정적인 정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접촉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러한 접촉은 결국 그러한 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결정된다.

이처럼 가출 청소년들은 또래들과의 다양한 경험과 접촉 속에서 법을 어기는 행동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정의하게 된다. 그러므로 햇살처럼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또래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갚도록 종용할 수 있는 것이다.

### 3. 위험한 위기 대처(coping)

몇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희민)

거리에선 거의 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계속 걷나요?) 네. 계속 걷고, 여기 건물 들어갔다 저기 건물 들어갔다……. 걷고 놀고 걷고 놀고 그러다가 담배 피우고 놀고 놀고……. (화장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잠깐 쉬는 정도지?) 화장실에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제가 거의 겨울쯤에 가출했거든요. 여기에 봄……. 여름 그쯤에 들어왔으니까 진짜 춥거든요. 화장실이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좀 잤다 싶어 눈 뜨면 1분 지나가 있고, 목도 아프고, 자세도 불편하고, 잠이 안 와요. 거의 뜯눈으로 지새워요. (구름)

일단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한대라고 생각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햇살)

희민이는 몇 가지만 조심하면 거리 생활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리에 존재하는 위험들을 해결하기 위해 구름이처럼 그녀들은 자신들의 전략을 만들어 간다. 밤의 무서움에 대처하기 위해 구름이가 밤마다 거리를 걸었던 것처럼, 가출 청소년들은 스스로 대처 능력을 만들고 스스로 전략을 습득해 간다.

가출해서 이 언니를 먼저 만났어요. 가출하면 이런 걸 한다 라고 얘길 들었죠. “넌 어린데 이걸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출했으니까 “난 집에 가기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게 된 거예요. (노랑)

노랑은 가출해서 집에는 가기 싫고, 살길이 막막했을 때 인터넷을 통해 한 언니를 만났고 그 언니에 의해 처음으로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가출 청소년들은 거리에서 생겨난 위험들을 스스로의 전략을 통해 극복해 나간다. 그것이 조건만남일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출 청소년들은 거리의 위기를 스스로 대처하며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가출 청소년들은 거리 생활의 경험을 통해 미지의 신비성을 벗김으로써 거리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낀다. 이는 애그뉴(Agnew, 198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애그뉴 또한 피해 경험이 오히려 미지의 것들에 대한 신비성을 벗겨 줌으로써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준다고 주장한다.

가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거리라는 것은 자유롭지만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가출 청소년들은 거리에서 '자유'의 대가'로 직접적인 폭력에서부터 간접적 폭력까지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까지도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 청소년들에게 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가치를 심어주고, 또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규제하기도 한다. 그들은 거리 생활이 반복되어 갈수록, 거리에서 하는 모든 선택은 가출 청소년 스스로의 몫이라는 것을 인식해 간다.

## 제 2 절 쉬운 기회

### 1. 성 산업의 유혹

저 같은 경우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도 애들이 오라고……. “언니, 애들 없어. 도와줘.”라고 연락이 와요. 솔직히 돈 벌기는 쉽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남희)

남희는 조건만남에서 노래방 도우미, 그리고 다방 생활까지 성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을 해 보았다. 지금도 그때 함께 일했던 동생들이나 보도 오빠들에게 사람이 없다며 잠깐만 나와서 아르바이트하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현재 함께 동거하고 있는 오빠가 싫어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sup>16)</sup>

16) 강준만(2010)은 한국 사회의 룸살롱 문화를 '칸막이 공화국'이라고 지칭하며, 이를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핵으로 언급하고 있다. 2009년 국내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6조 5천억이며, 이

노래방에서부터 다방까지 성매매를 기반으로 하는 유흥업소의 유혹은 가출 청소년들에게 거리 생활의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유흥업소의 유혹을 받은 빨강은 다양한 손님을 만났다.

노래 불러 봤자. 늙은 손님이니까 트로트 몇 번 부르면 되고 웬만하면 젊으면 20대가 오고요. 늙으면 40대에서 70대까지 와요. 제가 75살하고 놀아 본 적 있어요. [ … 중략] (75세 할아버지는 뭐 하셨는데?) 그냥 앉아서 오징어 씹고 (오징어?) 몰라요. 술 마시면서 음료수 먹고. (75세 할아버지는 혼자 왔어?) 아니요. 75세랑 35세랑 왔어요. (아~하 혼자 왔다고…….) 아니 3명이 왔어요. 35세랑 오십 몇 세였는데 그 대기업 아저씨들……. (빨강)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접대 문화가 일상적 포용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대 문화의 일상적 포용력은 유흥업소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요. 보도가 보도 박스가 있어요. 차에 끌고 다니면서……. 여기 한 10명씩 있으면서 실장 오빠랑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노래방에서 전화가 와요. 그걸 콜이라고 해요. “노래방에서 아가씨 두 명이요.” 하면은 실장이 거기 앞에까지 가서 “두 명 나가.” 하면 거기 가는 거예요. 한 시간에 이만 원도 있고요. 양주 테이블은 삼 만원이구요. 애네들이 노래방 주인이랑 사이에 우릴 넣어 주는 거죠. [… 중략]

---

중 유흥비가 절반이 넘는다고 하니, 기업의 유흥, 접대 문화가 얼마나 일반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강준만, 2010; 최선화, 2011 재인용). 이러한 기업의 접대 문화는 여성의 성차별 수단으로 동원되는 성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실라 제프리(Sheila Jeffreys)는 새로운 유리 천장(Glass Ceiling)으로 기업 사회의 지배적인 남성 문화를 지적하고 있다. 남성 중심의 직장 문화는 여성을 배제하는 남성들만의 유대, 직장 내 남성들만의 유머와 대화, 노골적인 성추행 및 성차별적 태도를 포함한다. 이는 기술 전문직 분야에 대한 여성 진출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Bastilich, Franzway, Gill, Mills & Sharp, 2007; Jeffreys, 2010 재인용). 최근 서구에서는 성 산업 동원 방식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여성 직원들의 법적 투쟁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평등 기회 권리부터 여성을 배제시키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 여성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항의하는 금융권 여성 직원들의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다. 그중에서 평등고용위원회는 지난 2004년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에게 “임금과 승진에 있어 여성을 차별하고 성에 대한 노골적인 언급을 눈감아 주고, 오직 남성만이 고객 접대를 위해 스트립쇼에 출입하도록 한 것”에 대해 54만 달러의 벌금을 내렸다. 이처럼 여성의 성차별 수단으로 동원되는 성 산업은 기업의 문화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일상화에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언론인, 방송인, 각종 공무원, 교수, 정치인, 의사, 장교, 검찰 등 직업을 막론하고 출세와 단순 유흥을 위해서 서로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성매매 업소에서 서로 접대하고 접대받거나 그냥 노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다(《프레시안》, 2011.3 18자 “성매매엔 엘리트부터 조폭까지 일치단결 대한민국”). 이러한 접대 문화는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 이러한 수요 창출은 가출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기회로 작용한다.

아~하 거의 조그맣게 하는 데는 아반떼, 크게 하는 데는 스타렉스 그리고 중간에는 카니발. 음음 거의 카니발을 많이 해요. [... 중략] (빨강)

조그만 보도는 청소년들 많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구름이)

빨강과 구름이 이야기처럼 중소 규모의 보도방은 성인 여성의 인력풀이 적기 때문에 유흥업소의 수요가 많을 경우, 어린 여성 즉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애들이 내려오면 태워다가 노래방에 넣어 주면 그냥 아저씨들이랑 한 시간 동안 술 먹고 이러면서……. 한 시간 동안 술 먹으면 거의 2만 5천 원씩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놀다가 다른 데는 2차 간다고 하는 데는요. 그냥 아저씨랑 눈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저씨가 마음에 들면, 돈 많이 주면 가는 거고……. 그런 식이에요. (남희)

모든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남희 말대로 눈이 맞거나 돈을 많이 주면 성매매가 가능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처럼 언제든지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 2. 쉽고 편리한 기회, 인터넷<sup>17)</sup>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기로 결심한다면 언제든지 쉽게 성매수자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인터넷이다. 이처럼 인터넷은 가출 청소년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성매수자를 만날 수 있게 연결시켜 주는 지점이다<sup>18)</sup>.

2006년 12월 22일부터 2007년 2월 2일까지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734명의 성매매 사범이 검거되었는데, 이 가운데 약 20%인 891명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였다.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전체 94%에 달

17) 인터넷 분석과 관련해서는 윤선미(중앙대 사회학과 석사)도움을 얻었다.

18)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전체 청소년 성매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함께 성장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이 일상 속에 체화된 자유롭고 친숙한 공간이라는 특징과 연관된다.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세상이 아니라 이미 생활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2009년 5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77.2%이며 초등학교에서 대학생까지를 포함한 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은 99.9%로 집계됐다. 이중 10대들은 96.7%가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인터넷은 이제 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과 사이버 문화의 급속한 전개는 가출 청소년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는 837명이었다(박경래, 2007). 또한 2007년 4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발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자와 대상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만난 경우가 전체의 82%로 나타났다. 홍봉선·남미애(2010)의 연구에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중심으로 성매매의 주된 경로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채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41%(16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20.5%(8명), 부킹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15.4%(6명), 전화방, 노래방 그리고 기타 경로가 각각 10.3%(4명), 유흥업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2.6%(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 성매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경로가 인터넷이며, 청소년들이 성매수자를 가장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공간 역시 인터넷임을 알 수 있다.

(그럼 그때가 몇 살 때였어? 처음 했을 때가?) 중2? (그러면 그때 조건 하면 나오는 사람들이랑은 어떻게 만나 가지고 하는 거야?) 채팅. (분홍)

(조건만남을 하려면 만나야 하잖아. 네 말은 컴퓨터에서 구해야 하잖아.) 방은 저희가 만들어요.(너 네가 방을. 뭐라고 만들어?) 뭐 가출했으니까 어찌고저찌고 써요. 방을 만들면 우르르 들어와요.(우르르 들어와? 몇 명?) 근데 나가는 사람도 있어서. 한 네다섯 명 정도.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몇 살이냐고. (맨 처음 물어보는 게 몇 살이냐고 물어봐?) “몇 살이세요 님” 이려고. (그다음에는?) 저는 대답을 하죠. “어디 사세요?” “저 서울이요.” 제가 지금 가출했다고 해요. 그러면 “진짜?” 하고 말 놓죠. “그쪽은 몇 살이세요?” “스물네 살.” 이러면 “아 ~” 그리고 “노랑진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차 있는 사람은 차 색이랑 번호 알려 주면서 차에 타라고 해요. (노랑)

이에 이 연구는 2006년 경찰청의 청소년 성매매 단속 결과, 청소년 성매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터넷 1위 사이트로 적발된 Q사 채팅 사이트를 중심으로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수자들과 만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Q사의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Q사 메신저 접속 > 2. 채팅 접속 > 3. 채팅창 메인 화면 입장 > 4. 연령별 채팅 광장 입장 > 5. 한 공간당 개설 채팅방이 100개씩 개설되어 있는 채팅방 입장 > 6. 개설 채팅방 입장 > 6 채팅방 내에서 채팅 진행 혹은 1:1 대화창으로 전환 후 채팅진행



Q사는 청소년 성매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터넷 사이트 1위로 적발된 후,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통해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수자들을 만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노력으로 연령별 채팅 광장을 만들어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경계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그림 4-1]에 보인 바와 같이 채팅창 메인 화면에 연령에 따라 어린이 버디/청소년 버디/어른 버디로 나누어서, 성인과 미성년자가 서로 교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채팅창 메인 화면을 연령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 채팅방(어른 버디)에 입장이 불가능하며, 성인의 경우 미성년 채팅방(어린이 버디/청소년 버디)에 입장이 불가능하게 구성하였다.



그림 4-1 | 채팅 입장창 메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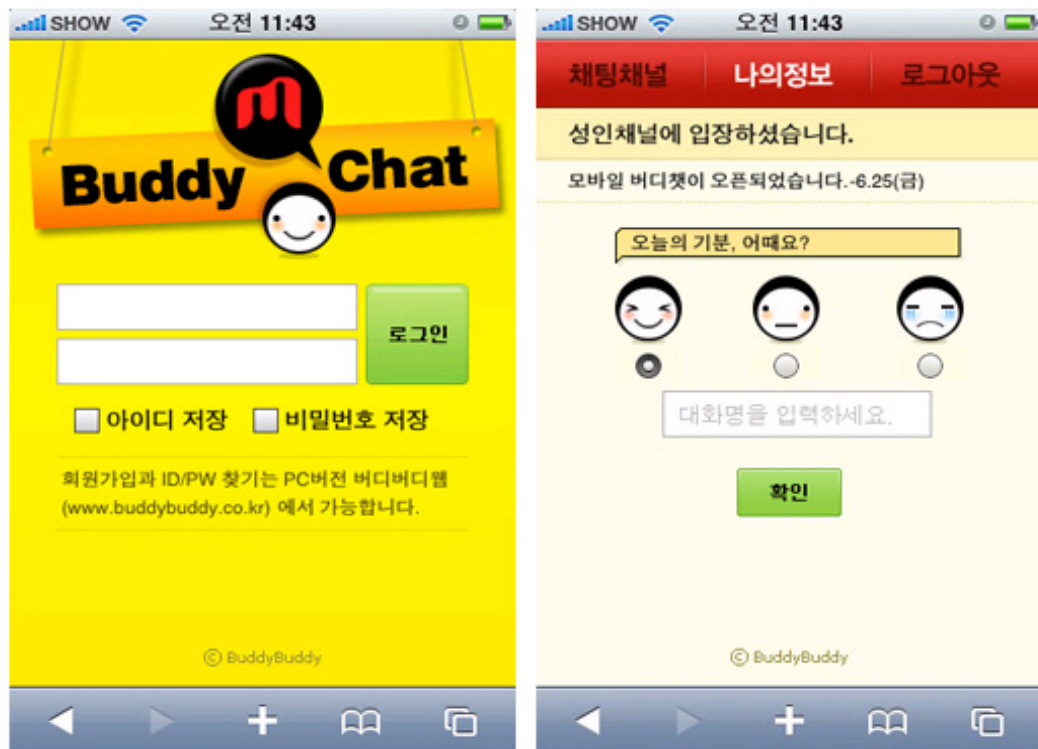
그러나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 아는 언니의 주민등록번호,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사이트에 가입함으로써 사실상 성인 채팅방을 자유롭게 입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결심한다면,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홍이도 91년생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자유롭게 성인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연령에 따른 채팅방의 입장 제한은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Q사의 채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접속해 ‘채팅’ 혹은 ‘랜덤 채팅’으로 검색하면 수십 개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나열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은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GPS 기능을 활용해 상대방과 자신의 거리를 표시해 준다. 이러한 채팅 애플리케이션들은 ‘조건만남’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들이다.

두 번째 노력으로는 Q사의 사이트는 ‘가출’과 같은 특정 단어가 들어간 대화명이나 채팅방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예를 들어 채팅 광장에서는 “그냥그냥/즐거워요/우울하다” 등 기분에 따라 접속할 수 있는 채팅방들이 등장하며, 여기서 마음에 드는 채팅방에 대화명을 입력한 뒤 접속할 수 있다. 이때 특정 단어에 대한 잠금장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잠금장치를 통과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출가’와 같이 특정 단어의 앞뒤 글자를 바꾼다든가, 혹은 ‘ㅈㄱ ㄹㅇ’과 같이 금지어의 초성만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안전장치를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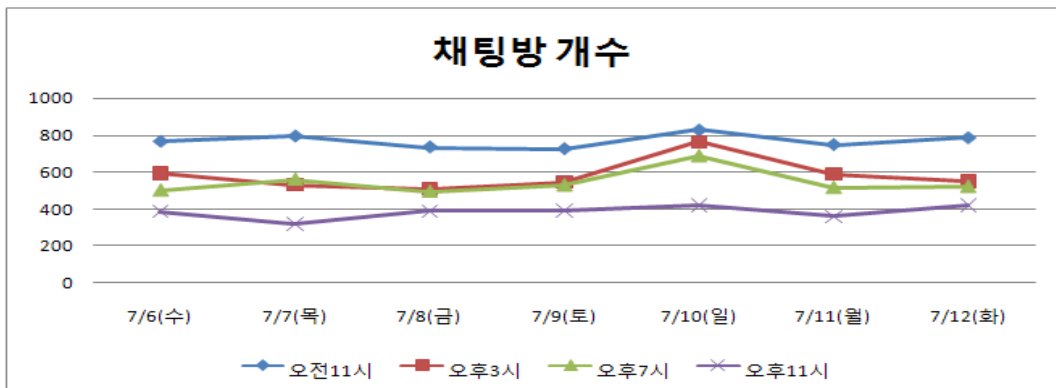


┃ 그림 4-2 ┃ 스마트폰에서의 채팅방

출처: 버디버디 홈페이지 캡처  
 (<http://messenger.buddybuddy.co.kr/buddychat/MUsed01.asp>)

이처럼 여러 가지 장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가출 청소년들과 성매수자와의 만남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성매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2011년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시간대별로 오전 11시, 오후 3시, 오후 7시, 오후 11시에 Q사 성인 채팅방<sup>19)</sup>에 접속하였다. 접속 후, 각 시간대별로 채팅방들을 캡처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채팅을 하였다.

[그림 4-3]는 요일별/시간별로 개설된 채팅방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요일별로는 일요일에, 시간대별로는 오후 11시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채팅방이 개설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Q사에 접속하여 채팅을 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직간접적으로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 그림 4-3 ■ 요일별/시간별 채팅방 개설 수

[그림 4-2]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요구하는 채팅을 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채팅방 입장 창 우측 상단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경고문’을 클릭하면 여성가족부 성매수 신고 프로그램인 “YOUTH KEEPER” 프로그램 다운로드 페이지([http://www.moge.go.kr/korea/view/popzone/page\\_v2.html](http://www.moge.go.kr/korea/view/popzone/page_v2.html))로 연결된다. 이로 인해 채팅방에서 직접적으로 조건만남을 의도하는 방 제목은 드물어졌

19) 청소년 채팅방이 아닌 성인 채팅방을 조사한 이유는 가출 청소년들에 의하면 ‘조건만남’은 성인 채팅방을 통해 성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매수자들의 수요를 측정하고, 성매수자들이 적극적인 구인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성매수자들의 행위가 가출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치에 의해 성매매의 수요나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지 청소년들이 성매수자들을 만나는 방법이 보다 교묘해졌을 뿐이다. 예를 들면 ‘청주종이15장을 아는녀만<sup>20)</sup>’라는 방 제목을 통해 사이트 내의 모니터링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이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매매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묘한 방법으로 청소년들과 성매수자가 서로를 확인하고 매칭해 나가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채팅방 제목을 분석하였다. 이때 채팅방의 제목을 ‘온라인상에서의 성적인 대화 의도<sup>21)</sup>’, ‘오프라인상에서의 만남 의도<sup>22)</sup>’, ‘성적 의도만을 내포<sup>23)</sup>’의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1>과 같다.

- 
- 20) ‘청주종이 15장을 아는녀만’이라는 방 제목 의미는 청주에서 15만원에 성매매를 원한다는 것이다.  
 21) 비2★부담없이 즐길 캬녀만 대화★/ 문자/카톡하고 놀 응.큼한 여자 (...)/ 폰할~~~~ 어린녀만~비1/ 폰으로 느끼실여만../ 40대남임. 영화 ‘거짓말’처럼. 1:1 대화/ 비2★부담없ㅇ; 즐길 캬녀만대화★  
 22) 강릉 날도 더운데 울집와서 잘래?/ [충북 30남]엔조이구함 여만! 비번1/ 창원 즐겁하다 콜?/ 분당/아빠는 착한딸을 원한다.비((...)/ ★같이 살 동귀녀 구함★/ 청주종이15장을아는녀만[ (...)/ 일석이조/비번1/여자만/ (...)/ 수원 용인 술마실여친구함 잠수면(...)/ 안산 상록수 (방장남자)/ ★ㄷ ㅈ구만남장난을 따짐없는(...)/ 부산 아무도없네/ 대.....전.....방/ 건대입구-돈도\*잠도못자고-도와줘(...)/ 강릉 날도 더운데 울집와서 잘래?/ 전남광주 남자2명 사진 고고싱?ㅋ(...)/ 신림 지금 만나서 놀여자분 몸매의 (...)/ 여자만./비1 신대방훈남 쪽지바람/ 키187;청담;외제차;27살;사진교환(...)/ 인천 남구 용현동여 성분만 지금 가(...)/ ★이천★비번1★놀자★이천★/ 시화~~대화가능한 여자분만~~방(...)/ 비1훈남 아찌좋아하는 서울여만 차유!/ 일산..일산..일산..쪽지여../ ☆충 남 동 거★  
 23) 신랑 출근시킨 신희새덕만~비2/ 학생~이리와봐..아저씨가 이빠서 (...)/ ★스색과의선생구함(여자만, 월80만)

【 표 4-1 】 성적 의도에 따른 채팅방 제목 분류 : 개수(%)

일시		온라인상에서의 성적인 대화 의도	오프라인 만남 의도	성적인 의도만 내포	계
2011.07.06 (수)	AM,11	53(17.43)	225(74.01)	26(8.55)	304(100)
	PM,3	61(16.66)	273(74.59)	32(8.74)	366(100)
	PM,7	53(10.55)	391((77.88)	58((11.55)	502(100)
	PM,11	64(10.99)	416(71.47)	102(17.52)	582(100)
	소계	231	1,305	218	
2011.07.07 (목)	AM,11	48(16.21)	216(72.97)	32(10.81)	296(100)
	PM,3	52((10.37)	403(80.43)	46((9.18)	501(100)
	PM,7	57((10.85)	417(79.42)	51(9.71)	525(100)
	PM,11	75(11.71)	467(72.96)	98(15.31)	640(100)
	소계	232	1,503	227	
2011.07.08 (금)	AM,11	36(12.50)	205(71.18)	47(16.31)	288(100)
	PM,3	54(16.98)	201(63.20)	63(19.81)	318(100)
	PM,7	68((13.00)	398(76.09)	57(10.89)	523(100)
	PM,11	81(12.38)	497(75.99)	76(11.62)	654(100)
	소계	239	1,301	243	
2011.07.09 (토)	AM,11	43(14.57)	215(72.88)	37(12.54)	295(100)
	PM,3	65(12.72)	387(75.73)	59(11.54)	511(100)
	PM,7	62(11.94)	401(77.26)	56(10.78)	519(100)
	PM,11	73(11.23)	501(77.07)	76(11.69)	650(100)
	소계	243	1,504	228	
2011.07.10 (일)	AM,11	39(13.17)	216(72.97)	41((13.85)	296(100)
	PM,3	79(11.73)	513(76.22)	81(12.03)	673(100)
	PM,7	81(10.65)	594(78.15)	85(11.18)	760(100)
	PM,11	86(11.19)	604(78.64)	78(10.15)	768(100)
	소계	285	1,927	285	
2011.07.11 (월)	AM,11	45(14.28)	223(70.79)	47(14.92)	315(100)
	PM,3	37(7.72)	406(84.75)	36(7.51)	479(100)
	PM,7	57(10.17)	452(81.78)	51(9.10)	560(100)
	PM,11	69(9.84)	558(79.60)	74(10.55)	701(100)
	소계	208	1,639	208	
2011.07.12 (화)	AM,11	36(12.50)	214(74.30)	38(13.19)	288(100)
	PM,3	43(11.02)	301(77.17)	46(11.79)	390(100)
	PM,7	48(10.21)	379(80.63)	43(9.14)	470(100)
	PM,11	62(8.68)	587(82.21)	65(9.10)	714(100)
	소계	189	1,481	192	
총계		1,627(11.71)	10,660(76.75)	1,601(11.52)	13,888(100)

전체 13,888개의 방 제목 중 ‘온라인상의 성적인 대화 의도’를 가진 채팅방 제목은 1,627개로 11.71%를 차지했고, ‘오프라인상에서의 만남 의도’를 가진 채팅방 제목은 10,660개로 76.75%, ‘성적 의도만 내포’하는 채팅방 제목은 1,601개로 11.5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Q사의 채팅방에서는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전제로 채팅을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Q사에 접속해서 채팅을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채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요일에 상관없이 시간대별로 오후 7시 이후에 ‘오프라인상의 만남을 의도’하는 방 제목이 많았다는 것을 통해 이러한 점을 유추할 수 있다.<sup>24)</sup> 밤 시간에 만나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대인 7시 이후에 채팅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요일에 상관없이 청소년들이 조건만남을 하기로 마음을 먹기만 하면 성매수자들을 쉽게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요의 공급은 가출 청소년으로 하여금 쉽게 성매매로 진입하게 하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잠재적 성구매자들의 수요는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풍부하다. 여기에 적극적인 성매수자들도 많다. 연구자가 ‘ㄱㄴ’라는 대화명을 가지고, 채팅방에 입장했을 때 1~2초 사이로 순식간에 날아든 ‘성매매 의도가 분명히 들어간 쪽지’들 때문에 황당하기도 했다.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 자체는 성을 판매하는 사람에게나 성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었다.

(조건만남을 하려면 만나야 하잖아. 네 말은 컴퓨터에서 구해야 하잖아) 방은 저희가 만들어요. (너희가 방을 뭐라고 만들어?) 뭐 가출했으니까 어찌고저찌고 써요. 방을 만들면 우르르 들어와요. (노랑)

또한 흥미로운 것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스마트폰의 주된 기능 가운데 하나인 ‘카톡(카카오톡)’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연결망의 구축은 한 번의 만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성매매를 원한다면, 적극적인 구인 과정 없이도 언제든지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대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실한 잠재적 수요자들이 있다는 것은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로부터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노랑은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성구매자를 구하지

24)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속을 하거나 모니터링을 할 때 어느 시간대에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못할 경우, 이전의 성구매자들 중에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구매 의사 여부를 물었다. 이처럼 확실한 잠재적 수요자층을 두텁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연결망은 큰 문제적 요인이다.

## 제 3 절 생존과 내몰린 자립

### 1. 경제적 욕구와 사회적 고립

가출을 한 후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는 질문에 바람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 갈 때라고 말한다. 돈이 없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돈을 다 써 갈 때 바람은 더 힘들다고 했다. 어디서 자야 할지, 어디서 씻어야 할지, 어디서 먹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불안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가출해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가 있어요?) 돈을 처음에 가지고 나왔는데 그 돈이 다 떨어져 갈 때쯤에는 불안해요. 어디서 자야 될까, 밥은 어디서 먹고, 나는 먹는 것 빼고, 씻고, 자는 거. 이런 건 딱히 어디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돈이 떨어졌잖아.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잖아. 어떻게 마련했어?)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빌리기도 하고, 계속 빌릴 수가 없으니까 미안하고 제가 아주 어린 것도 아니고, 이제 좀 사람들이 보기에 ‘재는 어느 정도 개념도 있겠지’ 하는 나이에 가출해서 그런 게 좀 미안하고 민망했어요 애들한테. 그때부터 노래방 도우미도 하게 된 거고, 조건만남도 하게 된 것 같아요. (바람)

집 밖 생활, 거리 생활에서 느꼈던 자유로움은 경제적 여유가 허락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또한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리에서의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가출한 애들이 술 먹을 때는 그냥 노상 까지 않을까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모텔 들어가서 술 게임 하지 않을까요. (햇살)

(생활비 얼마 정도 필요해요?) 과하게 놀 때는 20~30만원 정도. (하루에?) 네. (평소에는?) 평소에 적당히 몇 만원 정도요. (하늘)

햇살의 이야기처럼 돈이 생기면, 갈 수 있는 공간도 많아지고 할 수 있는 놀이들도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돈이 문제이다. 때문에 가출 청소년들은 뽕뜰기 혹은 앵벌이, 훔치기 등을 통해 돈을 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하루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장기화된 가출 생활을 지탱할 수는 없다.

또한 가출 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거리에 함께 있는 또래’밖에 없다. 가출 청소년들은 어떠한 긍정적 연결망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거리 생활을 하는 또래를 중심으로 형성된 연결망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가출 청소년들은 가족·학교·지역사회의 어떠한 안전망도 없는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단에 참여하며 살아가고 있다. 국가라는 큰 집단에서부터 가정이라는 작은 집단까지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수많은 집단에 소속되어 생활하고 있다(손승영·김용학, 1995: 30). 또한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자기 계발은 주로 집단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박광민·서정찬, 2004: 46). 그러나 가출 청소년들은 또래의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소속된 집단이 매우 단순했다. 거리를 나온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집단이란 그녀들 자신과 유사한 또래 집단뿐이었다.

Coleman(1990)은 사회 자본을 행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파악하고, 사회 자본의 개념은 그 기능에 따라서 정의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사회 자본이라는 것은 행위자가 그것을 활용하여 무엇인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특히 사회 구조적 특성이 있다. 여기서 사회 구조적 특징이란 사회 연결망을 필수적으로 상정한 구조적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다(신동준, 2010). 이러한 점에서 가출 청소년들은 어떠한 긍정적 사회적 안전망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2. 생존과 성매매

집을 나와서 돌아다녔는데, 진짜 돈이 없잖아요. 그럼 너무 불안해요(윤희)

가출 청소년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 중 하나가 ‘먹고 자는’ 생존 보장 체계의 붕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존 보장 체계의 붕괴는 가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공포와 불안 중 하나이지만, 실제 거리에서는 그녀들이 싸워야 하는 가장 커다란 문제이다. 어디서 자야 할지, 어디서 씻어야 할지, 어디서 먹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가출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생존의 문제를 거리에서 그녀들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



제3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거리 생활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녀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체계들과 멀어진다. 특히 부모와 멀어지고, 학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사회와도 단절되며, 사회 안에서 그녀들은 고립되어 간다. 때문에 청소년들은 거리에서 생활하기 위한 전략을 스스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녀들이 거리에서 생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아르바이트이다. 그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다. 그것도 지속적인 생활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그녀들은 아르바이트를 시도한다. 그러나 연두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특히 연두나 노랑처럼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힘들어요?) 네. 많이 힘들어요. 어려 가지고 잘 안 구해져 가지고. (알바 해 본 적은 있어요?) 옛날에 전단지 알바요. 전단지 하면서 다리도 몸도 힘든데 돈도 얼마 안 받아 가지고 (돈 얼마 정도 받았어요?) 그때 400장 정도 했는데 오천 얼마요. (연두)

(아르바이트 구해 보려고 해 본 적은 있어요?) 있었는데. 나이가 안 돼 가지고……. (언제 구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 가출했을 때도 구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자꾸 안 돼 가지고요. ‘고2 때 와라.’ 그랬어요. (너는 그때 몇 살이었는데?) 중2, 중3……. (중3이면 몇 살이야?) 열여섯. (열여섯.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와라 그랬구나. 그런 아르바이트는 중학교 때는 거의 구할 수 없네?) 그렇죠. 다 퇴짜 맞았으니까……. (노랑)

최근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청소년 노동의 규모도, 청소년들이 진입하고 있는 노동 시장의 범위와 성격도, 청소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감내해야 할 모욕과 고통도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청소년들이 생애 최초로 경험하는 노동이 대개 ‘밑바닥 노동’이라는 차가운 현실이다.

‘밑바닥 노동’으로 불리는 청소년 노동의 구체적 현실을 살펴보면, 청소년 노동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하는 초저임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동시에 상당수가 존엄과 건강을 위협하는 폭력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배경내, 2009)<sup>25)</sup>. 그런데 가출 청소년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밑바닥 노동조차도 거

25) 배경내(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최저임금인 4,000원에 못 미친 경우가 34%에 이르렀다. 또한 청소년들은 시간 외 수당을 주지 않거나 손님이 뜬 시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식을 강제하는 ‘찍기’가 일어나거나 대타를 구해 오지 않는 한 휴일이나 병가도 낼 수 없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부당하고 있다.

주유소는 4개월 했고, (شم) 좀 얼마 안 했어요. 차라리 주유소가 더 편해요, 저녁에, 고깃집도 얼마 안 했죠. 그거 보건증 떼어 오라고 계속 그러기에, 보건증 안 떼 갔더니 짜르더라고. 떼어 갈 수가 없죠. 솔직히. 그때 뭐 신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떼어 주잖아요. 신분증 안 갖고 오면, 안 갔죠. 주유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 배워 갖고 바로 하고, 그것밖에 안 했어요. 거기서 살면은 주유소 위쪽에 살면은 돈 조금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갖고 친구네에서 다니면서 친구한테 조금씩 돈 주고, (شم) 피시방 알바도 해 보고, 알바는 많이 해 봤어요. 안 해 본 거 없을걸요. 노가다도 뛰고……. 그리고 미사에서 일도 해 보고, 공장도 다녀보고, (공장?) 조건 하면서도 미사에서 알바 했었어요. 지하상가. (어디 지하상가?) \*\*. 그 민중 다른 사람 거 가져가 가지고 속여 갖고, 거기서도 4대 보험 들어 주잖아요, 꼴에. 그래서 그거 때문에 등본이랑 그런 거 떼어 오라 그러기에, 안 했죠. (침묵) 속여 갖고 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침묵) 알바도 머리가 있어야 하지, 사람 속여 가면서 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 사람인 척을 해야 되잖아요. 걸리면 경찰서 가고, (침묵) 그래서 거의 그런 거 필요 없는 조건만 하죠, 그게 제일 편하니까, 돈 쉽게 벌잖아요. 그거에 맞이 들린 거지……. 돈맛 들어 봤자 뭐해 내가 쓰는 건 얼마 없었는데. (분홍)

분홍이는 주유소에서 고깃집, 그리고 공장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이동했지만, 어느 공간도 분홍이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였다. 가출한 상태에서 일자리는 청소년들에게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다. 그러나 부모의 취업 동의서나 그 외 다른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이다. 분홍이의 예처럼 노동 시장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잠금장치가 있는 한정된 공간이었다.

당구장이나 PC방이나 그런 거 (당구장이나 PC방이나 그런 데는 미성년자들 잘 안 쓰잖아요.) 음~~~ 잘 써요. (그냥 시켜 달라고 하면 시켜 줘요? 부모 동의서 써와라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말은 안 했던 거 같아요. (한 시간에 얼마나 받았어요?) 하는 데마다 다른데 PC방이 제일 많이 받았던 거 같아요. 사천 원요. (구름)

구름이는 부모의 동의서 등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를 구했다. 물론 구름이의 예처럼 노동 시장의 잠금장치가 풀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를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구름이의 경우는 가출 청소년 중 유일하게 쉽게 일자리를 구한 경우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는 배경내(2009)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가 인간의 존엄과 건강을 위협하는 폭력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가출 청소년 대부분이 가출을 전후로 해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

다. 하지만 가출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전단지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일시적인 일자리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일자리는 가출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청소년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일반 학생들도 노동 시장에서 성인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조금주·정혜원, 2010).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구타, 폭언, 성희롱 등의 인권 유린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창남, 2004).

그런데 가출과 연소자라는 이중적인 변인을 가지고 있는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 학업 중단 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 및 지원 방안을 연구한 이경상·박창남(2006)에 따르면,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는 신분상 제약은 재학생에 비해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아르바이트 노동 시장에 노정되며, 상대적으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가출 청소년들 일부도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 대우를 경험했으며, 이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나보다 위사람한테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제 생각과 다르게 너무 화를 낼 때……. 네. 다른 때는 그냥 “이거 고쳐라.” 하면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똑같은 실수로 잘못했는데 불같이 화를 낼 때, 그냥 나가라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그랬어요. (바람)

정당한 대우를 안 해 줄 때 정당한 대우……. 기본 시급을 안 줄 때나, 너무 막 부러 먹을 때나 아니면 뭐 그런 거……. (햇살)

전단지 400장에 5,000원을 받은 연두, 최대로 받은 시급이 4,000원이라는 구름이처럼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출 청소년들이 거리 생활에서 필요한 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입원은 그 어떤 공간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4장 제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사회에서 어린 여성에 대한 성의 가치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가출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제한 요소가 되었던 연령, 가출 등은 그녀들이 성매매 시장에 진입할 때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여자들은 어차피 할 게. 남자들은 막노동이라도 하죠. 여자는 몸 파는 거 밖에 없잖아요. 여자들은 되게 안타깝고 남자들은 지 끌리는 대로 하라구 하고 여자들이 가출

했다고 하면 안타까워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몸 파는 거밖에 없잖아요. 돈 벌 수 있는 게……. (빨강)

빨강의 경험에 의하면 어린 여성이 집을 나왔을 때, 사회에서 허용하는 노동은 제한적이며 오직 성매매 시장만이 그녀들에게 열려 있었다.

그냥 쉽터……. 천안에 있을 때였거든요. 쉽터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 했는데 “답답하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도 원하지는 않았는데……. 솔직히 누가 하고 싶겠어요.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없으니까 하게 되고 애들도 같이 있는데 돈은 벌어야 하는데 알바도 쉽게 안 되고 잠 잘 데도 마땅히 없으니까…….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춤지 않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 의도 반 애들 시킨 거 반……. (남희)

남희 또한 거리에서 생활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알바도 쉽게 구해지지 않고 잠을 잘 곳도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성매매를 시작했다고 한다. 남희와 같은 가출청소년들이 생활을 위한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제한적이었다. 가출이 장기화될수록 경제적 어려움은 눈덩이처럼 커져간다. 그러나 집도 쉽터도 그녀에게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씻을 곳도 잘 곳도 없는 거리에서 남희는 살아남기 위해 조건만남을 선택했다.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빌리기도 하고, 계속 빌릴 수가 없으니까 미안하고 제가 아주 어린 것도 아니고, 이제 좀 사람들이 보기에 ‘재는 어느 정도 개념도 있겠지’ 하는 나이에 가출해서 그런 게 좀 미안하고 민망했어요. 애들한테 그때부터 노래방 도우미도 하게 된 거고, 조건만남도 하게 된 것 같아요. (바람)

가출 청소년들은 거리에서 스스로 생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스로 위협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 먹고살 수 있어야 한다. 바람은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생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거리에서는 자신이 먹을 것은 자신이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조건만남 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저도 인정한 애란 말이에요. 재는 진짜 걸레거든요. 개랑 같이 10시 넘게 PC방에 있었던 말이에요. PC방에 개랑, 나랑, 친구 한 명이랑 셋이 있었던 말이에요. 개가 진짜 몸매가 좋아요. 진짜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 갖고

그 남자가 밥 사준다고 오라고 해서 바로 가는 애예요 개는. 그런 거 보면 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뭐 쉬운 것 같아요. (구름)

구름이는 가출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성매매를 할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의 기회는 너무 쉽게 온다. 그녀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 제5장

## 성매매, 갈등과 변화

제1절 성매매 유인 요인

제2절 성매매로 인한 변화

제3절 탈성매매로 가는 전환점(turning point): 인식 전환의 계기

Women's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제 5 장 성매매, 갈등과 변화

집을 나온 청소년들에게 거리는 성매매를 선택하거나 성매매에 선택당하게 하는 기제들이 지뢰처럼 숨겨져 있는 공간이다. 자의든 타의든 그 지뢰를 밟는 순간, 가출 청소년들의 인생은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변화를 즐기기도 하고, 이러한 변화 때문에 갈등을 하기도 한다. 성매매를 선택한 청소년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어떤 갈등의 지점 때문에 탈성매매를 하게 되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 제 1 절 성매매 유인 요인

### 1. 버린 몸, 거리 생활의 풍요

원래 그거 안 그랬었거든요 진짜, 진짜 아파트 옥상에서 자고. 그런 거를 몰랐었는데. 친구가, 아 친구랑 동생이 그런 거죠. 자기 맘대로 세 명을 부른 거예요. [응?] 세 명을 부른 거예요. (세 명을 뭐했다고?) 부른 거예요. 자기들 남자친구라면서. 계속 굶을 때고 저희는 아직 그거잖아요. 00 동에 있었는데 여자애들이 있었는데, 해야 되는 상황인데, 썸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한테 시킬 수 없으니까 “아, 우리가 한다”라고 했는데, 도망간 거예요. (누가?) 개네. 남자들이. (남자들이 하고선 돈 안 주고?) 예예. 그래서 애한테도 상처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시킬 수 있냐, 너 땀에 우리는 몸 망가졌는데. 그래서 개네를 버렸어요. 버린 다음에 저희들끼리 있는데, 아~ 막장이잖아요. 더럽혀졌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한 번 한 거 두 번 못하겠냐 그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점점 돈 맛을 알게 되니까.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검정)

또래 남자들은 여성을 정숙한 여자와 정숙하지 않은 여자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정숙하지 않은 여자의 이미지에 가출 청소년을 투영시켰다. 가출 청소년들 또한 이러한 투영

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검정이는 “너 땀에 우리는 몸 망가졌는데. 그래서 개네를 버렸어요. 버린 다음에 저희들끼리 있는데, 아~ 막장이잖아요. 더럽혀졌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한 번 한 거 두 번 못하겠냐 그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점점 돈맛을 알게 되니까.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성매매를 지속하게 되었다고 한다. 검정이와 친구들은 이미 몸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체계로 강요되어 온 정절 이데올로기는 오늘의 성 자유화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추상적인 의미에서 성 개방이나 성의 자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막상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 검정이 또한 한국 사회의 많은 여성들처럼 자신의 성에 대해서는 ‘몸이 더럽혀졌다’라는 인식 속에서 자신을 순결 이데올로기 속에 옳아 매고 있었다.

(아냐 아냐. 잘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조금 힘든 거 물어봐도 되나? 처음 조건 하고 나서 기분이 어땠어? 뭔가 달라진 거 같은 느낌이 있었어?) 옛날에 어차피 옛날에 성폭행을 당했었어요. (분홍)

(첫 번째 성경험은 누구랑 한 거야?) 친척 오빠가……. (친척 오빠가 강제로 시켰어?) 아니요. 맨 처음에는 장난치다가……. 성관계를 한 거예요. (보라)

(어디에서 그랬어요?) 교회. 목사님 차. (얼마나 자주 그랬어요? 몇 번 정도 그랬어요?)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어떤 종류의 성폭행이었어요?) 성추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처음엔……. 하다가 마지막에 성폭행한 거죠. (성관계?) 네. (성희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옷을 입고 하거나, 옷을 벗겨서 하거나. (연두)

(옛날에 가까운 사람이나, 부모님이나, 학교 친구한테 학대당한 적 있어요? 맞거나, 아니면 폭력을 당했다거나 그런 거.) 네. 아는 선배들한테. (어떤 종류의 학대였어요?) 성폭력이에요. (성폭행 경험 있어요?) 있어요. (누가 성폭행했었어요?) 선배요. (언제쯤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몇 학년?) 1학년 아니 3학년 그 정도…….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3학년?) 네. (어디에서 그랬어요?) 학교에서요. (초등학교?) 네 (혹시 어떻게 성폭행했는지 자세히 물어봐도 돼요?) 놀다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성관계를 했어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늘)

가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성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성폭행은 분홍이처럼 조건 만남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조건만남을 쉽게 선택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제임스와 마이어딩(James and Meyerding, 1977: 1381)은 136명의 성매매 여성과 일반 여성 모집단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매매 여성은 일반 여성에 비해 문제가 있는 성 경험을 더 많이 보고하고 있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은 일반 여성에 비해 부정적인 성 경험을 더 많이 지니고 있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제임스와 마이어딩의 연구를 살펴보면, 가출 청소년들의 성폭행 경험이 이후 그녀들이 성매매로 유입되게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 시절 경험했던 성폭행 경험이나 성 경험은 그녀들에게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지니게 하고, 이러한 생각은 그녀들이 성매매를 좀 더 쉽게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버린 몸’이라는 순결 이데올로기가 생존의 욕구와 연합될 때,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지속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 요인이 되었다.

검정이는 아파트 옥상에서 덜덜 떨고 자다가, 성매매 이후 따뜻한 모텔, 시원한 에어컨 있는 데 있다 보니 계속해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때는 잘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그때는 잘 데, 그때는 잘 데가 너~무 급했으니까. 자고, 막 자기만 하고 라면 같은, 컵라면 같은 거만 사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로 이삼 일 버티고. 내면서, 돈 내면서. 그리고 우린 옷도 안 사 입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멍청한 거예요 생각을 해 보니까. “야, 옷 사도 되겠다.” [웃음] 이려고선 그때부터 옷 사고, 그 때부터 맨날 컵라면 먹었는데 “왜 우린 컵라면만 먹지?” 그게 깨닫게 어떻게 됐냐면, 어떤 언니가 돈 그렇게 한 담에 맛있는 걸 사 먹으러 갔어요. 그 돈으로. ‘우리가 왜 진작 이런 거를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이 사 먹었죠 맛있게. 그런 다음에 돈 맛을 알게 됐죠.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게 순진한 건지~ 아니면 단순한 건지~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구요. (검정)

검정이는 어느 날 성매매를 한 후, 맛있는 걸 사 먹었을 때 ‘왜 우리는 컵라면만 먹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옷도 사고 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돈맛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빨강은 일단 돈 맛을 알게 되면, 돈 맛을 잊을 수 없어서 그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연두는 돈 맛을 헤어 나올 수 없는 유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한번 노래방 도우미 했던 애들은 다른 일 못해요. 그 돈맛을 잊어버릴 수 없어서……. 하루에 오십 육십 벌잡아요 애들이. 시급 오육만원 벌어 봐요. 어째든……. 말이

그렇다는 거지. 노래방 도우미 했던 애들이 일반 일 하려면 못 해요. 힘들어서 못 해요. 아마 하루 일하고 안 할걸요. 힘들어하니까. 돈맛 느낀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노래방 도우미 할 수밖에 없어요. (빨강)

바다나 햇살의 이야기처럼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상품들을 이제 살 수 있게 된다. 거리에서는 많은 또래를 만나게 되고,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끌리지 않아야 한다. 때문에 돈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가 자신을 설명하는 소비사회에서 그녀들이 무엇을 사고, 어떤 차림을 하며, 무엇을 마시고, 어디에서 논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숙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생활이 곤궁한데도 불구하고, 화장품, 옷 등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사고 싶었던 화장품이나 옷 등을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돈을 쓰다 보면 계속 쓰고 싶고, 안 쓰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바다)

(돈맛을 알면 조건만남 그만두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돈맛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다는 거. (햇살)

이와 같은 소비의 필요는 가출하기 전에는 통제되었던 소비 욕구와 결합하면서 극대화된다. 가출이란 집 밖으로 나온다는 단순한 의미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청소년들을 통제했던 가정·학교 등 모든 성인들의 통제와 제재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돈만 있다면 자신들이 소비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통제 없이 소비할 수 있다. 짙은 아이라인도, 속눈썹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노래방에서 실컷 노래를 부를 수도, 밤새도록 술을 마실 수도 있다.

소비 욕구와 상품에의 욕망은 다른 십대 청소년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는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소비 욕망을 갖도록 자극하고 있으며, 소비 욕망에 대한 노출은 현대인의 일상에 깊이 침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 욕망은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데 반해, 그 충족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가출 청소년들은 이러한 소비 욕망을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거나 혹은 소비 욕망을 절제해야만 했다. 다른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부모에 의해 해결되지만, 거리에서 생활하는 그녀들에게는 소비 욕망을 충족시켜 줄 보호자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소비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그녀들의 선택은 무엇인가? 이 욕망을 어떻게 충족해야 할 것인가? 그녀

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게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거리의 멘토에 의해 그녀들은 여성의 육체가 교환 가치로 어떻게 환원되는지 인식하게 되고, 서슴없이 성매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주안에 있을 때는 맨 처음에는 생활비만 벌어 갖고 했던 말이에요. 근데 게임을 시작을 하니까지는 니미 아 진짜. 그때는 완전 또라이였다니까요. 게임을 시작하니까 정신줄을 놓는 거죠. 정신줄 놓고, 그니까 남자를 만나도, 이게 얼마다(웃음). 장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초폐인이었어요.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쩔 수 있냐고. 솔직히 생각해 보면 남자 노리개밖에 더 돼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술집을 정말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대행하면서 술집을 다녔어요. 술집 다니면서 (숨) 돈 벌죠. 그땐 아이온도 끊었으니까. 모을 생각을 안 하고 우린 또 막 사 먹을, 사 먹을 생각하고. 남자친구랑 뭐……. 그런 거 하다가 싸우고 여기 왔더니 또 좆나 막 멧한 거예요. (분홍)

분홍이도 다른 청소년들처럼 처음에는 생활비만 벌다가,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서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게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분홍이는 게임비 때문에, 또 다른 청소년들은 화장품과 옷을 위해 좀 더 많은 성매매를 하게 된다.

돈은 ‘권력’을 의미한다. 가출 청소년들은 돈을 쓰면서 ‘행복’을 느낀다. 그녀들은 자연스럽게 ‘돈의 힘’을 알게 된다. 돈만 있으면 무형 혹은 유형의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고, 자신들의 삶을 다양하게 주조할 수 있다. 일시적이라고 할지라도 안락한 잠자리도 얻을 수 있고,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하게 생활할 수도 있다. 이제 돈에 대한 가치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

저희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놓고 그래요. 있는 애들이 한 번 쓰면 그다음에 우리가 또 쓰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애들이 다 자유분방했어요. 돈에 관해서는, 다 쓰면 또 뭐 받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없었어요. (분홍)

분홍이의 이야기처럼 돈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더 이상 과거에 천원 때문에 고민하던 분홍이가 아닌 것이다. 이제 돈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고, 돈은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돈을 통해 가출 청소년들은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되고, 돈을 통해 성매수자와 강력하게 연결된다.

## 2. 성매수자에 대한 인식

청소년 성매매에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성매수자의 존재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매매 피해 당사자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성매수자에 대한 가출 청소년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본다.

(언니는 가끔씩 하고…….) 제가 생리할 때만. (니가 생리할 때만?) 네. (조건 하면 얼마 받는데?) 6만원. (조건 상대자는 언니가 구해 주고?) 네. (돈은?) 언니가 가지고 있고. (언니가 여관까지 데려다 주는 거야?) PC방에서요. (PC방에서 약속 잡아 주고?) 그다음에 남자가 오면 돈 받고 모텔이랑 이런 데 가서 하고 나오고 만약에 밤에 하면 하룻밤 잘 수 있어요. (넌 거기서 하룻밤 자?) 네. (그 남자는?) 그 남자는 그냥 가고 그 모텔에서 또 구하고. (그 남자 가고 나서 너 혼자 자, 언니 불러서 같이 자?) 같이 자죠. (그 남자들은 어떤 남자야?) 여러 명 만나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억에 남는 사람 있어?) 없어요. (나이는 많아?) 20대 초반, 중반. (보라)

보라는 성매수자에 대해 구체적인 기억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보라의 이야기처럼 여러 명을 만나서 구체적인 기억이 없을 수도 있고, 성매수자들이 가출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잊혀진 것일 수도 있다. 또는 조건만남이 가출 청소년들에게 큰 고통이기 때문에 성매수자들을 기억으로부터 지워버린 것일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출 청소년이 성매수자에 대해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는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매수자들이 가출 청소년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듯이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수자 또한 구체적인 인간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성매수자들은 그녀들에게 그녀들의 ‘성’을 사는 대상일 뿐이다. 성매수자들도 자신들이 가출 청소년들을 물상화시켰듯이, 그들도 청소년들에게 물상화되고 있었다.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수자들을 물상화하는 경향은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매수자에 대해 이중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너한테 말도 시켜?) 아니요. 그냥 조건만 하고 가요. (조건만 하고 가? 이름도 안 물어 봐?) 안 물어 봐요. (너도 안 물어보고?) 네. (말은 해, 안 해?) 가끔……. (가끔?) 먹을 거 사 줄까,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이런 거. (넌 뭐라고 해?) 됐다고 해요. (왜 됐다고 하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지 왜 안 해?) 미안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네. (뭐가 미안해?) 우리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라)

가출 청소년들 가운데 일부는 성매수자들을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았다. 보라는 성매수자가 먹을 것을 사 주겠다고 했으나 미안해서 먹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노랑은 성매수자를 자신이 힘들 때 돈을 주었던 사람으로 기억하기도 했다. 성매매 과정에서 성매수자들의 거짓 친밀감이나 경제적 보상 등이 가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수자들을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특히 노랑처럼 지적장애를 가진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특히 성매수자의 친절을 오해해서 성매매와 연애를 구분하지 못하기도 했다. 지적장애 혹은 경계성 장애를 가진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는 성매수자를 연애 상대로 오인하거나 친한 오빠, 아저씨로 여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이 행위가 성매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만난 오빠 혹은 아저씨와 만나서 놀고, 성관계를 하고, 약간의 금전적 도움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성매수자와 가출 청소년들 간에는 ‘성’을 기반으로 한 교환 가치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다. 성매수자의 경우에는 ‘성’을 구매한 것으로 그녀들의 모든 것을 구매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들의 감정까지도 구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가출 청소년들은 오직 성만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환 가치에 대한 간극은 성매매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너무 쉽게 돈을 벌잖아요. 사람들이 성매매를 하면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알바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덜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알바를 하면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성매매를 하면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의 10배는 더 받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 수치심도 참아야 하고, 이 사람의 강아지가 된 양 고분고분 말도 예쁘게 해야 되고, 이런 건 정말 사람들이 성매매는 안 좋은 거다. 재네는 다른 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성매매를 하는 거다. 뭐 이런. (바람)

바람의 이야기처럼 성매매를 할 때는 수치심도 참아야 하고, 강아지가 된 양 고분고분 말도 예쁘게 해야 하는 것 등 진정으로 느끼지 않는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가출 청소년들은 성매매 과정에서 감정적 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성매수자들은 그녀들에게 감정까지도 강제적으로 생산하게 한다.

## 제 2 절 성매매로 인한 변화

### 1. 행동의 변화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면, ‘거만해진다’고 한다. ‘거만해진다’는 의미는 이제 또래 남자들이 우습게 보이고, 남자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건만남을 통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되면, 가출 청소년에게도 돈이라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 거리에서도 더 이상 또래 남성들에게 기대어 살 필요가 없고, 성인 남성도 무섭지 않다. 가출 청소년들에게 또래 남성들은 이제 만만한 존재이며, 그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이다. 다시 말해, 또래 남성이 그녀들을 ‘쉬운 여자’로 보듯, 그녀들 또한 또래 남성을 ‘만만한 존재’로 보게 된다.

(그 친구가 조건을 하기 전하고, 조건을 한 후하고 변한 게 있어요?) 옷빡이 심해졌어요. (그게 뭐예요?) 가오 잡는 거. (어떻게 가오를 잡아요?) 일단 개가 그러기 전에는 뭘 믿고 그렇게 나대는지는 모르겠는데 애가 경험이 많아지고 보도 뛰고, 보도 뛰면 뭘수록 아는 남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 믿고 나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네. (본인한테도?) 네. 말하는 자체가 옷빡이 심했어요. (한 예를 들어 줄 수 있어요? 말하는 투라든가 그런 거. 단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일단 말하는 것부터 달라진 것 같아요. (구름)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경험은 그녀들의 행위들을 변화시킨다. 구름이의 이야기에 따르면 일단 또래가 성매매를 하게 되면서 ‘나대기’ 시작한다고 한다. 구름이는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가오’를 잡거나 ‘나대는’ 이유를 성매매 경험이 많아지고, 성관계를 많이 하게 되면 아는 남자가 많아지고 이러한 아는 남자들을 믿고 나대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친구가 아는 가출 청소년 중에서 성매매를 하는 친구들에게 특별한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기적 (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벌려고 했으면 자기 몸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좀 더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고, 되게 당당한 척하려고 그런 게 공통적으로 보여요. (성매매를 한 친구들은 당당한 척을 한다?) 네. (바다)



바다는 성매매를 하는 또래들의 다른 특징 하나는 ‘당당한 척과 이기적 모습’이라고 했다.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면, 일단 몸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당당한 척을 하게 된다고 한다. 남성뿐만 아니라 가출 청소년의 다른 동성 또래조차도 가출한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문란한 존재로 낙인찍고 있었다.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생활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출 청소년의 성적 규범이나 성생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큰 질타와 낙인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을 가출 청소년들은 더욱 잘 알고 있다. 때문에 그녀들은 당당한 척하지 않으면, 주변의 질타와 낙인의 현실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가출 청소년들은 다른 주변 또래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은 척하거나 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제일 듣기 싫은 말. 나 이런 말 진짜 싫다.) 쓰레기년, 걸레년, 창녀요. (그런 말 들어 봤어요?) 네. (누구한테 들었어요?) 애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혹시 그런 얘기를 왜 들었어요?) 몸 팔고 다닌다고. (그게 어디 소문났어요?) 몰라요. 어떻게 알았나 봐요. (연두)

연두는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쓰레기년, 걸레년, 창녀”라고 했다. 성매매를 한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주변으로부터 “쓰레기년, 걸레년, 창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빨강은 자신을 ‘걸레’라고 소문낸 또래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폭력 행위 때문에 지금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가출 청소년들은 당당한 척해야 한다. 당당한 척함으로써 비난을 극복할 수 있고, 그녀들이 지니고 있던 수치심도 숨길 수 있다. 가출 청소년들이 수치심이나 주변의 비난을 숨기기 위한 기제로 당당한 척하는 동안, 그녀들은 서서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한다. 가장 커다란 외적 변화는 외모에서 드러난다. 이제 그녀들은 남성이 원하는 대로, 욕망하는 대로 스스로를 가꾸어 간다. 1차적 시도로 화장을 하고 야한 옷을 입는다.

(옷 입는 거 같은 건 달라진 거 없어요?) 점점 치마가 짧아지고, 점점 윗도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굽이 높아진다는 거. (화장은?) 애가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화장을……. 아 예 셔클 렌즈도 안 끼고, 그랬는데 제가 개한테 렌즈 끼고, 화장을 한번 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다가 지가 보도 뛰고 화장품 사더니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라인이 관자놀이까지. (예뻐요?) 안 예뻐요.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진짜 안 예뻐요. 매력도 없어요. 날씬한 거 빼고는 별로. (구름)

(외모나 그런 쪽으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네. (어때요?) 다 머리로 길고, 화장하는 법도 다 거기서 거기고 진하고……. (화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더처럼 엄청 진하게 꼬리도 엄청 길게 그리고, 속눈썹 겁나 진한 거 붙이고, 쌍꺼풀 없는 애들 쌍꺼풀 만들고……. (웃은요?) 원피스 아니면, 치마 거의 다 치마 종류였어요. 바지 입는 애들 별로 못 봤어요. (바다)

구름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치마가 짧아지고, 윗도리가 없어지고, 머리로 기르고, 화장도 진하게 하면서 어떻게 몸을 이용하여 돈을 벌 수 있는지 인식해 간다. 그리고 그녀들은 돈을 번다. 돈을 잘 버는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간다. 남성의 관점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너무 쉽게 돈을 벌잖아요. 사람들이 성매매를 하면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알바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덜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알바를 하면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성매매를 하면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의 10배는 더 받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 수치심도 참아야 하고, 이 사람의 강아지가 된 양 고분고분 말도 예쁘게 해야 되고, 이런 건 정말 사람들이 성매매는 안 좋은 거다. 재네는 다른 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성매매를 하는 거다. 뭐 이런. (그런 게 돈맛이다. 쉽게 벌어서 쉽게 쓸려고 그런 거다?) 네. (바람)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은 성매수자들에게 강아지가 된 양 고분고분 말도 예쁘게 하고, 성매매를 위해 남성의 성적 욕망에 맞추어 자신을 인공화한다. 가출 청소년들은 서서히 남성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상품이 되어 간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성매수자 또한 그녀들처럼 인간이 아닌 또 다른 물화를 경험한다.

## 2. 신체적 변화

왜냐하면 PC방에서 그때는 버디버디 했죠.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PC에 들어와서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만나자고 그랬어요. 이 남자가 스물 몇 살이었어요. 제가 첫날에는 수원인가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남자 집에서 잤어요. 그날 성관계가 처음이었어요. 성관계가 처음이었는데요. 그게 처음이니까 처녀막이 찢어진 거예요. 피가 났어요. 저는 되게 아팠거든요. 처음에 하면 아프다고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한 게 아니라 그 남자 차에서 한 거라 너무 아픈 거예요. (예측하고 간 거야?) 예측은 못했죠. 그때는 성관계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오빠를 만나려고 간 거야?) 그래도 밥은 사 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밥 먹으려고 간 거야?) 네. 배가 고파 가지고……. (오빠가 “밥 사 줄게. 와.” 그랬던 거야?) 네. 그

했는데 아프고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너도 동의하에 한 거야?) 아니요, 저는 하기 싫었어요. 진짜. (말했어? 오빠한테 하기 싫다고 얘기했어?) 하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하니깐 저는 힘들었어요. 더구나 식은땀 짝짝 흐르고, 처음 하는 거니까 아프고……. 그 상황이 안 왔으면 좋는데 피가 흐르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밀쳤죠. 남자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 시간이나 반복했죠. 그러가지고 그 오빠네 집에 가서 잤어요. (노랑)

노랑의 첫 성매매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1:1의 상황이 되면 그녀들이 아무리 성관계를 거부한다고 해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관계 안에 폭력적 요소가 있든 없든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자체가 폭력이다. 정상적 체위라도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배려 없는 삽입 과정 그 자체가 폭력인 것이다.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체위를 요구한다거나 신체적 폭력까지 더해지는 경우도 많다. 가출 청소년들의 몸은 조건만남이라는 생활 속에서 점점 피폐해져 간다.

(성매매를 한 후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 어디 아픈 데가 생겼어? 성병이 생겼다든지, 질염이 생겼다든지.) 네. 그걸 하고 관뿔을 때 알았는데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이 그 일이었으니까 생활비가 떨어지면 해야 했으니까 잘 안 씻는 남자들도 많잖아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 적도 있고, 밑에가 따갑고, 쓰라리고, 냉이 엄청 많이 나오고 감당이 안 됐어요. (바람)

그때는 칼 가지고 상처 내는 게 다반사였어요. 요즘은 그런 것 안 해요. 병원도 다녔었으니까 그때는 짧은 거 입으니까 염증 생기고 차가워지니까……. 그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염증 생겨서 여기에서 병원 다니고……. 그때 몸 아팠던 것 때문에도 아직까지도 좋지 않아요. 그냥 가끔 가다 걷다가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비 오고 그러면 더 아프고, 쉽게 감기 걸리고, 이유 없이 열나고……. 가끔 가다 배도 아프고……. (남희)

바람과 남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매매를 경험한 가출 청소년들에게 질염과 같은 질환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가출 청소년들의 몸은 점점 피폐해져 가며, 건강도 나빠져 간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건강권,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문제이다. 청소년들은 실질적인 성행위에 있어서 자신의 몸의 변화와 피임에 대해 무지한 상태이다.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녀들의 신체적 건강을 침해하는 가장 문제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가출 청소년들은 콘돔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성매수자들이 싫다고 하면,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로서의 가출 청소년들은 이를 거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성매매 장소로 나오기까지는

성을 판매하는 청소년에게 주도권이 있었다면 일단 성매매 장소로 나와 1:1의 상황이 되면 성매수자에게로 이 주도권이 넘어간다. 즉 어린 여성이 성인 남성과 1:1 조건만남에서 단둘이 있을 때는 결국 성인 남성이 주도권을 쥐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출 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콘돔 사용을 거부당하게 되는 것이다.

(성매매 할 때 콘돔은 썼었어? 많이 썼었어? 아님 그때그때 달랐어?) 그때그때 달랐죠. 솔직히 쓰고 싶어 하는 애들이 어딴겠어요, 아무리 성인이라 그래도, 아무리 안 쓰고 밖에다가 쓴다고 해도, 밖에다 쓴다고 해도 안에서 피스, 피스핀, 피스톤?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러느니 그냥 안에다 싸라……. 근데 한번, 한 번인가 두 번 몇몇 사람들 빼고는 다 안 껴었는데 애기를 안 가졌었다는 건 대박이죠. (분홍)

분홍이는 성매수자의 대부분이 콘돔 사용을 거부했다고 한다. 성매수자가 콘돔 사용을 거부할 경우, 분홍이는 그냥 콘돔 없이 조건만남을 했다. 이처럼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콘돔 없이 조건만남을 진행하고 있었다. 콘돔 사용의 거부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위에서 서술했던 각종 산부인과 질환에서부터 신체적인 질환까지 다양한 질환들을 경험하게 한다.

(그럼 관계할 때 콘돔 같은 거 사용했어?) 아니요. 안 사용했어요. (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거 보여 주고 끼고 하자니까 하기 싫대요. (진짜?) 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안에다가 사정을 하면 임신을 하잖아요. 밖에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콘돔을 끼고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냥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할 때도 있었고 그래요. 좀 강제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노랑)

하지만 가장 커다란 건강상의 문제는 임신이다. 가출 청소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성과의 성관계는 여성에게 임신의 단계를 고민하게 한다.

(임신 안 했다는 건 애?) 일 년 반 동안 했는데 애를 한 번도 안 가졌다는 건 좀 그럴잖아요. 같이 살던 언니도 임신 한두 번 했어요. 일 년 반 동안, 그때는 제가 또 일해 갖고 애 지우고 그랬단 말예요. 솔직히 그 꼴 보기 싫어 갖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제가 임신을 해 있었던 거죠. (분홍)

오랫동안 조건만남을 하면 가출 청소년들은 임신을 하게 된다. 임신을 한 경우, 낙태

를 하기도 하고 출산을 하기도 한다. 출산을 결심한 경우에는 대부분 쉽거나 혹은 출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낙태를 하게 될 경우, 함께 생활하는 무리들끼리 해결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청소년들의 건강은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된다.

여기서는 산부인과 질환만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장기 가출과 성매매는 그녀들 몸 구석구석을 파괴화시킨다. 밤과 낮이 뒤바뀐 생활에서 가출 청소년들의 모든 신체 기능은 쇠약해진다. 특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치아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 3. 정신적 변화

성매매를 경험했던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 많은 수가 성병이나 각종 산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었다. 일부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의사도 처음 보는 복합적인 산부인과 질환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의사가 학회에 보고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처럼 그녀들이 경험한 신체적인 손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적 손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녀들의 정신적 변화이다.

그냥 힘들죠. 구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거기 나가면 나 꾸미는 것도 스트레스고, 내가 왜 이런 짓거리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것뿐이에요. 별 거 없어요.  
(분홍)

분홍이는 조건만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구매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화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힘들다고 한다. 심지어 남회는 성구매자를 만나는 동안은 ‘정신이 잠깐 나갔다’고 생각한다.

(혹시 조건을 하면서 외모적이거나 성격적으로 변한 게 있어?) 성격은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성격이 예민해졌어? 어떻게 예민해졌어?) 전에는 성격이 예민하지 않았는데 조건만남 하고나서 예민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막말을 할 때도 있으니까. 왜 집을 나와서 사서 고생을 하나……. (그런 말도 해?) 네~~~. 그런 말도 해요. 자기네는 조건만남 하면서……. 저는 그 상태에서 열 받잖아요. 성격이 예민해져요. (무슨 말을 해? 또 그런 말 말구?) 좀 많이 어리다. 솔직히 어린애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성격이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람맞는 경우도 있구나. 어리다고…….) 네. (노랑)

노랑은 조건만남이 성사가 되지 않을까 봐 성구매자를 만날 때마다 불안했다고 하며, 성구매자들의 막말은 그녀의 성격을 예민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어~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때 여기서 심리검사 받고 나간 거예요. 근데 결과는 나왔는데 제가 사라진 거잖아요. 결과도 못 보고. 아~ 병원에 간 거예요. 입원을 했어요. 근데 전 영문도 모르잖아요. 너무 무섭고 갑갑한데 갑갑하고 애들이 인제 연락도 안 되고 애들이랑 그러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 들어 보니까 우울증이었다고. 그래서 입원해서 육 개월 동안 있었어요. (하양)

하양이는 우울증 때문에 쉼터에서 심리검사를 받았고, 심리검사를 받고 쉼터를 나갔다가 다시 쉼터로 돌아와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조건만남 하고 난 뒤에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생긴 변화가 있어요?) 아니요. (외모나, 성격이나, 친구 관계나, 외모가 어떤 스타일로 변했다든지, 친구 관계가 달라졌다든지, 성격이 변했다든지) 성격이 좀 더러워졌어요. (조건만남 하면서?) 네. (전에는 어땠는데 어떻게 됐는지) 전에는 착했다면 그 후에는 성질 잘 내고, 그 전에도 성질 내고, 화도 내고 욕도 하고 그랬는데 더 심해졌어요. (바다)

이처럼 가출 청소년들은 성매매 이후 자신의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분홍이처럼 스트레스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노랑처럼 예민해진 경우도, 하양이처럼 우울증에 걸린 경우도 있었다.

#### 4. 성적 지향과 성적 욕망에 대한 고민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성과 남성의 성은 서로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의 성을 구성하는 특징 중 하나가 수동성이다. 여성의 성적 수동성은 단지 성관계 행위에서의 수동성뿐만 아니라 성적 욕구에 대한 표현이나 쾌락 추구의 억제 등 궁극적으로 성적 자율성의 결여를 의미한다. 남성의 성은 능동적이고 여성의 성은 수동적이라는 이중적 구조 안에서 한국 사회의 어린 여성들은 성적 욕구가 없는 무성적 존재로 인식되곤 한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무성적 존재인 청소년들이 거리 생활을 통해 ‘자신의 성’에 대해 타의적으로 사고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성인 남성과 또래 남성으로부터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녀들은 타의에 의해 ‘성’에 대한 고민을 요구받는다.

거리에서의 ‘여성성’이란 무엇인가? 그녀들은 무성적 존재에서 ‘성적 주체’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녀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적 욕망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거리로부터 얻었다.

(그러면 자기가 핑<sup>26</sup>)인 걸 알고 힘들었던 적 있어요) 아니요. 힘든 적은 없어요.(그러면 내가 핑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아니면 내가 확실한 핑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나중에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헷갈려요. 지금은 헷갈리는 수준. (하늘)

(지금 핑이죠?) 네 (자기가 핑인 걸 어떻게 스스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거의 반반이에요.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했었는데, 여기 들어와서부터 누구 한 사람으로부터 계속 애인 데리고 애인 사귀고 지 좋아하고, 여자도 사귀고 여자 좋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완전히 이쪽으로 굳어졌고, 남자보다 훨씬 나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 남자보다 낫죠?) 남자는 그냥 말하자면 거지 같아요. (어떤 게 거지 같은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네들 편한 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여자들 생각은 하나도 안 해 주고, 여자들 상처 주는 말 많이 하면서. 지네들은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자기들만 좋은 말 들으려고, 자기랑 같이 다닐 때 자기가 안 쪽팔리게 그런 애만 데리고 다니고, 그런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 싫어요. 거지 같아요 그냥. (여자들이 좋은 점?) 남자랑 차원이 다르니까. 나와 같으니까. (나와 사귀는 핑 친구들 애인 그런 사람들은 나와 비슷하다?) 비슷하고, 서로 여자 여자끼리니까 서로 마음 이해할 수 있으니까 편하고……. (가출했을 때 핑이어서 힘들었던 거 있어요?) 가출했을 때는 핑 아니었어요. 그냥 반반이었어요. (그때 여자 사귀는 적 있어요?) 가출했을 때 여자 안 사귀었는데. (혹시 가출 카페나 그런데서 소문나서 아웃팅 당한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바다)

하늘처럼 아직도 자신이 동성애자인지 혼란스럽지만, 이제 그녀는 ‘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숨겨진 문화(sub-culture)’로 인식되고 있다. 자유로운 공간인 거리에서는 이성애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사회에서 숨겨져 있던 문화인 동성애가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기의 동성애적 충동은 일과성일 가능성도 있다. 누가 그들을 동성애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그들 스스로가 동성애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들을 동성애자라고 할 수 없다. 가출 청소년들이 동성애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행위일 뿐 그들이 동성애라는 직접적인 징표는 아니다. 빨강은 자신의 남자친구만 빼고 남자들은 병신이라고 이야기한다.

---

26) 동성애

(너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남자.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남자를 한 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병신. (병신……. 남자친구랑 지금 사귀잖아. 남자친구는 남자잖아.) (빨강)

남희는 성관계가 더럽다고 말한다. 이처럼 남성에 대한 상처를 가진 가출 청소년들에게 ‘동성 또래의 따스한 위로와 사랑’이 그녀들로 하여금, 성적 지향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 지향에 대한 고민에 대해 거리는 개방적이다. 거리는 다른 공간에 비해 ‘성적 지향과 관련된 고민’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적인 자유가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성적 자유의 공간’에서 일부 가출 청소년들은 ‘동성 또래의 따스한 온기’를 ‘동성애’와 관련하여 고민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남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혹은 동성애자들의 무리에 있다고 해서 모든 가출 청소년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 (확실히 “나 땡이다.” 선포한 적 있어요?) 여기서 처음이에요.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주위 사람들 땡인 거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잘 안 어울리려고 그럴 것 같아요. 이해 안 하는 사람들은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네. (바다)

바다는 심터에서는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힐 수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에서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힐 수 없을 것 같다고 한다. 이처럼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동성애자들에게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거기 애들이 레즈가 많으니까. 드럽잖아요. 좇나 드러워요. 진짜. 그니까 제가 동성애자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좋거나 싫거나 그런 걸 따지기도 좀 그래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근데 거기 애들은 진짜 더러웠어요. 저녁마다 아, 진짜. 대박이에요. 지네 방 들어가서 문 잠그고. 그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저녁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잘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옆방에서 막 신음하는 소리 들리고 그래요. 아, 또라이들 또라이들. 그런데 지금도 동성애자가 막 그러면 그런 거 상관없는데, 진짜 더럽게 사귀어요. 아후. (심) 그 포켓볼 치는 데 있단 말이에요. 포켓볼 치고 있는데 개네가 와 가지고는 옷을 벗어요. 아 드러워 죽겠어. 그 이후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다구요. (분홍)

또한 분홍이처럼 또래 내부에서도 편견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성매매를 통해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만으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거리는 그녀들의 성적 지향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 줄 뿐이다. 또한 거리에서의 성매매 경험은 가출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적 욕망에 대해 솔직해지게 만든다.

### 제 3 절 탈성매매로 가는 전환점(turning point): 인식 전환의 계기

엘더(Elder, 1998)는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을 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전환점을 가지며, 그 기회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원의 질과 양,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종류, 또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됨에 따라 개인적 차원의 인생 궤적(life trajectory)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정혜원, 2010 재인용). 또한 M nsson과 Hedlin(1999)은 탈성매매의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점(turning point)을 환기적(정신을 차리게 되는) 사건, 정서적 상처(트라우마)의 경험, 긍정적 인생 사건으로 구분하였다<sup>27)</sup>.

가출 청소년들도 그녀들이 지니고 있는 자원의 질과 양에 따라 성매매를 중단할 수 있는 변화의 고리를 지니고 있었다. 물론 똑같은 사건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자원의 질과 양에 따라 어떤 가출 청소년에게는 변화의 고리이며, 인식 전환의 기점이었다. 그러나 어떤 가출 청소년에게는 또 다른 일상의 평범한 사건일 뿐이었다.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그만둘 수 있는 변화의 고리가 될 수 있는 인생 사건(life event)으로는 성매수자의 폭력, 임신이나 건강 문제, 쉼터나 캠프, 긍정적인 지지자의 존재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인생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가출 청소년들을 ‘성매매’에 대해 갈등하게 된다. 물론 인생 사건들 중 하나만을 경험한 후에도 탈성매매의 과정으로 들어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Vanvesenbeeck(1994)의 연구 결과처럼 많은 경우 성매매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상호작용하여 여러 가지 단계에 걸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위에 열거한 인생 사건들은 가출 청소년들의 성매매 과정에서 탈성

27) 여기서 환기적 사건이란 성매매를 하게 된 지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정신을 차리게 하는 사건들을 의미한다. 정서적 상처(트라우마)의 경험은 힘들거나 폭력을 당한 경험 등을 의미한다. 긍정적 인생 사건은 사랑에 빠지거나 임신, 취업 혹은 다른 가능성 등을 의미한다.

매대로 이행할 수 있는 갈등적 요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인생 사건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성매수자의 폭력’이 있다. 성매수자에 의한 폭력은 물리적 폭력, 비정상적인 체위 요구, 그리고 정상적 체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성행위로 나눌 수 있다. 실제로 정상적 체위라고 하더라도, 조건 만남의 경우 성행위 시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배려가 없기 때문에 삽입 과정에서 자궁경부에 극심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하나의 폭력이다. 가출 청소년들이 조건만남 과정에서 겪게 되는 성매수자에 의한 폭력은 그녀들에게 조건만남이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성매매를 하는 동안 폭력이나 이상한 요구를 당해 본 적이 있어?) 네. 일대일 했을 때요. 흔히 SM 이라고 눈을 감기고 하거나, 손을 묶고……. (바람)

(성매매 할 때 이상한 요구 받아 본 적 있어요?) 대딸 처 달라는 거, 다리 벌리고 앉아 있으라는 거. (그냥 앉아 있으라고?) 네. (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SM 하려고 무슨 도구 사용하려고 하는 분. (도구? 어떤 도구요?) 때리는 도구, 이상한 거 넣으려고 하는 분. (이상한 거 어떤 건지 기억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무인 거 플라스틱인가 크고 긴 거 넣으려고 하셨어요. (소라)

바람은 SM이라고 하는 눈을 감기고 하거나 손을 묶고 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요구받아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소라의 경우에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질에 도구를 넣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성매매 과정에서 성매수자들의 직접적인 폭력이 일어나곤 한다. 이러한 일은 비정상적인 성매수자들과 조건만남을 하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일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성매수자들의 폭력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 내고, 그녀들로 하여금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 내게 한다. 그 대안의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무리’이다. 가출 청소년들은 무리를 구성해서 함께 행동하면, 안전장치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리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조건만남의 과정에서는 가출 청소년과 성매수자가 1:1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가출 청소년들에게 무리는 직접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

(조건만남을 할 때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되는데 이런 건 안 된다는 행위가 있어요?) 아니요. 그건 그 사람들이……. 저는 하기 싫는데 그 사람들이 억지로 해요. (하기 싫는데 억지로 한 거 어떤 거 있어요?) 도구 같은 거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런 식이에

요. (다른 거 또 있어요?) 때리는 거요. (맞은 적도 있어요.) 네. (어딜 어떻게 맞았어요?) 뺨을 맞은 적도 있고, 주먹이나 발로 차인 적도 있어요. (성관계하는 중에?) 네. (또 정말 싫고 하기 싫은 거 있어요?) 별로 없었는데 성매매 자체가 하기 싫었어요. (소라)

그런 성폭행은 많이 당해 봤어요. 한번은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무서운 거예요. 신고하려고 진술서하고 다 썼는데 형사 손에 넘어갔는데, 거기 나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는데도……. 다시 나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때 이후로 남자들……. 처음 조건 할 때부터 남자들 싫어했기 때문에……. (남희)

소라는 성매수자의 폭력을 경험하고 성매매를 하기가 싫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성매수자의 폭력을 경험한 가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끼는 감정이다. 이러한 감정이 지속될 때 탈성매매를 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임신과 건강 문제’를 들 수 있다. 성매수자들의 폭력이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중단해야겠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다면, 임신이나 건강은 가출 청소년으로 하여금 그녀들을 보호해 줄 시설을 찾게 하는 계기를 만든다. 보라는 자신이 스스로 쉼터를 찾아왔다. 조건만남에 대한 강요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쉼터를 찾아왔다고 했다.

(조건만남을 안 하게 된 이유는 뭐야? 두 번 하고 그 이후로는 안 한 거잖아.) 네. (누가 더 이상 하지 마 그랬어?) 아니요. 스스로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을 왜 했어? 나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특별하게 있어?) 하니까 몸이 안 좋아서. (조건만남을 하고 나서 몸이 더 안 좋아져서.) 네. (몸이 어떻게 안 좋아졌어?) 배도 아프고 출혈도 심해지고……. (그래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 거야?) 네. (파랑)

파랑은 건강 때문에 조건만남을 그만두었다. 파랑은 배가 아프고 출혈이 심해서 더 이상 조건만남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현재 파랑은 쉼터에서 자궁암 검사에서부터 산부인과 관련 검진을 받고 있으며, 자신이 암에 걸렸을까 봐 하루하루가 걱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건강과 임신은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중단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분홍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분홍이도 함께 생활하던 또래가 떠난 뒤, 임신한 상황에서 갈 곳이 없어 쉼터를 찾아왔다고 했다.

(성매매 그만두는 자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쉼터요. [... 중략] (시설에 입소하는 게 조건만남 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도움 돼요. (약간 도움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야기해 줘요.) 쉼터에서 나가거나 외출하면 약간의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 할 때도 있어요. (쉼터에 있으면서 하러 나가고 싶은 적이 있어요.) 있긴 하죠. 근데 외출 금지라 못 나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외출하면 유혹을 참기 힘들다.) 그렇죠. (연두)

연두처럼 쉼터는 거리에서 유혹을 뿌리치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이 쉼터를 통해 거리의 유혹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탈성매매 과정에서 ‘시설’은 이처럼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김인숙(2009)은 그녀의 연구에서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들의 자활 과정에서 시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물론 가출 청소년들의 일부는 쉼터에서 잘 적응하여 성매매를 벗어나는 단계에 있기도 했지만 일부는 쉼터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경험하거나 이러한 갈등의 과정에서 쉼터를 나가 거리 생활을 계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모든 가출 청소년이 쉼터에 적응하고 탈성매매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쉼터가 가출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고 위협할 때 찾는 마지막 공간이라는 점,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의 인생에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김연주(2010)는 쉼터를 사회적 돌봄의 대안적 공간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자립을 넘어 총체적인 삶의 과정으로 확장된 자활의 개념으로 ‘쉼터’를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쉼터는 가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삶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세 번째는 경찰의 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입소하게 되는 ‘쉼터’나 ‘청소년 성장 캠프’가 탈성매매를 위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가출 청소년들에게는 경찰의 검거,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해 거리라는 환경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거리라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서 경험하게 되는 ‘쉼터’, ‘청소년 성장 캠프’ 자체가 탈성매매로 진행하게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청소년 성장 캠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치료·재활 교육을 실시하여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과정이다. 현재 중앙 1개소 이외 전국에 10개의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때는 진짜 병신같이 생활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급급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막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몸 팔면 돈 많이 벌 거 같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꾸며야 돼요. 그만큼 꾸며야 되고 그만큼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잘 버는 거만큼 막. 맨날 빚만 늘어나잖아요. 그게 그거 같애요. 거기서 먹고 자고. 맨 처음 들어갈 때 그리고 막 옷 사 주고 막 화장품 사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빚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 거 불러 가지고. 다방에서 일도 해 보고……. 그런 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팔려 다니죠.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저거 되는 건데……. 그 3~4만 원 때문에 빚 더 생기고. 하루 자는 만큼 또 얼마씩 받잖아요. 티켓 끊고 그러면. 그러면은……. 진짜 위기교육 가 갖고 정신을 조금 차렸었어요. 거기에서 막 팔려 다니는 사람들이랑 얘기도 해 보고……. 형사가 또 구제해 주잖아요. 막……. 또 들어가는 건 돈맛 들어서 들어가는 거고. 여기 있던 사람도 한 명 그랬대요. 옛날에.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핸드폰 하나 때문에 또 들어가고. 가면 막 핸드폰 해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또 여기서 나오고 거기 들어가고……. 처음엔 돈 맛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었어요, 진짜. 한두 번이야 즐기죠……. 그 언니는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을 건데. (분홍)

(성매매 그만두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캠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성장 캠프.

(이번에 갔다 왔죠? 대구에…….) 네. 그런 걸 보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어떻게 하나 보여 주고, 되게 공감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아 진짜 저건 아니다 싶은 것도 많고, 그런 걸 보면 조금은 하고 싶지 않을까요. (햇살)

(청소년 성장 캠프 받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다시는 이 일을 안 해야겠지만 유혹 넘어 갈 것 같아요. (캠프는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교육 있어요?) 있죠. 많죠. (어떤 거요?) 워크숍, 쿠키 체험, 푸드테라피, 공예.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푸드테라피나, 쿠키 체험 같은 거는 제가 꿈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교육 기억나요?) 그렇죠. (성교육 내용은 어땠어요?) 안 봤던 거 자세히 알고, 알았던 건 알아서 좋았어요. (연두)

분홍, 햇살, 연두는 위기 청소년 교육을 통해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청소년 성장 캠프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좋았지만, 성매매에 대한 인지를 재구조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의미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탈성매매 여성과의 대화를 통해 성매매 결과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동일시 대상의 탈성매매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접함으로써 탈성매매를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네 번째로 주변의 긍정적 지지자들이 탈성매매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남희의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남희의 남자친구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는 것을 싫어해서, 남희는 노래방 도우미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이처럼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타자가 존재한다면 그녀들이 성매매로부터 벗어나는 데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베르너와 스미스(Werner and Smith, 199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최소한 한 명의 성인과 집중적이고 신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신감 넘치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정혜원, 2010).

# 제 6 장

## 정책적 제언

제1절 1단계(가출 이전 단계) : 예방

제2절 2단계(가출 이후 성매매 진입 직전까지) : 초기개입과 보호

제3절 3단계 : 탈성매매를 위한 사후지원

Women's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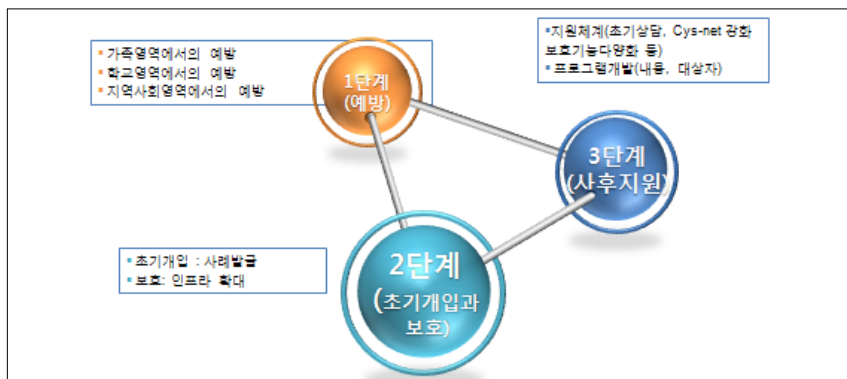


# 제 6 장 정책적 제언<sup>28)</sup>

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는 한국 사회에서 잘 숨겨진 성학대의 한 형태이며,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을 단순한 ‘피해자’ 혹은 ‘비행자’가 아닌 ‘학대의 생존자’로서 응시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정책도 ‘학대의 생존자’로서 이해되고, 그들의 인생과정에 따른 정책과 개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어떤 청소년 개인들이 왜 성매매를 했느냐보다는 개인들이 어떻게 생애과정에서 성매매로 유입하게 되었는지 그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구조적 맥락을 주시해야 한다. 성매매를 어떻게 시작, 지속하고, 중단하는지의 궤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효과가 있을 지를 고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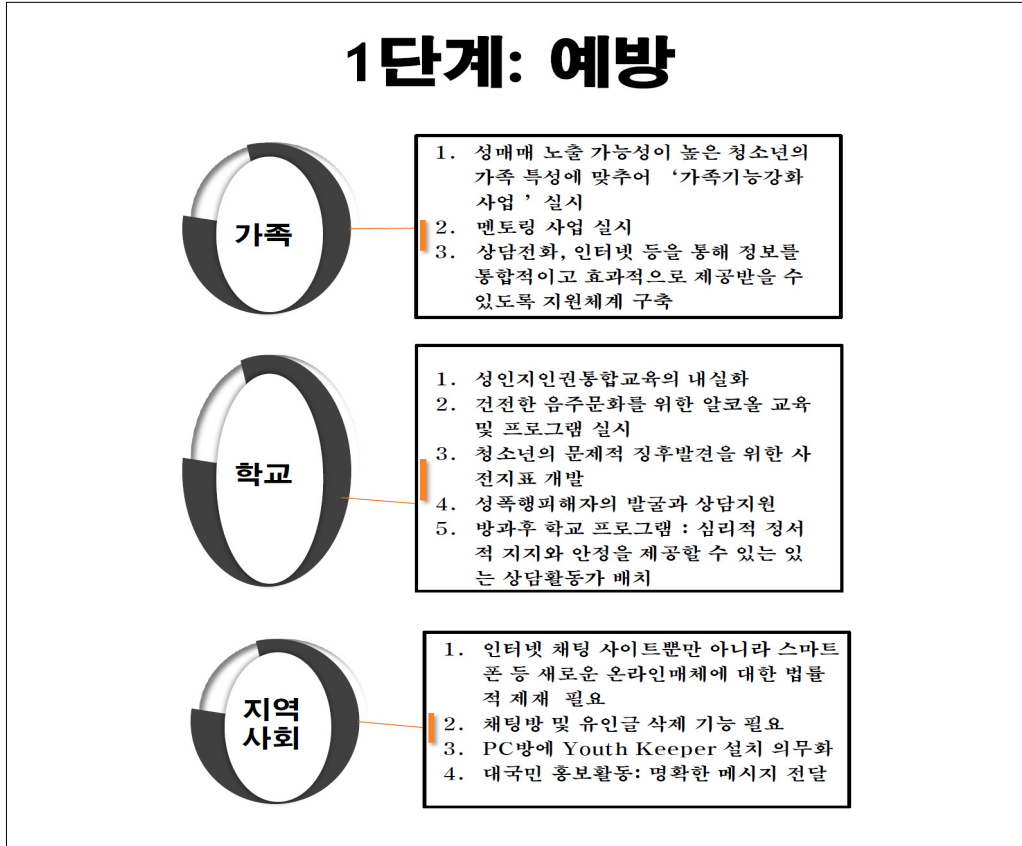
때문에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 예방 및 지원방안은 개입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그림 6-1)와 같이 개입시점을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안하고자 한다. 1단계는 가출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 2단계에서는 가출 이후 성매매에 유입되기 직전까지의 단계에서의 초기개입과 보호, 3단계는 탈성매매를 위한 사후 지원이다. 이렇게 단계적 접근 방안으로 접근할 때, 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하고 관련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처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림 6-1】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정책적 제언

28) 정책적 제언은 면접조사와 델파이조사 그리고 자문회의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 제 1 절 1단계(가출 이전 단계) : 예방



┃ 그림 6-2 ┃ 가출이전 단계에서의 예방

### 1. 가족영역에서의 예방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가정은 '폭력과 무관심의 공간'으로 그녀들을 보살필 수 있는 최소의 기능도 상실하고 있었다. 더 이상 그녀들에게 가정은 개개인의 안전, 건강한 성장, 행복의 진원지는 아니었으며, 그녀들은 '폭력과 무관심의 공간'인 집으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가족으로부터 학대와 빈곤으로 인해 방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족 기능 강화」는 매우 중요한 예방책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기능강화사업」을 저소득계층

에 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규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부모 상담이나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든지 혹은 지역사회 내 가족지원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원을 확대하든지 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폭력 및 방임 가정을 발굴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시스템’이 지역사회 내부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가족을 대신하여 청소년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보호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지지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은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목적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sup>29)</sup>.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 성매매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사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sup>30)</sup>.

셋째, 대부분의 부모들이 부모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많은 수가 이를 위한 지원을 받고 싶어 한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으로 모든 부모가 상담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부모들은 문제가 발생하여 악화되기 전에 지원 및 자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되며, 동시에 부모들은 집에서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현장 전문가들은 이렇게 축적된 정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다른 부모와 사례를 공유하고,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 2. 학교영역에서의 예방

알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위협한 것은 없다. 모든 청소년들은 반드시 자신의 안전과 평등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개인, 사회, 건강 차원 교육과 같은 자기계발을 위한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간이 학교이다. 또한 한국 사회의 학령기 아동·청소년들의 일과는 학교에서 시작되어 학교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29) 미국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목적에 따라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전국적인 규모로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사업은 미국소년사범과 비행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이하 OJJDP)의 Juvenile Mentoring Program을 예로 들 수 있다.

30) 국내의 경우 구조화된 멘토링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1997년 서울시교육청의 주관으로 학교사회사업시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된 청소년 결연프로그램이다(유성경 외, 1999; 이현주·박현선, 2009 재인용). 그 이후 멘토링 프로그램은 최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영역을 확장하며 확대되고 있다(이현주·박현선, 2009).

(정혜원, 2010).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배제되어 있었다.

때문에 청소년들을 학교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매매로의 유입을 방지하는 1차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면 청소년 성매매를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첫째, 학교에서는 성인지 인권통합교육을 내실화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은 ‘성(性)’에 대한 개념의 부재로 인해 성학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성적 욕망이 혼합된 놀이를 통해서 왜곡된 ‘성(性)’을 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성매매피해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을 내실화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 지역사회, 학교, 가정이 함께 청소년들의 성건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알코올과 관련된 교육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Youth Matters<sup>31)</sup>를 통해 청소년들은 마약 및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물론이고 자신의 성관계와 성건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출청소년들이 가출이전부터 알코올을 섭취하고 있으며, 성매매유입과정에서 혹은 성폭행과정에서 알코올이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출청소년들의 경우 일부는 성매매의 수치심을 억제하기 위해 알코올을 이용하기도 했고, 거리생활을 하다 남성포래와 술 마시고 놀다가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알코올은 청소년 성매매와 성폭행 과정에서 Push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알코올 문제 자각 프로그램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알코올 문제 자각 프로그램은 알코올 남용이 개인들을 더 많은 위험에 빠뜨리고, 성매매에 유입되게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물론 서구처럼 마약이나 알코올을 구입하기 위해 성매매에 유입되는 청소년들은 없다. 그러나 알코올이 성매매 혹은 성폭행과 관련하여 주요한 Push요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셋째, 학교는 청소년의 문제적 징후를 가장 먼저 판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때문에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의 징후를 먼저 판별할 수 있는 사전지표를 개발하여,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31) *Youth Matters* (CM 6629), 2005

예를 들면 무단결석과 같은 지표가 있을 수 있다. 정혜원(2011)에 의하면 가출과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약 90% 이상이 무단결석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무단결석은 성매매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무단결석예방활동에 부모들을 포함시켜 ‘숙제 핫라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학교에 권고하고 있다. 교사-학부모 소통을 증대하여 무단결석과 같은 문제적 징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처럼 사전예방의 차원에서 문제적 징후를 판별할 수 있는 사전지표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사전지표개발을 통해 예방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들의 가출에서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심리적 부모’의 부재이다. 이에 가족형태의 변화와 다양성의 측면에서 볼 때 ‘심리적 부모’의 개념을 공동체, 사회 안건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상담하도록 ‘심리적 부모’(문제학생에 대한 상담이 아니라 아동들의 일상생활을 점검, 지원 및 지지)를 배치하여 가족 내에서 미흡한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안정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이 관심과 보살핌, 소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지역사회영역에서의 예방

#### 1)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제재 및 장소에 대한 개입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청소년 성매매의 주된 유입경로가 인터넷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박경래; 2007, 성윤숙, 박병식, 2009; 홍봉선·남미애, 2010; 정혜원, 2011), 이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하는 주요한 통로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에 청소년 성매매 유입통로로서 인터넷에 대한 단호한 전략이 중요하다.

첫째, 청소년 성매매의 유입경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비롯하여 최근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각종 이성교제 사이트(만남사이트)까지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온라인 매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적 제재가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으로 청소년을 유인하는 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와 단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처벌의 확실성과 엄벌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성매매를 유포하는 내용이나 관련 채팅방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로서 ‘삭제’를 제안한다. 이에 대해 최근 독일에서는 성매매 및 성폭력 유포와 관련하여 인터넷 사이트 차단<sup>32)</sup>에 부정

32) 1. 인터넷 사이트 차단 시스템은 유포 통로인 월드 와이드 웹만 제한하며, 다른 결정적인 유포 통로인 포레-네트워크, 폐쇄된 포럼, 이메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2. 합법적인 인터넷 제공까지도 부분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 3. 이러한 조기 경고 시스템이 오히려 인터넷 차단자들에게 범죄를 일으키도록 유혹한다.

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아동과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을 유포하는 효과적으로 반대하는 방법으로 ‘삭제’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삭제’라는 방식을 차용하여, 인터넷공간에서 구체적인 청소년성매매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의도하는 채팅방 및 유인글들을 해당사이트에서 삭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출한 청소년들의 30%이상이 가출 한 후 거주하는 장소가 PC방이다(정혜원, 2011). PC방은 가출청소년들의 거주공간이자 놀이공간이며,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로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공간이기도 한다.

현재 PC방의 영업시간을 규제를 통해 10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의 PC방 출입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PC방 영업시간 출입규제는 청소년성매매를 예방하기에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성매매의 경우 온라인상에서는 요일에 상관없이 오후 7시~10시 전후로 성매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출청소년들이 근거지에 위치한 PC방 등 유해 환경들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규제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성매수 신고 프로그램인 “YOUTH KEEPER” 프로그램을 PC방 컴퓨터에 설치를 의무화하여, PC방에서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대국민 홍보 : 명확한 메시지 전달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또래남성이나 성인들로부터 다양한 형식의 간접 폭력을 당하고 있다. 특히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성에 자유로울 것이라는 생각’은 한국사회의 순결이데올로기속에서 그녀들을 낙인화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그녀들은 청소년성매매를 개인적 차원 선택으로만 치부하는 사회적 통념속에서, 청소년비행자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낙인과 통념은 그녀들로 하여금 성매매에 유입하게 하거나 성매매를 반복하게 하는 주요한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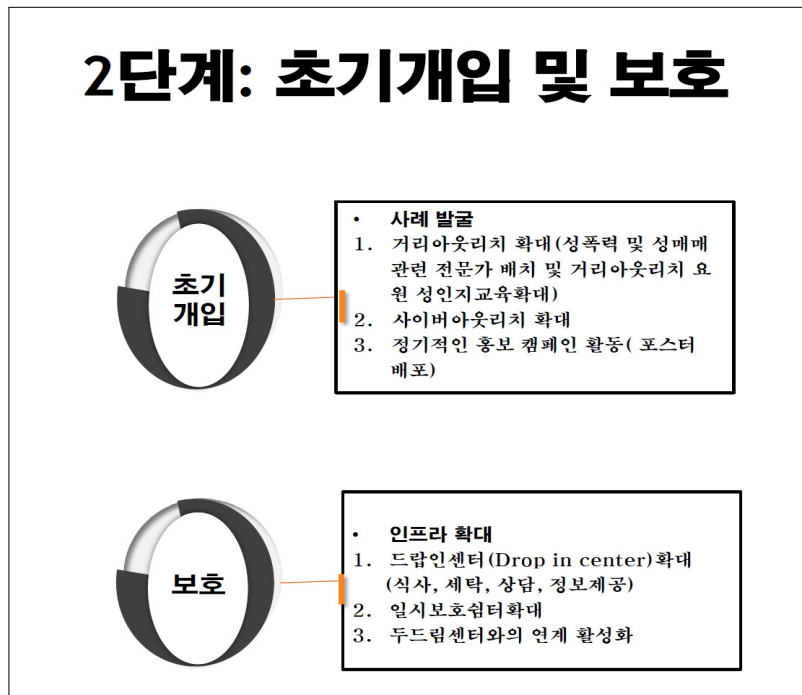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메시지가 명확한 홍보활동을 제안한다.

첫째, 청소년을 성매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임을 국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성매매의 경우 사회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이에 영국 사례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시각에 대한 ‘주요 메시지 생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국립청소년캠페인 (National Youth Campaign)의 청소년들은 ‘17세 청소년과의 섹스에 얼마를 지불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충격적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성

매매가 아동학대임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한국 사회에서도 성매매의 일반적인 이미지에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내용적으로 청소년 성매매가 지역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및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될 경우 겪게 되는 위험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메시지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또한 성매매의 뒷에 걸려 있는 청소년들의 유형과 청소년 성매매 유입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일반대중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급속한 인터넷의 발달<sup>33)</sup>로 쉽고 편리하게 제공되는 성매수 기회에 대해 차단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 제 2 절 2단계(가출 이후 성매매 진입 직전까지): 초기개입과 보호



【그림 6-3】 초기개입과 보호

### 1. 거리 및 사이버 아웃리치 확대를 통한 사례 발굴

33)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한 언급은 제 4장 제 2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성학대의 피해자로 보고 있지 않거나 자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내용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었다.

이에 가출 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확인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과 ‘성매매’에 노출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상담소 혹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폭력’과 ‘성매매’에 노출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상담소 신설에 앞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거리 아웃리치와 사이버 아웃리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2년부터 의료특화형 이동쉼터를 운영(4개소)하여 배회·노숙형 가출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아웃리치 전문요원수를 확대하고 거리 아웃리치를 확대하고 있지만, 그 수가 적고 전문요원의 업무량이 많다. 또한 아웃리치 전문요원 중에서 성매매와 성폭력과 관련된 전문가는 거의 없다. 때문에 성매매와 성폭력 전문가를 아웃리치 전문요원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고, 또한 청소년 성매매 및 성폭행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과 위험요인을 감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거리 아웃리치과정에서도 상담, 인권교육,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동버스 등을 추가 지원할 것을 제안 한다.

또한 위기청소년센터에서는 ‘사이버 또래 상담’을 실시 중인데,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단지 및 포스터를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생활할 만한 공간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 2. 가출 청소년을 위한 인프라 확대

시설 입소를 기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편의시설인 ‘드랍인센터(Drop-in center)’가 필요하다. 현재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폭력 피해에 노출돼 있는 ‘고위험 가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1318뽕송뽕송 아지트(무료 빨래방)’가 운영 중이다. 이곳에선 간식 들어먹기, 비즈 등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재미도 제공하고 금연, 알코올, 성교육을 진행해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도우면서 성적 착취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드랍인센터는 청소년들이 성매매와 같은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게 하는 초기 개입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보호 및 지원서비



스의 의미와 범위, 정보를 익숙하게 접할 수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드랍인센터나 일시 보호쉼터 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제 3 절 3단계 : 탈성매매를 위한 사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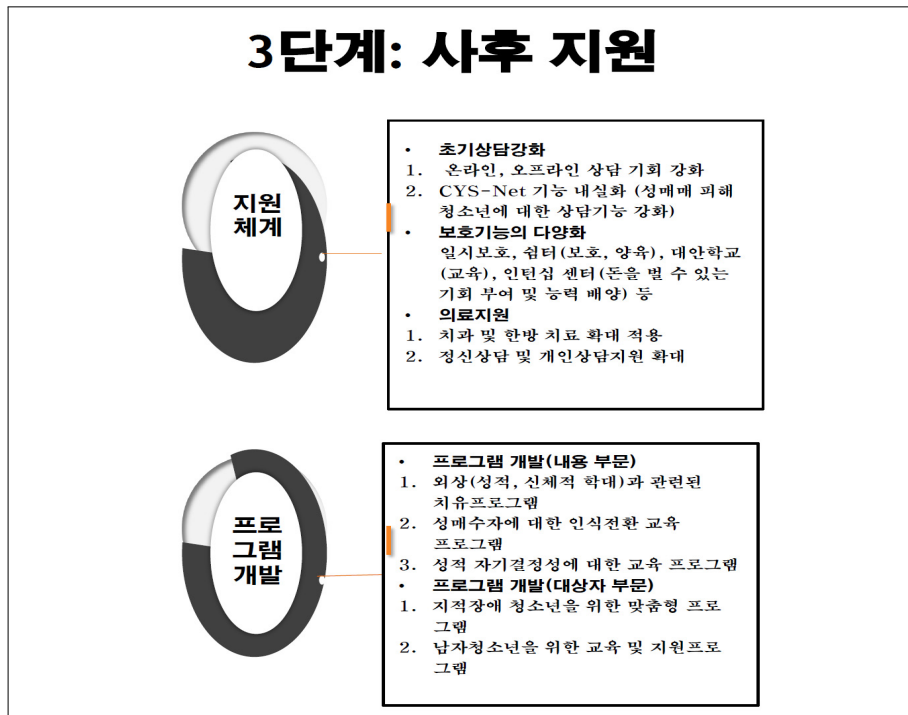


그림 6-4 사후지원

#### 1.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스템은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일반 위기청소년 지원망 안에 성매매피해청소년을 포괄시킴으로써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와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으며,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생활기반을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있다(김인숙, 2011).

이에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상담에서부터 자립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어떤 방식과 어떤 방향으로 통합적으로 구축할 것인가?는 이 연구의 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성매매피해청소년의 욕구와 필요한 서비스를 초기상담강화, CYS-Net 내실화, 보호기능의 다양화, 의료서비스 확대 등으로 나누어서 제안하도록 하겠다.

### 1) 초기상담강화

성매매 유입 초기에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초기상담체계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김인숙, 2011). 실제로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을 성매매 초기에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입지점이다. 그러나 현재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초기상담체계’는 학교, 보호관찰소, 경찰, 사이버 상담, 1318 등 인프라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청소년’과 ‘성매매’라는 2가지 특수한 지점을 포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초기상담 체계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기존의 사이버 상담 등과 같은 초기상담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CYS-Net)내 실화가 필요하다. CYS-Net은 시군구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중심조직이 되어 사례를 관리하는데, 이 센터의 역할은 사례를 발굴, 사정, 배치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실적을 보고받으며, 이를 통해 기관 간 서비스를 조정한다(김인숙, 2011)<sup>34</sup>). 그러나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은 일반 위기청소년들과는 그 경험과 상황에 차이가 존재한다.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상담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실무자가 필요하다.

---

34) CYS-Net이 강조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이다. 지역사회 내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기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통합적 서비스(청소년 상담만이 아니라 긴급구조,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를 제공한다는 것이다(김인숙, 2011).

## 2) 보호기능의 다양화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을 위해 보호기능이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시보호, 장기쉼터(보호와 양육), 대안학교(교육), 인턴십 센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부여 및 능력배양) 등 다양한 기관이 필요하다.

### (1) 쉼터

우리에게는 누구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찾아온다. 우리는 그것을 삶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라고 부르고 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성매매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도 그녀들이 지니고 있는 자원의 질과 양에 따라 성매매를 중단할 수 있는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정적 순간 가운데 하나가 쉼터 입소였다. 쉼터는 성매매피해청소년들에게 성매매기회차단뿐만 아니라 인식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도 마련하고 있었다. 이에 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35)</sup>.

### (2) 대안학교의 특성화 및 다양화

정혜원(2011)의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많다. 또한 현장 전문가들에 의하면 고등학교졸업 자격 검정고시가 매우 어려워,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의 학력취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의 경우 고등학교 편입도 매우 어렵다. 이에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가 필요하다.

물론 지역에 학력인증학교가 있고, 어렵지만 많은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학력을 취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는 대안학교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지적장애 3급에서 경계선 수준의 청소년들은 기능수준이 애매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기도, 일반학교 과정을 이용하기도 어렵다. 이들 대상자들을 위한 위탁교육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위탁으로 대안학교가 있지만 실제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고 비용도 감당할 수 없다. 이 수준의 대상자들은 특히 성매매에 재유입 될 가능성도 많고, 성매매에 재유입되었을 때 조건강요 등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그들의 상황

35) 장기거주쉼터뿐만 아니라, 장기거주쉼터로 들어가야 할지를 선택하기 이전에 잠시 거주할 수 있는 일시쉼터 혹은 쉼터의 기능을 단기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과도적 형태의 쉼터가 필요하다.

에 맞는 교육과정이 있는 대안학교 등 안전망의 구축이 절실하다.

### (3)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기관 활성화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경계선 수준의 청소년들의 경우 자활·자립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이 미흡하다. 이에 청소년의 연령과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기관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훈련이나 교육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연계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특수성이 반영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 인턴십 그리고 일자리를 발굴·개발할 수 있는 인턴십 센터(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부여 및 능력배양)를 제안한다.

## 3)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 (1) 한방과 치과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가출과 성매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오랜 거리 생활로 인해 치아를 관리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관리할 능력이 떨어진다. 특히 가출과 성매매를 동시에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우 어린 연령에 가출을 시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보호 유지해야 하는 지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다. 또한 이러한 신체관리능력의 부재로 인해 탈성매매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허약하거나 치아상태가 부실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자신의 신체를 관리·보호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현재는 성매매와의 연관성을 증명해야 치과 및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치과 혹은 한방 진료 시 성매매와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기가 어렵다. 이에 성매매 지원 시설에 입소해 있다면 구조사업비에서 치과 및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 (2) 전문적인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신경정신과 등 전문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의 경우 지속적인 거리생활과 성매매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공격적이며 분노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의 심리치유 프로그램은 집단상담 형식이나 단기적인 형태들이 많고, 지속적

인 심리치료기관과 연계가 어렵다. 이에 개별적인 심리상담과 지속적인 심리치유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지적장애(혹은 경계성)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심리적 치유가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

## 2.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프로그램들을 내용 부문과 대상 부분으로 나누어 제안한다.

### 1) 프로그램 개발(내용적 부문)

#### (1) 외상(성적, 신체적 학대)과 관련된 치유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의 경우,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거리생활에서, 그리고 성매매과정까지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를 경험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상과 관련된 치료적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외상적 사건에 노출된 이후 감정상 혹은 행동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치료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sup>36)</sup>. 이처럼 한국사회에서도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외상과 관련된 치유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출 청소년들은 거리생활의 과정에서 혹은 가출 이전에도 또래 남성들에 의해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빈번하게 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출 청소년들은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에 대한 개념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녀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 (2) 성매수자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 프로그램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성매수자에 대해 다양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처럼 성매수자들을 물상화시키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성매수자들에 대해 애정을 지니기도 한다. 이와 같은 왜곡된 애정관계는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유지시키는 기제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Williams(2010)의

---

36) 예를 들면 Trauma-Focu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외상중심의 인지행동치료)의 경우에는 다수의 무작위통제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실시하였고, 다변량 통계분석(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을 통해 검증되었다.

연구에 의하면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포주 또는 성매수자들을 친근하게 생각한다(Williams, 2010). 그러므로 성매수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3) 성적 자기결정능력 개발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능력 개발을 위한 성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청소년의 자기결정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주로 이루어져 온 금지 위주의 성교육은 청소년이 실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성교육의 다원화를 통해 청소년이 자율적 통제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맹영임 외, 2007; 이춘화·조아미, 2008 재인용).

### (4)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2) 프로그램 개발(대상자 부문)

### (1) 지적장애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적장애 청소년들과 일반청소년들과 분리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능수준이 일반청소년들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험이 일반청소년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 (2) 남자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의 주변에는 십대의 또래 남성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알선자일수도 있고, 성을 매수하는 자일 수도 있으며, 성을 매매할 수도 있는 자들이다. 이처럼 가출한 십대남성들은 성이라는 스펙트럼에서 다양한 위치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가출한 남자 청소년의 ‘성’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또한 이들도 주류사회에서 성적으로 확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2006)에 따르면 남자 일반 청소년이 성매매 제안을 받은 적은 4.0%였고, 위기 청소년 중 남자 청소년이 제안을 받은 것은 11.3%이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중 성매매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3명 중 66.7%가 남자청소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매매 남자 청소년에 대한 접근이 시급한 실정이다(홍봉선, 2011 재인용).

따라서 남자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한 상담활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일의 Kibs<sup>37)</sup>는 성폭력이나 성매매를 당한 1세에서 21세까지 이르는 남자아동에서부터 청소년에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상담소는 피해자의 부모와 가족, 파트너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의 관계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기관에서 일하는 협력자들에게도 정보를 주고 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남자 또래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받거나 조건사기를 공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있는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예방 사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안 없이는 청소년 성매매 근절이 어렵다.

---

37) Kibs는 성폭력이나 성매매를 당한 1세에서 21세까지 이르는 남자아동, 남자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소이다. 주로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 포럼개최를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kibs.de](http://www.kibs.de)을 참조하기 바란다.

##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준만, 2010, “한국 립살롱의 역사-한국은" 음주·접대·칸막이 공화국" 인가?”, 『인물과사상』 10월호.
- 김성천, 2005, 『청소년의 성보호』, 중앙법학, 7(3), pp.57-80.
- 김시업, 2000, “청소년 매매춘과 원조교제의 사회-심리적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5(2), pp.15-27.
- 김신희, 2008, “방임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주, 2004, 『길을 묻는 아이들』, 책세상.
- 김연주, 2010, “신빈곤층 십대여성들의 성매매 경험과 자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실, 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하나의문화.
- 김은실·장필화, 1999,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입 실태 및 방지대책 연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김은정, 2009, “한국 청소년들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수용과정-또래관계를 비롯한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3(2), pp.1-212.
- 김인숙, 2009, “시설거주 10대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 과정”, 『한국아동복지학』, 30, pp.133-157.
- 김자영, 2011, “성매매피해여성의 정신건강 및 지원욕구 조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김중휘, 2001,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 ;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형사정책』, 13(2), pp.55-75.
- 김주희, 2006, “성산업 공간인 티켓 영업 다방 내 십대 여성의 "일"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4, pp.133-180.
- 김준호·박정선, 1993, “청소년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혜, 2005, “가출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영, 2000, “보호관찰청소년의 비행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및 부모양육행동의 영향력”, 『한국아동복지학』, 10, pp.9-31.



- 김혜원, 2011, “청소년 성매매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한 분석: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4), pp.301-327.
- 남미애, 2001, “청소년의 매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1), pp.271-306.
- 도미향·윤지영, 2004, “청소년 성매매와 성보호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1), pp.19-33.
- 민가영, 2009,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자발성’과 그 맥락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한 성매매 청소년의 자발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청소년연구』, 20(1), pp.173-202.
- 민가영, 2008, “신자유주의 시대 신빈곤층 십대 여성의 주체에 관한 연구: 젠더, 계급의 상호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광민·서정찬, 2004, “청소년지도사의 리더쉽과 집단응집력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1(2), pp.45-82.
- 박동균, 200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책”, 『한국경찰학회보』, 3, pp.39-66.
- 박명숙, 2006, “청소년 가출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3(1), pp.85-106.
- 박성수, 2001,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2, pp.91-121.
- 박성수, 2004, “청소년비행에 있어 경찰과 보호관찰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정선, 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종원, 2004, “학생들은 언제 말문을 여는 가?: 원어민 교사 수업을 중심으로”, 『영어교육연구』, 16(2), pp.209-239.
- 박창남, 2004, “청소년노동에서 인권의 의미에 관한 연구-중, 고등학교 재학생의 아르바이트 노동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6(1), pp.25-36.
- 백현정, 1999, “아동이 지각한 경제적 어려움 부부갈등 양육, 태도 및 애착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정·방은령, 2009,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변혜정, 2006, “반성폭력운동과 여성주의상담의 관계에 대한 연구- 상담지원자의 입장에서”, 『한국여성학』, 22(3), pp.5-272.
- 서울신문, “장기가출 여학생 절반 성매매”, 2010.2.24일자.
- 성용은·조현빈, 2010, “한국 청소년의 성비행 대책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4,

pp.125-165.

- 성윤숙, 2009, “여자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손희권, 2003, “과잉금지의 원칙 관점에서의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청소년학연구』, 10(4), pp.93-119.
- 설라 제프리, 2011, “성산업과 기업활동: 성평등 장애요인의 관점에서”, 『여성과 인권』, 5, pp112-141.
- 신경림·조명옥·양진향,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심희기, 2002, “성매매와 형사정책의 기본방향 ;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매매 방지”, 『한국형사정책학회』, 14(2), pp.75-103.
- 여성가족부, 2009, “청소년유해환경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유문무, 2005, “청소년 성매매 현상의 원인과 대책”, 『한국공공관리학보』, 19(2), pp.163-194.
- 유은주, 2005, “성매매 청소년의 체험 연구”, 『청소년학연구』, 12(3), pp.143-163.
- 윤선미, 2011, “집을 찾는 여정으로서 가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상·박창남, 2006,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참여실태 및 지원방안: 기관소속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7(2), pp.265-289.
- 이경재, 2001, “미국 행형의 역사와 그에 대한 평가”, 『형사정책연구』, 46, pp.225-248.
- 이사라,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22(4), pp.17-32.
- 이선희, 2009, “여자가출청소년의 성매매경험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숙·김영천, 1998,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과 적용』, 교육과학사.
- 이주영, 2006, “재가출 경험을 통해 본 십대 가출여성의 정체성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해경·이경성·신현숙, 2004, “청소년의 성매매 경험 유무를 변별하는 사회심리적 특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1(1), pp.297-315.
- 이효희, 1998, “십대여성의 성적 서비스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논문.
- 전신현·김원경·황성현, 2010, “청소년 가출에 관한 상호작용론적 접근 : 손베리 이론의 부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59, pp.5-284.
- 정경은·문성호, 2008, “청소년가출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 5(1), pp 219-241.
- 정규석·조정자·유순화, 2003,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다체계 모델 검증”, 『청소년학연구』, 10(3), pp.239-259.
- 정익중·김세원, 2011, “아동청소년발달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잠재적 유형 간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2(3), pp.197-230.
- 정혜원, 2009, “인생사건이 비행시작에 미치는 영향: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혜원, 2010, 『청소년비행의 그 시작과 예방』, 한국학술정보(주).
- 정혜원, 2011,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II) :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조금주·정혜원, 2010, “청소년 부당 노동의 발달 궤적 및 예측 요인 탐색”, 『중등교육연구』, 58(3), pp.425-449.
- 조성연·이용교·방은령, 2000, “청소년의 원조교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2), pp.99-116.
- 조성은·신호창, 2010, “청소년 성매매 방지 공공 캠페인 전략 연구”, 『한국언론학보』, 54(1), pp.228-251.
- 조한혜정, 2000, “N 세대의 새로운 행동 패러다임 : 청소년의 사회성, 도덕성을 중심으로 ; N 세대 새로운 행동 패러다임 연구의 방향 - '발달 심리학' 에서 '자아형성학' 으로”, 『한국심리발달학회지』, 13(3), pp.1-8.
- 추주희, 2009, “가출 청소년의 삶과 노동”, 『현대사회과학연구』, 13, pp.97-123.
- 허경미, 2003, “성매매규제 관련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5, pp.227-259.
- 허영희, 2007,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적 제언”, 『법학연구』, 15(1), pp.81-108.
- 홍봉선, 2007,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영국정부의 개입방향 및 전략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pp.387-424.
- 홍봉선·남미애, 2007,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사업 효과성 검증 및 성과분석”, 국가청소년위원회.
- 홍봉선·남미애, 2009, “성매수 피해청소년의 현황과 사회적 지원체계 점검”, 보건복지가족부.
- 홍현정, 2007,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경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주·박현선, 2009, “저소득 청소년의 학습지원 멘토링 참여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4), pp 331-358.

#### [외국문헌]

- Ashley, J., 2008, Child sex exploitation study probes extent of victimization in Illinois(Research Bulletin), Illinois: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Authority.
- Banyard, K., & Lewis, R., 2009, Corporate sexism, The sex.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005, Innocence lost arrests: National crackdown on child prostitution. Retrieved from <http://www.fbi.gov>.
- Flowers, R. B., 2001, Runaway kids and teenage prostitution: America's lost, abandoned, and sexually exploited childre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Fraser, M. W., Richman, J. M., & Galinsky, M. J., 1999. risk, protection and resilience: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Research, 23, pp.129-208.
- Friedman, S. A., 2007, Alternative report to the init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erning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Brooklyn, NY: ECPAT-USA(End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Traffick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 Gray, E. S., 2005, Juvenile courts and sexual exploitation: A judge's observations, In S. W. Cooper, R. J. Estes, A. P. Giardino, N. D. Kellogg & V. I. Vieth(Eds.), Medical, legal, & social science aspects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A comprehensive review of pornography, prostitution, and internet crimes(pp 711-714). St. Louis, MO: G. W. Medical Publishing.
- Greene, N. B., & Esselstyn, T. C., 1972, The beyond-control girls, *Juvenile Justice*, 23, pp 13-19.
- Kipke, M. D., Palmer, R. F., LaFrance, S., & O'Conner, S., 1997, Homeless Youths Descriptions of Their Parents Child-Rearing Practices, *Youth and Society*, 28, 415-431.

- Kipke, M.D., O'Conner, S., Palmer, R. F., & MacKenzie, R. G., 1995, Street Youth in Los Angeles: Profile of a Group at High Risk for HIV, *Archives of Pediatric and Adolescent Medicine*, 149, pp 513-519.
- Kreston, S. S., 2005,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he prostitution of children. In S. W. Cooper, R. J. Estes, A. P. Giardino, N. D. Kellogg & V. I. Vieth(Eds.), *Medical, legal, & social science aspects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A comprehensive review of pornograph, prostitution, and internet crimes*(pp 745-788). St. Louis, MO: G. W. Medical Publishing.
- Mitchell, K. J., Finkelhor, D & Wolak, J., 2010, Conceptualizing Juvenile Prostitution as Child Maltreatment: Findings from the National Juvenile Prostitution Study, *Child Maltreatment*, 15(1), pp18-36.
- Walls, N. E., & Bell, S., 2010, Correlates of Engaging in Survival Sex among Homeless Youth and Young Adults, *Journal of Sex Research*, 47, pp 1-14.
- Williams, L. M., 2010, Harm and Resilience among Prostituted Teens: Broadening our Understanding of Victimization and *Survival*, *Social Policy & Society*, 9(2); pp243-254.
- Wilson, H. W., & Widom, C. S., 2010, The Role of Youth Problem Behaviors in the Path From Child Abuse and Neglect to Prostitution: A Prospective Examinat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1), pp.210-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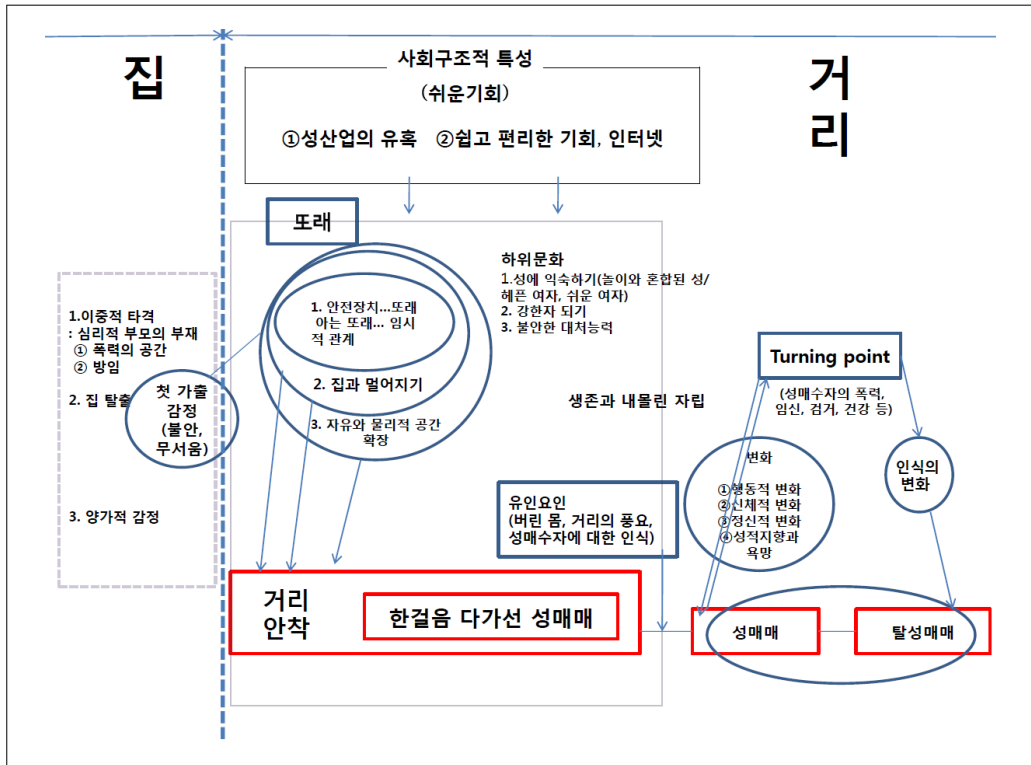
부  
속



Women's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부록 1 |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과정

## 면접목록

- ※ 질문순서는 면접자의 재량에 따라 순서가 변화할 수 있음
- ※ 면접자의 재량에 따라 새로운 질문 추가 가능함
- ※ 피면접자가 거부할 경우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음
- ※ 소요예상시간 1시간 20분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함
- ※ 생애사를 중심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전개할 것
- ※ 민감한 질문의 경우 본인의 경험보다는 타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접근할 것

### [초두 질문]

1. 초기 질문(자신소개)

※ 연구자 관심 : 생애사



초등학교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힘들었던 일/ 즐거웠던 일 등)

### [도입 질문]

1. 요즘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요?
2. 여기 청소년 지원시설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여기 청소년 지원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나요? 누구랑 살았나요? 어디서 살았나요?

---

38) 면접목록은 대상에 따라 3종 개발되었다. 그 가운데 초기면접 목록만 수록하였다.

※ 연구자 관심 : 사회적 연결망



5. 가장 친한 친구나 선배 혹은 후배는 누구인가요? 어떻게 친하게 되었나요?(사건 중심)
6. 왜 그 친구가 혹은 선배, 후배를 친하다고 생각하나요?  
- 고민의논, 위로/ 돈, 정보 등 도움/ 만남빈도(실제만남, 전화, 컵)
7. 친구 - 선배 - 후배 연결망 : 아는 친구/ 아는 선배/ 아는 후배 (상세하게)
8. 혹시 옛날에는 아주 친했는데 지금은 친하지 않은 친구는 누구인가요? 왜 그 친구와는 지금 친하지 않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9. 친하게 사귀고 싶은 친구(혹은 선배)가 있나요? 어떤 친구(혹은 선배)인가요?(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10. 주변에 조건이나 보도를 하는 친구나 선배 그리고 후배가 있나요? 언제부터 알던 사이인가요?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1. 인터넷을 통해 새롭게 사귀 친구 혹은 선후배가 있나요?
2. 새로운 인간관계(친구, 선배, 후배, 기타)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형성하게 되나요?
3.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출경험



본인의 가출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첫 가출 경험부터 천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질문)

[가족과의 관계]

1.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2. 가출해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3. 가출했을 때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 [공간]

1. 몇 번 이사했나요?
2. 본인이 살았던 지역들은 어디인가요?
3. 자신이 생활했던 동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동네는 어디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동네사람들은 어떤가요? 동네사람들과는 친하게 지냈나요?
5. 주로 어디서 놀았나요? (구체적인 지역이나 업소까지 예를 들면 영등포 자뎡커피점)

## [가출청소년 성매매 유입기제] : 폐쇄된 노동시장경험

1.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은 힘든가요?
2. (가출이후, 가출이전 나누어서) 아르바이트 경험은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했나요?
3.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 [성적 지향]



본인의 성적지향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 [연구자 관심 : 과거 학대 경험] ※ 학대 혹은 성폭행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질문.



1. 과거에 친밀한 사람, 부모님, 학교 친구 등에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2. 어떤 종류의 학대였나요?
3. 성폭행 경험이 있나요?(누가 언제 어디서)
4. 성폭행 경험이 이후 삶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또는 친구, 학교, 가족)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요?

### [가출청소년 성매매 유입기제] : 성문화(놀이로서의 성/ 육체자본으로서 성)

1. 첫 성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 줄 수 있나요?(구체적으로) 상대는 누구이며 강제적이었는지 자발적이었는지?  
(2번- 6번) 질문은 현재 남자친구가 있는 경우 현재를, 현재가 없을 경우에는 과거 남자친구
2. 남자친구(애인)는 있나요?
3. 남자친구(애인)가 있다면 남자친구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몇 살인가요?
4. 데이트 비용은 누가 내나요? 만나면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내나요? 남자친구는 어디에 사나요(지역, 누구와 사는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5. 스킨십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 해 주세요? 만난 후 얼마만에 스킨십을 하나요? (스킨십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킨십을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 포옹, 키스, 성관계)
6. 스킨십 단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해 주세요?

### ※ 연구자 관심 [가출청소년 성매매 유입경로 및 성매매]



1. 혹시 주변에 조건만남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조건만남을 시작하는 것 같나요?
2. 조건만남 경험이 있나요?
3. 조건만남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4. 처음으로 조건만남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이 느껴졌나요 ?
5. 요즘 또래포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6. 성을 매수하는 남성에 대한 생각은?
7. 조건만남이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것이 있었나요?

### [성매매 유입이후 변화] : 교육기회의 차단

1. 학교를 그만 두고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이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2. 학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왜 교복을 입고 싶어 하는지 궁금)
3. 학교를 안 다니는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느껴 본 적은 있는지요?
4. 성매매를 그만 두는데 도움이 되는(필요한) 사회적 지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5. 앞으로 미래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6.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개입과정에서 실무자(어른)들이 고려해야 할 특성은 무엇인가요?
7. 자신이 받아 본 사회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8.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9. 조건만남으로 인해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느낌)
10. 경찰에 대해 신뢰할 수 있나요?

### [과거, 현재 및 미래생활]

1. 시설 입소 이전의 용돈 및 생활비는 얼마인가요 ?
2. 다른 사람들에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인가요?
3. 혹시 범죄를 당할까 봐 두려운 적이 있나요? 밤길을 갈 때 무서운 적이 있었나요?



피면접자 면접을 기분 좋게 끝낼 수 있는 질문 하나하기 (미정 : 상황에 따라 조정)

[3] 성매매 피해 청소년/년을 위한 정책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중요한 순서대로 골라 그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① 성매매 피해 청소년/년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② 매뉴얼 개발 ③ 진학지도, 개별 기술습득 지원, 멘토 연결 등 청소년 자립 일자리 교육지원 프로그램 ④ 위탁교육제 등 다각적인 교육프로그램 도입 ⑤ 의료지원 체계 개선(치과치료 포함) ⑥ 기타(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3-1. 1순위 선정 정책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어 주세요.

3-2. 기타의견(위의 정책과제외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4] 입소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시 연계하는 기관이 있다면 모두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들 기관과 연계 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5] 성매매 피해 청소년/년 위기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6] 가출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견이 계시면 적어주세요.

39) 이 델파이 조사는 김자영(2011) 델파이조사와 함께 수행되었다.





##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 I )

발행인 김호순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 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전 화 02)3210-1050  
[www.stop.or.kr](http://www.stop.or.kr)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인쇄처 경성문화사 (TEL. 786-2999)